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2017년 6월 23일(금) 13:00 ~ 19:00
제주대학교 인문대2호관 진양현석관

주최 : (사)제주학회, 국회의원 오영훈
주관 : (사)제주학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학연구센터

2017년 (사)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주제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

-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13:00 ~ 19:00
-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2호관 진양현석관
- 주최 : (사)제주학회, 국회의원 오영훈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학연구센터



초대의 글

제주도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섬으로 거듭나면서, 문화, 결혼, 귀촌 등 다양한 이유로 제주에 정착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제주학회에서 토착 선주민과 정착 이주민의 행복한 공존과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이주민 정책수립을 위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45차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주민들이 제주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토착 선주민과 정착 이주민 사이에 서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제주학회 회원과 제주도민 여러분을 모시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사)제주학회 회장 윤 용 택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 오 영 훈



세부 프로그램

• 제 1 부

개 회 식

13:00 ~ 13:10 등 록

13:10 ~ 13:20 개회식

사회 : 양정필(제주대)

- ▶ 개회사 윤용택(제주학회 회장)
- ▶ 인사말 오영훈(국회의원)
- ▶ 축 사 도중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 2 부

학술발표회

13:30 ~ 17:10

좌장: 황경수(제주대)

- ▶ 원대명초 몽골족 제주이주 연구 - 오영주(제주한라대)
- ▶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 홍기표(전 성균관대)
- ▶ 한국전쟁기 제주 피난과 이주, 그리고 정착 - 김아람(연세대)
- ▶ 산업화 시기의 제주이주민: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 - 염미경(제주대)
- ▶ 2000년대 이후 문화이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 - 김동현(제주대)
- ▶ 외국 이주민의 정착과 전망 - 황석규(제주다문화복지교육연구소)
- ▶ 제주 이주민의 역사와 현재적 지점 - 정은희(제주이주민의 역사 저자)

• 제 3 부

종합토론

17:30~19:00

좌장 : 정광중(제주대)

- ▶ 지정토론 : 김일우(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유철인(제주대)
- 이영권(제주역사교육연구소) 강성일(제주대)
- ▶ 종합토론 : 참여자 모두

• 만찬 : 19:30

개 회 사



윤 용 택 (사)제주학회 회장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주신 제주학회 회원 및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보물섬입니다. 제주도는 태어나고 자라서 고향에서 생활하는 토박이 비중이 거의 70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제주에서 태어난 이들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주풍광이 세계적으로 아름답다고 알려지면서 요 몇 년 사이에 문화, 결혼, 귀촌 등 다양한 이유로 제주에 정착하려는 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제주학회에서는 토착 선주민과 정착 이주민의 행복한 공존과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이주민 정책 수립을 위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45차 전국학술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도에 수많은 선사유적과 신의 내력담인 본풀이가 있는 걸 감안하면 제주섬에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탐라 개국신화에 따르면, 제주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삼성혈에서 양을나(良乙那)·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 3신인(三神人)이 솟아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신인은 벽랑국의 3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제결혼인 셈인데, 탐라국 출발부터 이주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제주섬에는 60여 만명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열에 아홉은 여러 경로로 이주하여 정착한 이들의 후예들입니다. 제주에는 고려 중기에 육지에서 들어온 경우, 중국에서 도래한 경우, 원(元)나라와 명(明)나라 초기에 들어온 경우, 조선시대에 유배나 다른 이유로 정착한 경우, 한국전쟁기와 산업화시기에 정착한 경우, 그리고 최근 늘고 있는 문화이민자, 결혼이민자, 귀촌인 등 다양한 정착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1.

다문화 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는 행복한 공존을 위해 오래된 다문화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제주학회에서 중국 운남성(雲南省)을 다녀왔습니다. 운남은 한족(漢族)을 비롯하여 이족(彝族), 백족(白族), 합니족(哈尼族), 장족(壯族), 묘족(苗族), 몽골족(蒙古族) 등 26개 민족이 살아가는 민족생태박물관이었습니다. 운남의 곤명(昆明)에 있는 운남민족박물관과 운남민족촌은 각 소수민족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보여주고,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남이 낳은 세계적 무용가인 양리핑(楊麗萍)이

기획한 가무쇼인 운남영상(Dynamic Yunnan)은 소수민족들의 역사와 문화를 춤과 노래로 압축하여 보여주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압권이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본 곳은 5600명 몽골 후예들이 살아가는 운남성 옥계시 통해현의 몽골족마을(興蒙蒙古族鄉)이었는데, 그곳은 원(元)의 쿠빌라이가 1253년 대리(大理)를 정복한 이후에 생겨난 마을입니다. 운남 몽골족들은 아직도 전통의복을 입으며, 전통가무와 악기를 배우고 가르치고, 3년에 한 번씩 몽골민족 축제인 나담축제를 열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지만, 750여년 세월은 몽골문화를 그 지역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이를테면 몽고어는 다른 언어와 섞이면서 독특한 언어(卡卓語)가 되었고, 나담축제에서도 몽골에서는 볼 수 없는 용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몽골민족의 문화와 풍습들을 보존하려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국내외에서 제주에 이주해온 이들에게 제주어, 제주역사, 제주문화 등을 가르쳐 빨리 제주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토착 선주민들이 정착 이주민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휴양지이자 세계 관광지인 제주섬에 국내외 이주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을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테면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등 다양한 민족문화체험관과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이북5도 등 팔도문화체험관을 세우자는 겁니다. 민족체험관과 팔도문화체험관은 정착민에게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토착민에게는 이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다문화교육장 역할을 하며, 관광객에게는 제주의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주민들이 제주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토착 선주민과 정착 이주민 사이에 서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토착민이라 하는 이들도 예전에는 이주민이었고, 현재 이주민이라 해도 한 세대만 지나면 토착민이 됩니다. 이 학술대회가 제주섬에 일찍 토착한 선주민과 최근에 정착한 이주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고,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옥고를 보내주시고 좋은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주신 제주학회 회원과 제주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후원해주신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님, 그리고 재정지원을 해주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님과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7. 6. 23

인 사 말



오 영 훈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먼저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2017년 사단법인 제주학회 제45차 전국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사를 후원해 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학연구센터에 고마운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1997년 출범한 사단법인 제주학회는 1978년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규모 지역학 학회인 ‘제주도연구회’ 창립을 시작으로 제주의 자연과 인문 환경, 역사와 사회구조 등 종합적인 학문분야에서 매년 2회 이상 전국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학 연구를 위해 매진해 오신 사단법인 제주학회 김진영 이사장님과 윤용택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수년 전부터 제주를 찾는 이주민들이 대폭 늘어 제주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여러 사회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차량 역시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내 곳곳에서 도로가 막히고 차량이 주차할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이주민들이 제주사람과 서로 간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혼디(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더불어 혼디(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따른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의 토론회가 더 의미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열리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을 통해 제주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을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문화적 갈등을 줄이고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학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2017년 사단법인 제주학회 제45차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신 사단법인 제주학회에 감사드리며,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 6. 23

축 사



도 종 환 문화체육부장관

(사)제주학회가 2017년 제45차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애쓰신 국회 오영훈 의원님, 윤용택 제주학회장님,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제주학회는 1978년부터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환경, 역사와 사회구조, 도민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 등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학 연구의 효시이자 제주지역학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매월 순유입 인구가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이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제주에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곳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제주 이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여러 학술연구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소통 과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다양성’을 문화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지역분권과 문화자치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열리고, 제주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7. 6. 23.

제 2 부

학 술 발 표 회

- 원대명초 몽골족 제주이주 연구 오영주(제주한라대)/15
-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홍기표(성균관대)/48
- 한국전쟁기 제주 피난과 이주, 그리고 정착 김아람(연세대)/66
- 산업화 시기의 제주이주민: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 염미경(제주대)/91
- 2000년대 이후 문화이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 김동현(제주대)/112
- 외국 이주민의 정착과 전망 황석규(제주다문화복지교육연구소)/123
- 제주 이주민의 역사와 현재적 지점 정은희(제주이주민의 역사 저자)/132

冊 2017 제주학회 학술대회 - 학술토론회

원대명초 몽골족 제주이주 연구

오 영 주(제주한라대학교)

- I. 제주와 원(元)의 첫 만남 : 梁浩 vs. 忽必烈
- II. 13C末~14C 末 제주 집단 이주자, 그들은 누구인가?
 - 1. 13C末(蒙元시기) 제주 주둔군
 - 2. 14C말(明初) 중국 운남(雲南)에서 온 이주민
- III. 이주자들의 삶의 모습
- IV. 징기스칸 황금씨족, 梁王家屬에 대한 고찰
- V. 云南省 玉溪市 通海县 몽골족 사례(예비조사)
- VI. 결론

제주 星主 梁浩와 원 세조 忽必烈의 만남



[元史, 本紀第六 世祖三]四年春正月甲午, 以開州新得兵, 遣梁浩, 欽平, 延安等處兵三千人, 山東, 河南, 保寧, 濟州兵七千人, 丁酉, 乙巳, 百濟遣其臣梁浩來朝, 賜以綉綉有差。

1. 왜, 백제인가?
2. 비단 차등 지급의 의미

제주 성주의 대도 알현 일정

출발지: 강화(도착일 1266.11월)
일시: 1266년 12월 6일
동행자: 정언(正言) 현석(玄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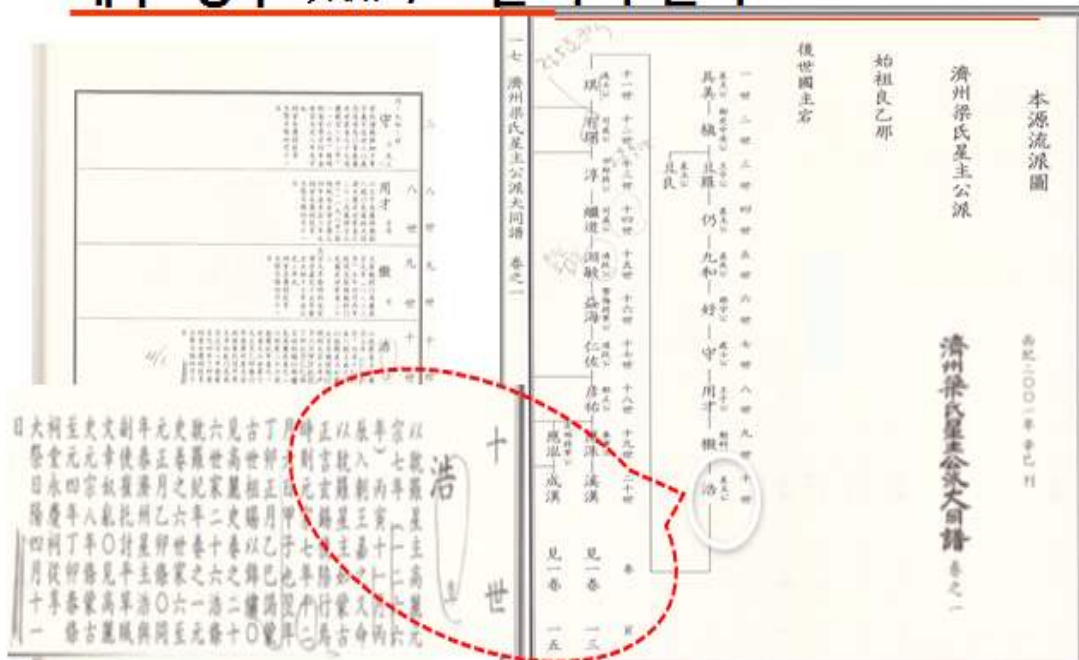
도착지: 대도(연경)
일시: 1267년 1월 26일(약50일)
내용: 일본 수교계획, 뱃길, 元-日 관계 증대역할, 六事(?)



文幸奴의 亂- 양호의 귀국 직후 발생

- 주동자 : 문행노 등
- 발생일 : 1267년(고려 원종 8년) 봄
- 원 인 : 세금징수(쿠빌라이 프로젝트-군비조달?)
-1268년 선박 100여척 건조
-1269년 법화사지 중창
- 장 소 : 長坪(제주성 동쪽 6리, 신촌리 해안)
- 경 과 : 副使 崔托과 星主 梁浩 등에 의해 평정

제주 성주 梁浩, 그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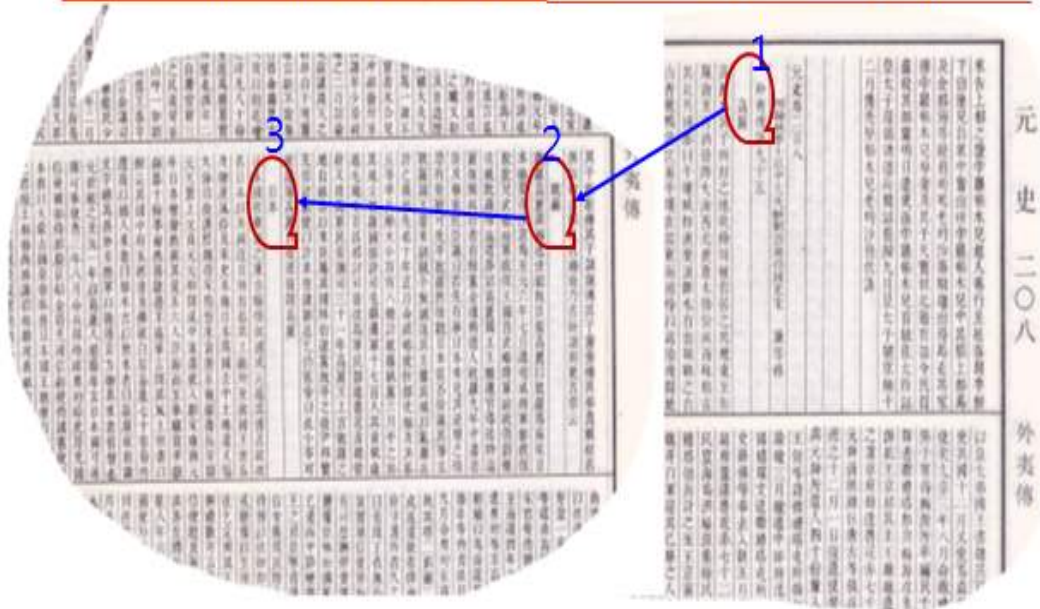
제주성주 양호의 운명

1. 쿠빌라이의 동정정책에 불응했다?
2. 성주직을 버리고 은퇴했다?
3. 삼별초 사멸 이후 양씨 성주를 왕자로 격하시키는 곡필을 당했다?
4. 그 결과 1270년~조선조 600년 등과

성주 양호, 삼별초 이문경에게 당(死)하다?

- 삼별초 별동대장(선발대?) 이문경 제주 파견
- ✓ 기 간: 1270년 8월~11월
- ✓ 이동경로: 추자도-비양도-명월포-동제원-송담천
- ✓ 송담천 전투: 고려 관군 김수·고여림 등 전패 (제주 양호 군대 포함?)
- ✓ 결 과: (문경이 관군을 모두 죽이고 朝天浦에 웅거)
 - 관군 전패, 삼별초 제주 지배권 확보
 - 삼별초 주력군 진도(여몽연합군 진도 정벌)→ 제주 주둔 인프라 구축(1271년, 원종 12년)
 - 삼별초에 의한 제주 양씨의 수난史 시작(?)

원 세조의 탐라에 대한 시각 고려의 속국 제주를 독립국 탐라로, 일본 보다 앞서



연구 노트

元・明初の耽羅(濟州島)

大葉昇一

はじめに

耽羅は古く独立国として、百濟・唐・日本に通好し、九世紀初頭から新羅、次いで高麗にも貢獻した。高麗は十二世紀初めに耽羅に都を置き、同世紀半ばに県に改め、十三世紀に入って濟州を置いた。しかし、一二六六年、星主(耽羅土着の領袖)は高麗を経て元に行き(麗26元宗7・11)、翌年にも耽羅は元に遣使する(元6至元4・1)という経緯があつて、元は耽羅を高麗とは別格の存在と認めた。三別抄の乱の後、耽羅は元の支配下に置かれたが、元末、明初に高麗が耽羅の支配権を回復する過程で、星主らはまったく自治の権を失つていくことになる。元代は耽羅の命運を決定づける重要な時期であつた。小稿は、元の日本遠征の耽羅との関わり、耽羅の帰属をめぐる

“탐라가 오래된 독립국으로 백제와 당,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9세기 초부터는 신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후에는 또 고려에 조공을 바쳤다. 13세기 초, 고려는 탐라에 郡을 설치하고, 후에는 또 縣으로 변경하였으며, 13세기 이후에는 ‘제주’라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1266년 星主(탐라 토착민의 영수)는 고려를 경유하여 원나라에 도착한다. 그 다음에 원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원 조정은 탐라를 고려와 다른 독립적 존재로 보기에 이른다. 삼별초의 난 이후, 탐라는 원 왕조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 원말명초에 이르러 고려는 탐라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이로써 성주는 그 자치권을 상실하게 된다. 元代는 탐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 大葉昇一(1999). 「元明初の耽羅(濟州島)」『昭和女子大学文化史研究』3研究ノート, 55-67

제1기-13C末(元代) 蒙元 주둔군(蒙漢軍) 제주도 입도

연도	入(出)島 자	인원 (+증, -감)	성별		비고
			남	여	
1273년 (원종 14년, 지원 10)	蒙漢軍	+700	○		漢人(北方人) > 몽골 > 色目人
1275년 (충렬왕 원년, 지원 12)	도적, 죄수	+100	○		일반절도자 ≠ 도적(정치범)
1277년 (충렬왕 3년, 지원 14)	죄수	+73	○		5월 33명, 8월 40명
1282년 (충렬왕 8년, 지원 19)	蒙漢軍	+1,400 (원대 최대)	○		일본 원정 후 탐라 방어, 3차 일본정벌계획 (右丞 關梨帖木兒 군대 입도, 몽골 + 漢人(南人, 北人) + 色目人)
1284년 (충렬왕 10년, 지원 21)	蒙漢軍	-400	○		家長(妻子, 元 거주자)

※ 1294년 쿠빌라이 칸 사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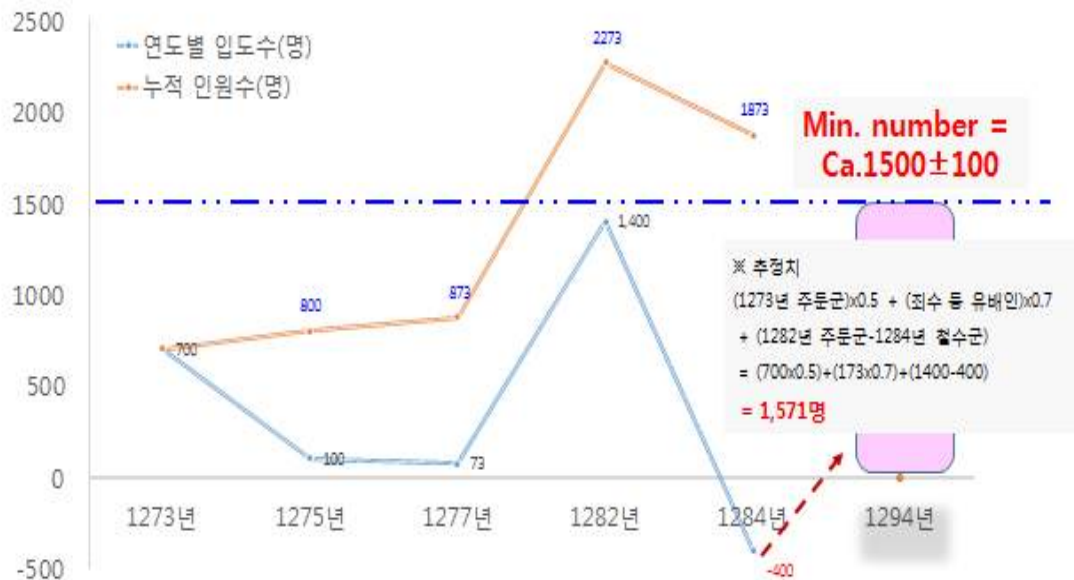
- 1273년~1294년 : 元군인(男) 등 최소 1,500명, 법화사지 건축(1269~1279년)
- 1273년~1365년 : 소 그릅 이주(여성도 포함) → 관원수행원 유배인(초토사, 다루가치, 안무사, 만호, 우승 등 고급관리 (외관 T/O 7명)), 원세조 사망 후 황금씨족 등 고위직 유배
- ※ 쿠빌라이 집권 시기(1273~1294년)에 집중적으로 이주민 입도 → **제주의 몽골화**

쿠빌라이 칸 재임기 연도별 蒙漢軍 제주 입도 추이현황(재)



원 세조 제주 통치기(1273~1294) 蒙元 1차 이주민 수 추정

The 1st Immigration(30년, 1273~1294)



제2기: 쿠빌라이 死 후 원대(~1366년) 제주 유배 및 이주

입(출)도 연도	입(출)도자	인원(명) (+증, -감)	성별		내 용
			남	여	
1317년 (원 인종 4년)	위왕 아목가 (魏王 阿木哥)	+일행	○	○	유배, 조국장공주(충숙왕 妃)의 부친, [元, 流魏王阿朮哥于耽羅, 尋移大 靑島, 고려사절요/元 延祐四年]
1322년 (원 영종 2년)	徽政院使 라원 (羅源)	?	○		(高)관원, 옹기라트 외가 사 후 정쟁
1340년 (원 혜종 6년)	패란해대왕 (李蘭奚大王)	+일행	○	○	유배(살인죄, 再犯, 元史 卷23)
1366년 (원 혜종 32년)	元世 등	+11가구	○	○	건축기술자 도목수[樵人(자인)] 가 족일행, 원순제 피난궁전 건축 (己酉十八年, 洪武二年, 1369年)

-元史卷二十三, 本紀第二十三 武宗二丙午, 十一月 諸王李蘭奚以私怨殺人, 當死, 太宗正也可紮魯忽赤議, 李蘭奚貴為國族, 乞杖之(곤장 치고), 流北鄙從軍(변경수비군), 從之

-작은 황제 교체와 권력 투쟁 - 제주를 유배지로 활용

(제4대 황제(원 인종, 아유르바르와다) 사 후(1320년) 13년 동안 7명의 황제가 교체 권력 다툼)

-원혜종+기황후 집권 시 제주 관심 부활(避難十一月 宮趾?)

입도 100년 후 蒙漢軍의 운명, 甲寅의 變(1374년)

25일간 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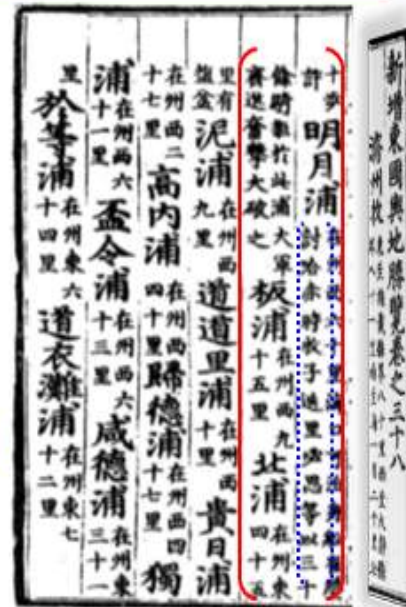
- ✓ 시기 : 1374년 8월 28일~9월 23일
- ✓ 장소 : 서아막(西道), 동아막(東道)
- ✓ 규모 : 2만5,605명(최영)+전함 314척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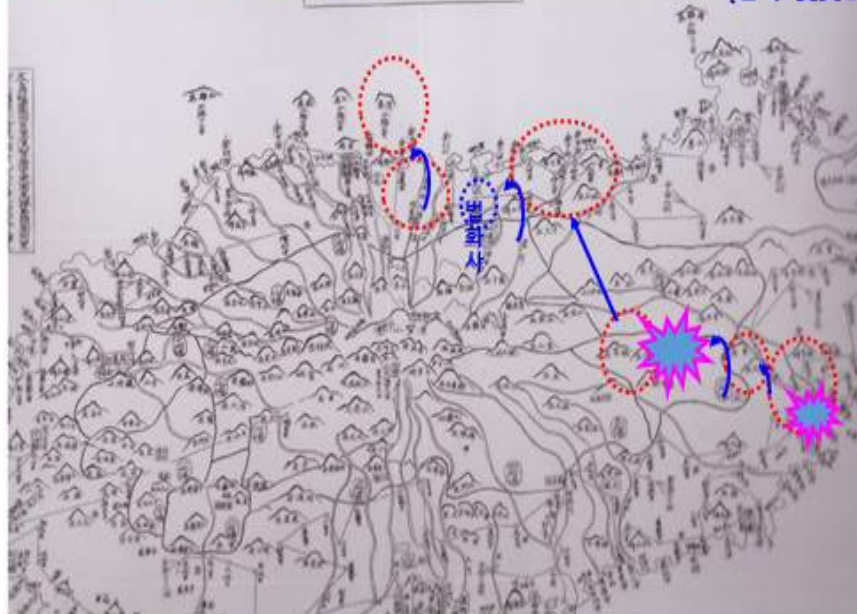
목호기병 3,000명+보병

營部署諸將四面分攻, 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
音保等以三千餘騎拒於明月浦, 營遣前濟州
牧使朴允清以書諭之曰: “今興兵問罪勢不得已, 除賊魁外星主王
子土官軍民宜悉按堵如故.

[고려사, 권113 > 열전 권제26 > 제신(諸臣) > 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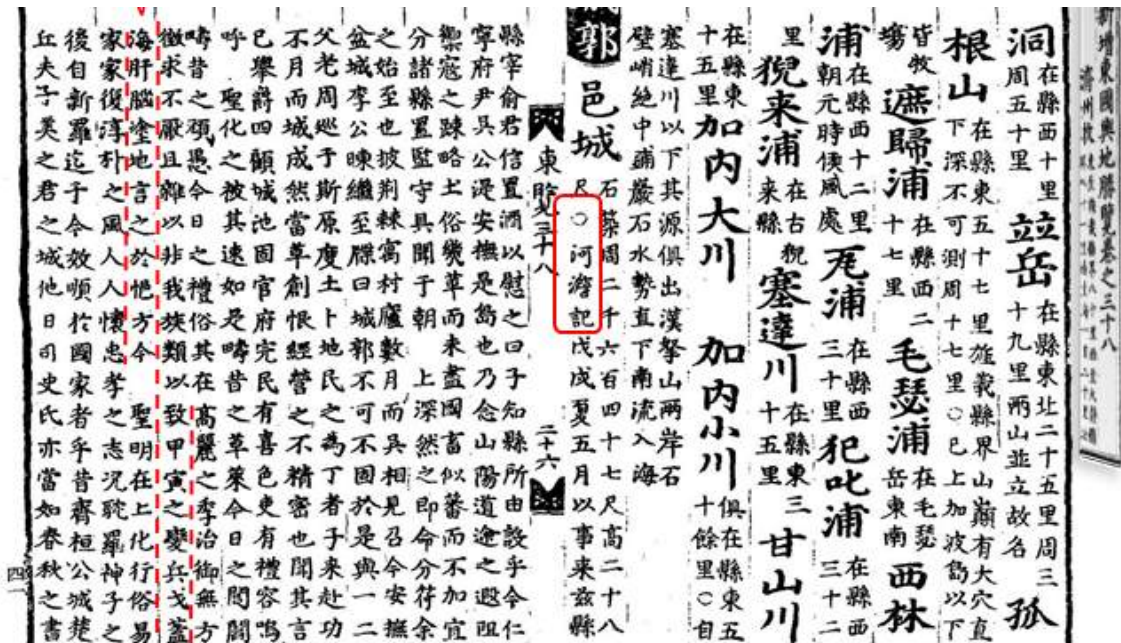
將先到岸船一十一隻軍人行殺死及將牧使李下生殺害聚領馬步兵不計其數自明月村及冰非地面明近吾音地面今勿
吾音地面曉星吾音地面延來地面洪爐地面不分晝夜相拒交戰百般攻討其哈赤牧子人等拒戰不勝逃入虎島以此遣兵圍
[출처: 吏文 2-12. 濟州行兵都諍議使司申]



서아막

동아막





입도 100년 후 죽은 자와 남은 자, 그들은 누구인가?

죽은 자

-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Shi die li bi si
- 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xiaogutu bu hua
- 관음보(觀音保)
guanyin bao

西阿慕
= 西道

- 석다시만(石多時滿)
shi duo shi man
- 조장흥고손(趙莊忽古孫)
zhao zhuang hu gu sun
- 석질리보계(石迭里甫介)
shi die li fu jie
- 석가솔비(石加乙非)
shi jia yi fei

東阿慕
= 東道

#高麗史113卷-列傳26-崔瑩

<중략> 高麗之日民有黨哈赤不順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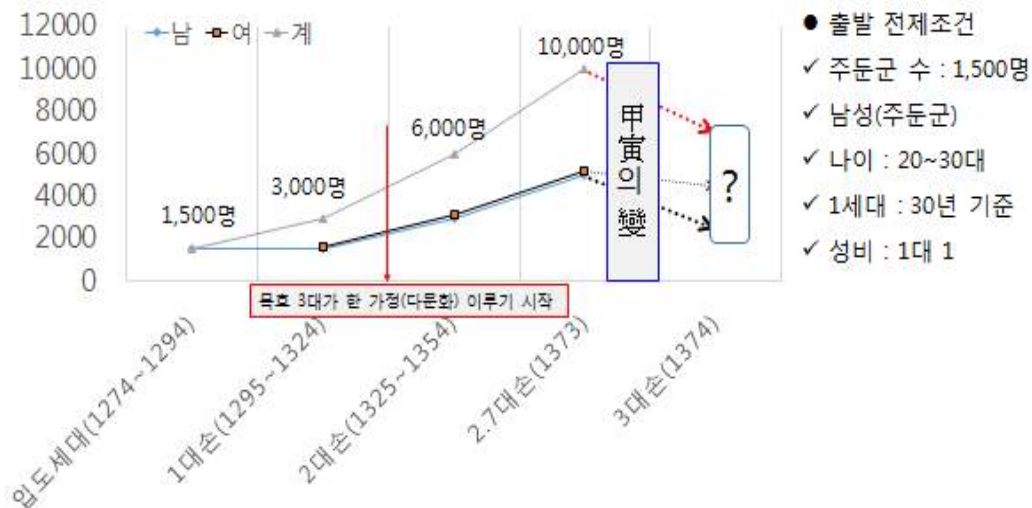
者縱兵悉誅降者勿逆

且得公私契・卷全照牌印價高韓亦皆錄實得者有賞

守佛宇道殿神祠者勿擾

- 명령불복자 → 死
- 항복자 → 生
- 사찰 종사자 → 生()

몽한 주둔군 제주 정착 시기 다문화 구성원 **가상적** 변화 추이



제2기: 쿠빌라이 死 후 원대(~1366년) 제주 유배 및 이주민

입도 연도	입도자	인원(명) (+증, -감)	성별		내 용
			남	여	
1317년 (원 인종 4년)	위왕 아목가 (魏王 阿木哥)	+일행	○	○	유배, 조국장공주(충숙왕 妃)의 부친, [元, 流魏王阿朮哥于耽羅, 尋移大 靑島, 고려사절요/元 延祐四年]
1322년 (원 명종 2년)	徽政院使 라원 (羅源)	?	○		(高)관원, 옹기라트 외가 사 후 정쟁
1340년 (원 혜종 6년)	패란해대왕 (亭蘭奚大王)	+일행	○	○	유배
1366년 (원 혜종 32년)	元世 등	+11가구	○	○	건축기술자 도목수[樵人(자인)] 가 족일행, 원순제 피난궁전 건축 (己酉十八年, 洪武二年, 1369年)

-잣은 황제 교체와 권력 투쟁 - 제주를 유배지로 활용

(제4대 황제(원 인종, 아유르바르다) 사 후(1320년) 13년 동안 7명의 황제가 교체 권력 다름)

-원혜종+기황후 집권 시 제주 관심 부활(避難宮趾?)

제3기 : 알탄우록 성원들의 제주 이주

기사년도	입도자	인원	성별		입도 경로	내용
			남	여		
명태조 15년(1382)4월 [우왕 8년 7월]	양왕 바자르와르미 가족 과 위순왕자 바이바이 가족 일행	318	○	○	운남-京師- 제주	-明將 전우덕 양왕가족 남경 송치 -3개월 후 제주 안치 -鈔450錠,馬10匹 제공
명태조 21년(1388)12월 [창왕 원년 12월]	북방 타타르(達達)친왕 등 황족일행	80호	○	○	북방-京師- 제주	-북방 정벌 시 귀순자 達達親王 等 八十餘戶 -새 집, 헌집 85호 제공
명태조 25년(1392) [고양왕 4년 3월]	양왕자손 아얀테무르(愛 顔帖木兒) 등	4	○	?	운남-京師- 제주	-바이바이태자와 거주 -鈔五十錠 제공

- 1-1. 明史紀事本末 卷之十二 太祖平漢/十五年：三月，降元將達達以故元威順王之子伯伯及與王數屬三百一十八人送京師
1-2. 《明史》太祖本紀三/洪武十五年(1382)：四月五日，降元將達達王和碩剌瓦兒密及威順王的兒子伯伯的家屬到京師
1-3. 《고려사》 제134권 - 열전 제47, 우왕 임술 8년(1382년) 7월조
2-1. 《고려사》 제137권 - 열전 제50, 신무 무진 14년(1388) 12월조
3-1. 《고려사》 제46권 - 세가 제46, 공양왕 임신 4년(1392) 3월조
3-2. 《陳順帝實錄》卷二 東夷洪武二年(1392) 遣使送故元梁王即和碩剌瓦兒密之孫愛顔帖木兒往朝鮮，賜鈔五十錠為道里費，且命朝鮮送其家屬到京師



雲南 梁王家屬安置濟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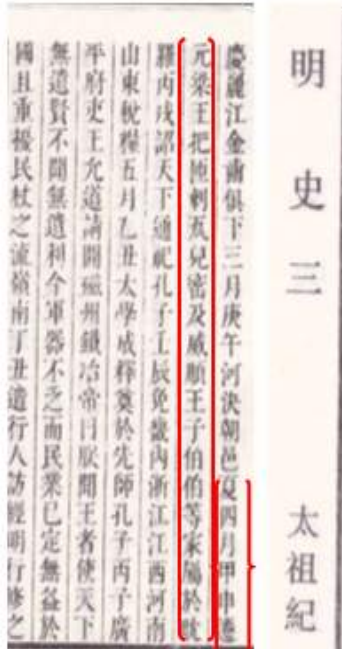
명나라 황제(주원장 朱元璋)가 운남을 평정하고
양왕(梁王) 가족들을 잡아서 우리 나라 제주도
(濟州島)로 압송하여 안치(安置)케 하였다.

《고려사》 제134권 - 열전 제47,
우왕 임술 8년(1382년) 7월조



明朝第1代皇帝

在位：1368년1월23日 - 1398년6월24日



양왕 바자르와르미 가속 및 위순왕자 바이바이 가속 등 탐라로 이주 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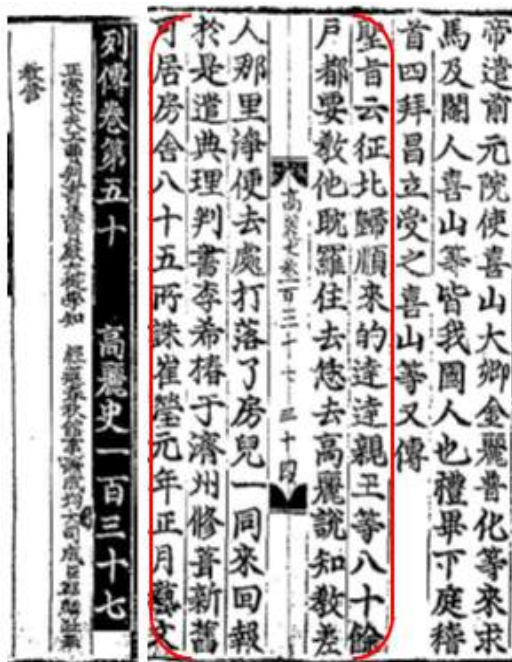
本紀卷三 太祖三

夏四月甲申, 迁元梁王把匝刺瓦儿密及威顺王子伯伯等家属于耽罗。

明史 권 3, 홍무 15년 여름 4월 조

洪武十五年(1382년) 1월 6일, 明军在云南昆明附近大败元朝军队, 元梁王自杀, 1382년 4월 7일, 蓝玉、沐英攻克大理, 段氏投降, 明朝平定云南。

关于梁王的后裔, 朱元璋将梁王把匝刺瓦尔密的残留家属共计318人被傅有德派人送至南京, 朱元璋下诏赐钞450锭, 这点钱给得好象不多, 伯伯则赐给10匹马, 一件上等衣服。没过多久, 就把他们跨海迁往耽罗国(今韩国济州岛)安置



북방 정벌 시 歸順來的 達達親王等八十餘戶

황제의 말을 전달하기를

"북방을 정벌하였을 때 귀순하여 온 達達親王 등 80여 戶에 대하여 모두 탐라로 가서 거주할 것을 명령하려 한다. 너희가 고려로 가서 이 사유를 설명하고 탐라로 사람을 보내 정결한 장소에 그들이 거주할 집을 꾸리고 모두 돌아와서 회보하라!"고 하였다. 이에 전리 판서 이희준(李希椿)을 제주로 보내 새 집, 헌 집들을 수리하여 거주할 만한 집 85개 소를 준비하였다.

《고려사》 제137권 - 열전 제50
신우 무진 14년(1388) 12월조



梁王子孫愛顏帖木兒等四人于耽羅

명나라 황제가 전 원나라 양왕(梁王)의 자손

애안첩목아(愛顏帖木兒, 아얀테무르)

등 4명을 제주에 안치하여

박박 태자(拍拍太子) 등과 함께 모여서 살게

하였다.

《고려사》 제46권 - 세가 제46, 공양왕 임신 4년(1392) 三月조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8일 경자 2번째 기)

1395년(明 洪武 28年)

백백 태자와 양왕의 손자에게 쌀과 콩 등을 내려 주다

○賜伯伯太子米豆四百斛、紵麻布三十匹、梁王孫子米豆百斛、紵麻布十匹。

백백 태자(伯伯太子)에게 쌀과 콩 4백 곡(斛)과 저포(紵布)·마포(麻布) 30필을 내려 주고, 양왕(梁王)의 손자에게 쌀과 콩 1백 곡과 저포·마포 10필을 내려 주었다.

※ 백백 태자(伯伯太子) : 고려 말에 제주(濟州)로 망명한 원나라 왕족. 원나라의 위순왕의 아들로, 1382년(무왕 8) 7월 달라로 망명하였다. 이후 양왕의 자손들이 명에 의해 제주로 유배되자 그들과 같이 거주하였다.



1404년(明 永樂 2年)

백백 태자의 졸기

○ **백백태자**卒于**濟州**.

백백 태자(伯伯太子)가
제주(濟州)에서 **졸(卒)**하였다.
(제주 생활 약 20년 마감)



1444년 (明 正統 9年)

‘백백태자의 처에게 의복과 양식을 주어 구휼하고
사위의 군역을 면제하여 봉양을 맡도록 하다

○ 癸丑/傳旨兵曹:

백백태자妻年老貧窮, 生理可恤。 其令**濟州**, 每年給衣糧及
惠養之物, 特加存恤。 且外甥**林鬱**, 勿差軍役, 專委奉養。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백백 태자(伯伯太子)의 처(妻)가 나이 늙고
빈궁하여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니,
-제주(濟州)로 하여금 해마다 의복과 양식이며
혜양(惠養)할 물건을 주어 특별히 존휼(存恤)을
더하라.
-또 외생(外甥) 임울(林鬱)에게 군역(軍役)을
시키지 말고서 오로지 봉양을 맡도록 하라.”
하였다.

※백백태자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 40년을 더 살았음

1435년 이주민(?)의 시련... 말고기를 먹은 자 650명을 평안도로 강제이주 시키다

도승지 안송선이 영의정 황희의 말을 아뢰기를,
“이제 제주에서 평안도로 옮길 우마(牛馬)를 도
살(盜殺)한 자가 6백 50명에 이르고

鄭承旨安崇善以領議政黃喜言曰：“今自濟州移置平安道盜
殺牛馬者，幾至六百五十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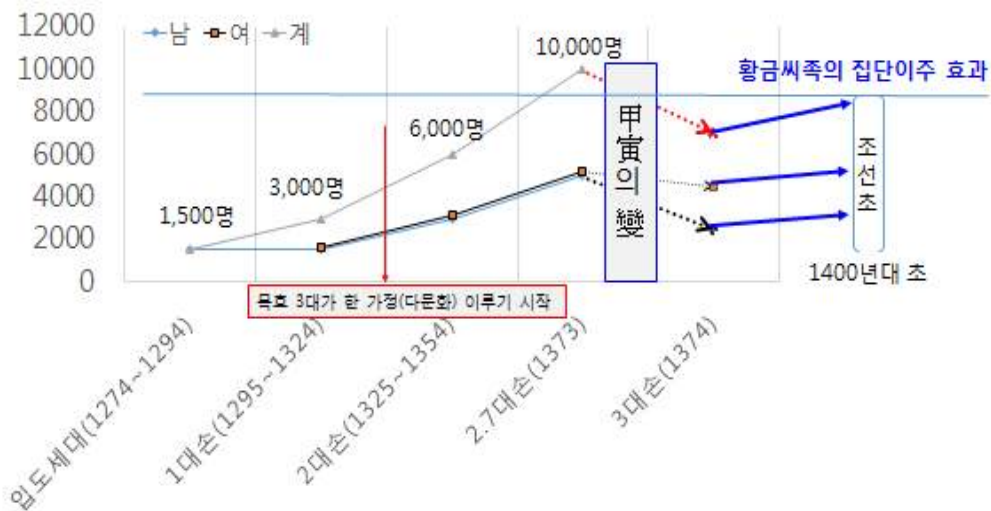
세종 67권, 17년(1435년 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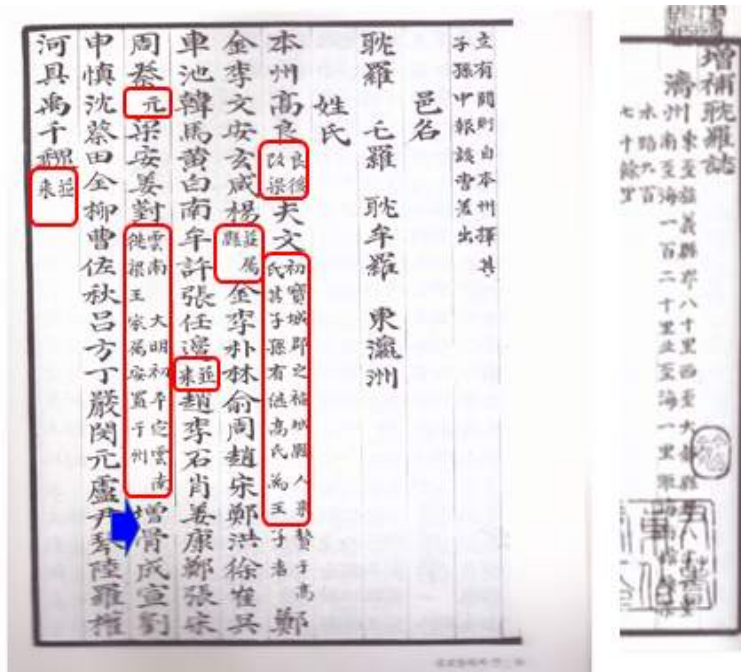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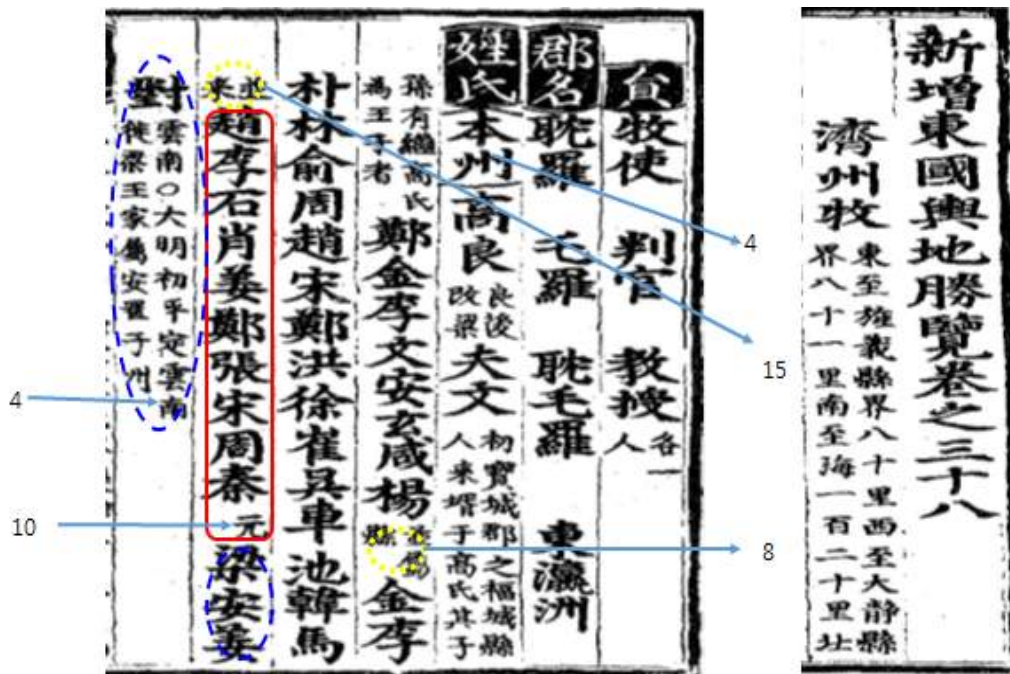
-전략- 내가 듣기에는 말도독이 거의 천 명에 달한다 하
나,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주의 사람들이 그 토풍(土風)
에 젖어서 자기의 우마를 잡아 제사하고 그 고기를 먹은
자까지도 모두 생졸에 걸렸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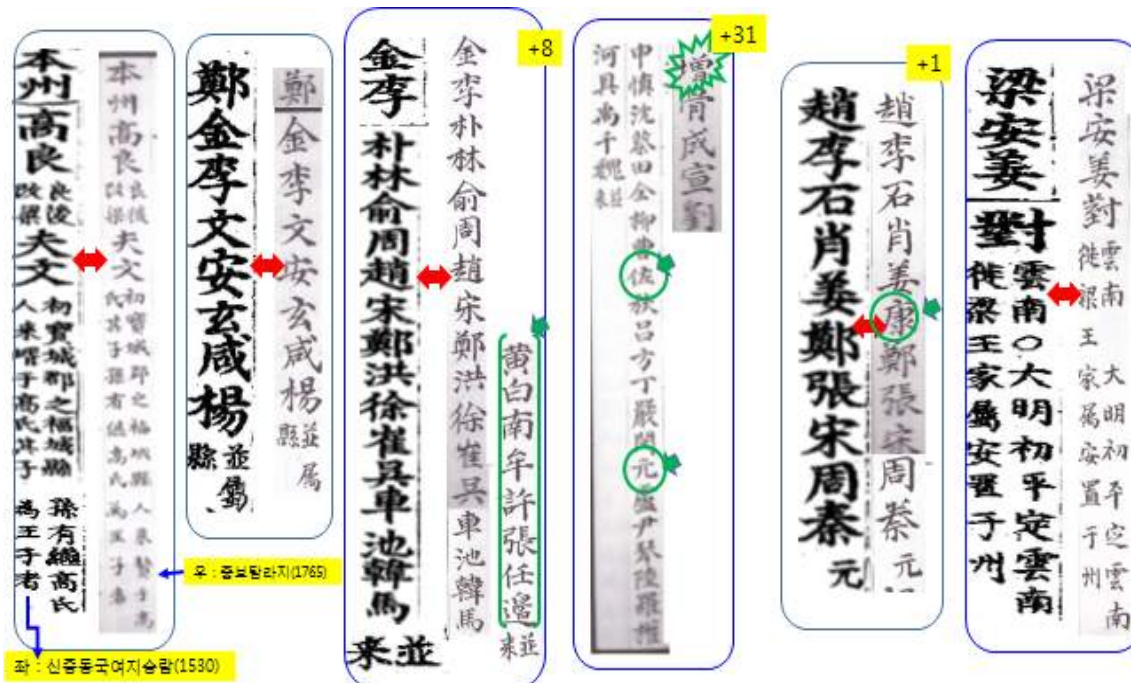
“물레기 숨는 된 가지 말라”
“말고기를 먹으면 과월 난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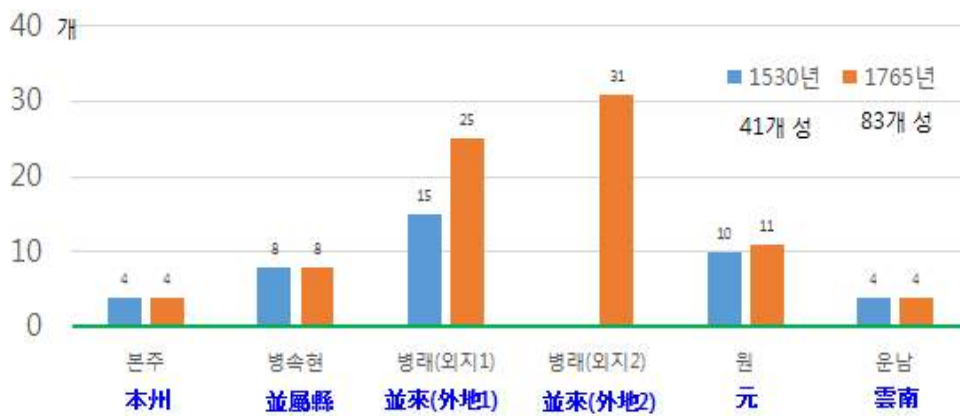
명초 원대인 제주 안치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변화 추이(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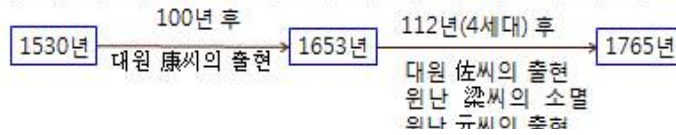
유래 별 성씨 비교(신증동국여지승람 VS. 증보탈라지)



탐라-몽골은 분리할 수 없는 血缘关系

조선시대 연별 大元 및 雲南 도래 제주 성씨 현황

연대	원(元, 大元)												운남(雲南)					출처
	趙	李	石	肖	姜	鄭	張	宋	周	秦	康	佐	梁	安	姜	對	元	
1530	○	○	○	○	○	○	○	○	○	○	-	-	○	○	○	○	-	신증동국 여지승람
1653	○	○	○	○	○	○	○	○	○	○	○	-	○	○	○	○	-	탐라지 (이원진)
1704	○	○	○	○	○	○	○	○	○	○	-	-	○	○	○	○	-	남환박물 (이형상)
1765	○	○	○	○	○	○	○	○	○	○	○		○	○	○	○		증보탐라지 (윤시동?)
1780	○	○	○	○	○	○	○	○	○	○	○	○	-	○	○	○	○	제주읍지 (규장각도서)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七

驪州牧 李閔安畢尹金韓陰川寧堅玄

崔命房張登神命

15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三

海州牧 崔鄭吳閔林文景任郁宋

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三

康津縣 康金趙黃任表朴玄許耽津崔曹

俞安鄭河 康朴 平德安朴天口徐

天谷曹七陽白永可申金永雲曹吳崔

26

井邑縣 井李音尹井香谷井

6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

晉州牧 鄭河姜柳蘇任康 金朴 班

城荆 周王玄成 金 永善楊韓林

任福山文 岳陽 陶吳任孫朴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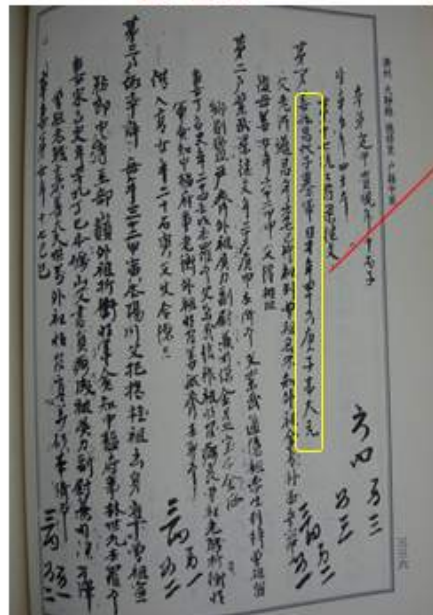
花開金薩川朴

29

제주 41

국내 최다 성씨 雜居 지역

1825년, 본을 '大元 姜'라고 등재하다



대정현 덕수리 호적중초

제17통 1호 거주(1825년)

姜道昌 代子 募軍 日才

강도창의 자, 직역 모군, 성명 강일재 본 大元



斬其族判事龍居實遣判事金龍如定遼衛
通好四月以郭璇爲楊廣全羅道體察使察
將帥守令備禦勤怠官軍久留西北面民多
飢乏以李淑林爲完護使費布千五百匹賑
之禍曲宴禁中宰相謂奏樂禍以國恤不許
營敬孝大王影殿于王輪寺西巔翁設文殊
會于楊州檜巖寺中外士女無貴賤賞布帛
果餌施與恐不及寺門嗔咽憲府遣吏禁所
婦女都堂又令閉關尚不能禁放于屢尚道
密城郡行至驪興神勒寺死五月遣知印尹
思禮賁布千五百匹分與西北面各站以六
曹印小改鑄之濟州萬戶金仲光捕斬逆賊
合赤姜伯顏等十三人分配妻子于光羅二
州庚午地大震鵲巖吼禍出北園習騎馬又
觀弄杖戲北元人吳抄兒志來禍待之厚取
及第鄭樞等六月代言李元紘封零祭香忘
其祝板久而請押禍怒曰祀事不可不慎爾
何慢耶以大旱禁酒禍謂宰相曰宮中亦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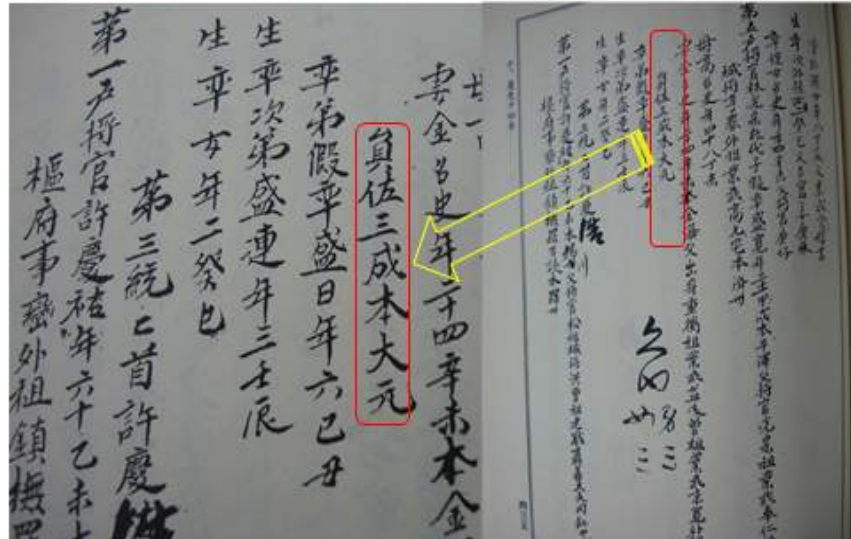
대원 강씨 하치 강백안 (哈赤 姜伯顏)

'칸바이안' "富"
몽골인

1376년 : 제주 만호가 역적
합적 등을 처형하다
제주만호(濟州萬戶) 김중광
(金仲光)이 역적 합적(哈赤)
강백안(姜伯顏) 등 13인을
잡아 죽였고, 그 처자식을
광주(光州)·나주(羅州)에 나
누어 유배시켰다.
<고려사> 133권 열전 46-신우1-02-05-1376

1834년, 본을 '大元 佐'씨라고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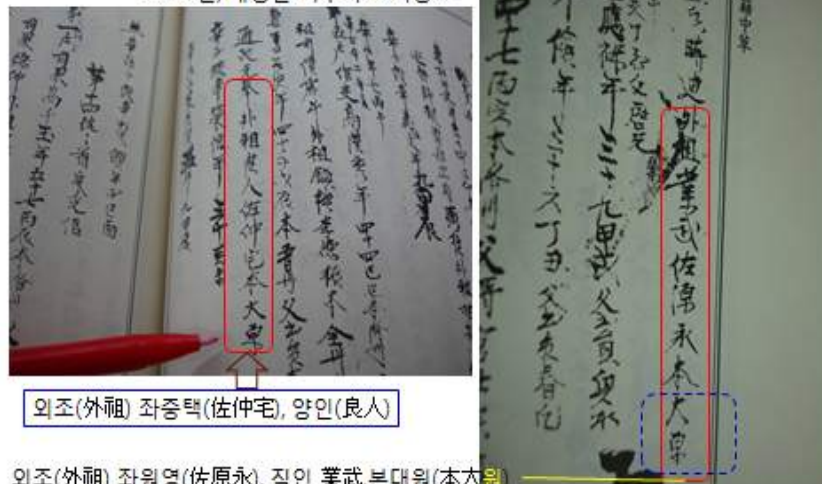
대정현 덕수리 호적증조제2통 5호(1834년)



1834년 18년이 지난 후 1852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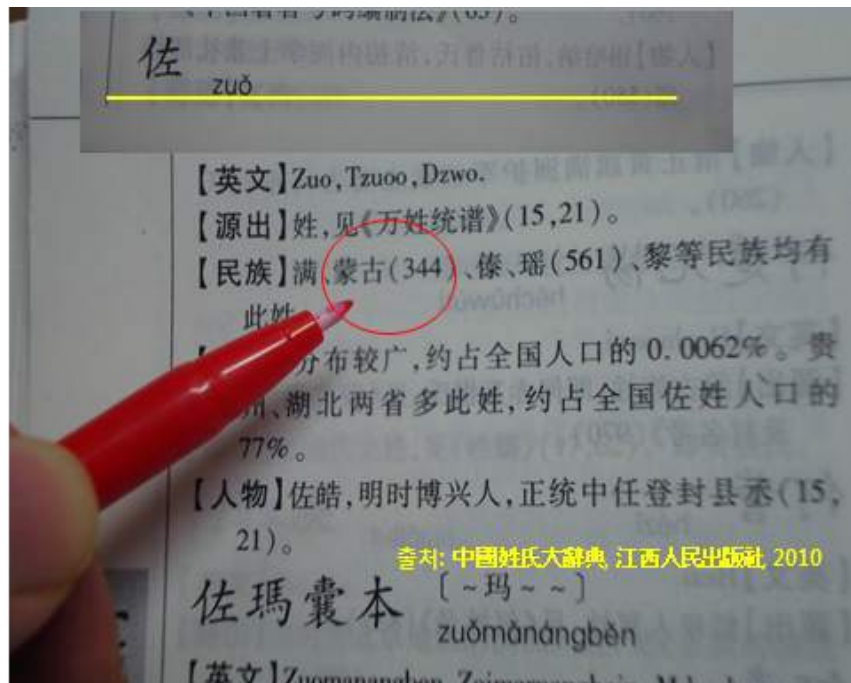
왜, 佐(좌)씨의 본을 '大原'/'(元)' 이라고 했을까?

1852년, 대정현 덕수리 호적증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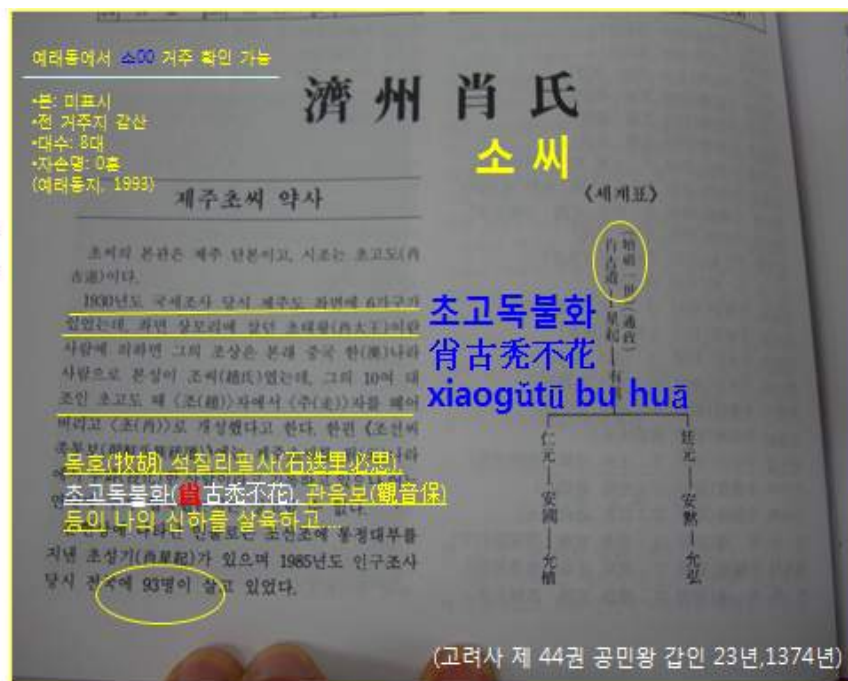


외조(外祖) 좌중택(佐仲宅), 양인(良人)

외조(外祖) 좌원영(佐原永), 직인 業武, 본대원(本大元)



肖 [xiào]
古道 [gǔdào]





尚得誠等八人(1462년)今年正月二十四日,
羅州發船,二月初四日,漂到琉球國彌阿槐島

➡ 소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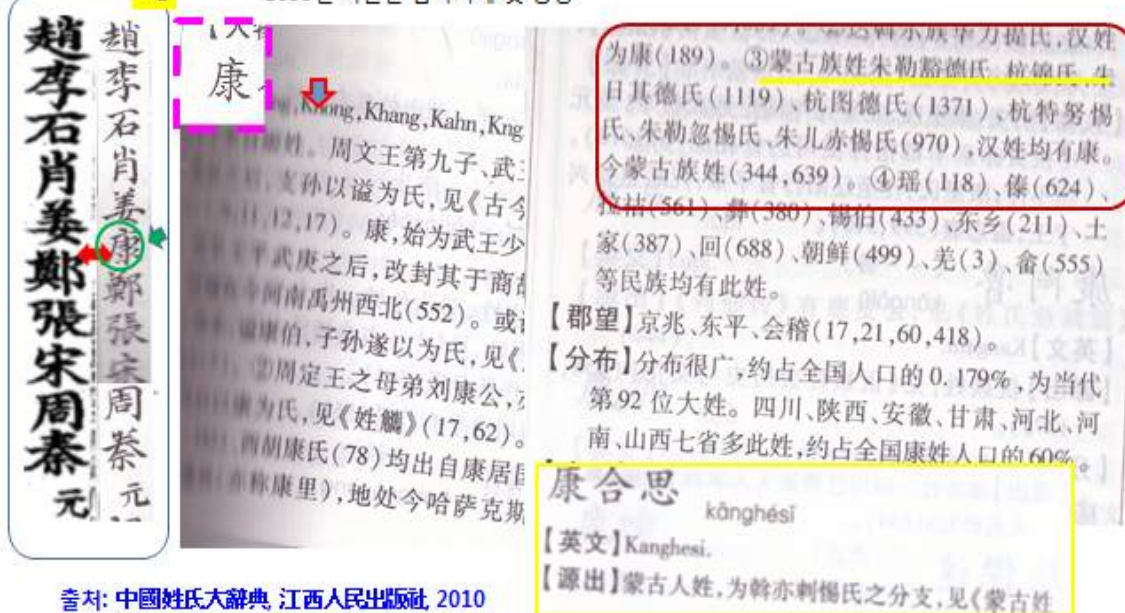
초득성(肖得誠) 등 8인이 **금년(今年)**¹⁰⁷ 정월 24일에 나주(羅州)에서 배를 출발하여 2월 초4일에 표류하다가 유구국(琉球國) 미야기도(彌阿岐島)에 이르렀다. 섬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실어 와서 먹이고 인도하여 섬에 머물게 하고서 섬사람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하여 공급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2월 16일 신사 2번째기사 명 천순(天順) 6년

1. 강(江)가에 성(城)을 쌓고, 그 가운데 주고방(酒庫房)을 설치하여 방 안에 큰甕(甕)을 배열(排列)하고 술들을 가득 채워 놓고서, 1년치, 2년치, 3년치의 주고(酒庫)에 그 정액(定額)을 나누어 써 붙였다.

+1

1653년 이원진 탐라지에 첫 등장



출처: 中國姓氏大辭典, 江西人民出版社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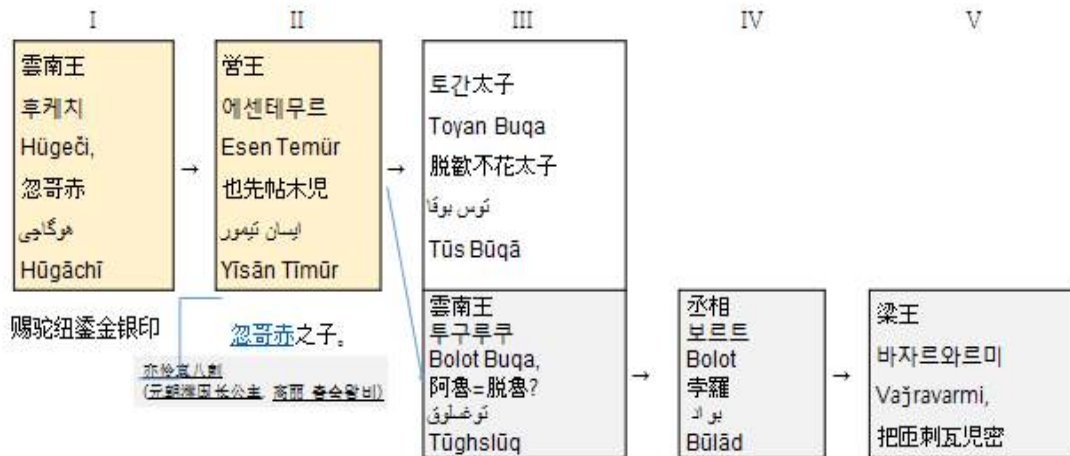
云南王

- 为金印驼纽王。
- **忽哥赤**: 忽必烈第五子, 至元四年(1267年)封, 十七年赐印。
- **也先帖木儿**: 忽哥赤子, 至元十七年(1280年)袭封, 曾为营王。
- **老的**: 火鲁赤后裔, 至大二年(1309年)封。
- **王禅**: 延祐七年(1320年)封, 泰定元年(1324年)进封梁王。
- **阿鲁**: 也先帖木儿第三子。
- **孛罗**: 阿鲁之子。
- **帖木儿不花**: 王禅之子, 泰定元年(1324年)袭封。

梁王

- 为金印兽纽王。
- **甘麻剌**, 元裕宗长子, 至元二十七年十月壬申(1290年11月5日)封, 出镇云南, 二十九年(1292年)改封晋王。
- **松山**, 甘麻剌次子, 至元三十年七月己未(1293年8月8日)封, 以皇曾孙出镇云南。
- **王禅**, 松山之子, 泰定元年十一月丁丑(1324年11月21日)由云南王进封, 天历元年(1328年)帅师与太平王燕帖木儿战于柳林, 兵败见杀。
- **孛罗**, 忽哥赤之孙阿鲁之子, 至正年间由云南王进封。
- **把匝剌瓦尔密**, 孛罗之子, 洪武十四年十二月壬申(1382年1月6日)败走普宁自杀。

忽哥赤(元世祖의第五子)의 계보



梁王 把匝刺瓦尔密(?-1382年1月6日)

1. ^ 《明史》(卷一百二十四): “梁王把匝刺瓦尔密, 元世祖第五子云南王忽哥赤之裔也。封梁王, 仍镇云南。顺帝之世, 天下多故, 云南僻远, 王抚治有威惠。至正二十三年(1363年), 明玉珍僭号于蜀, 遣兵三道来攻, 王走营金马山。明年以大理兵迎战, 玉珍兵败退。久之, 顺帝北去, 大都守, 中国无元尺寸地, 而王守云南自若; 岁遣使自塞外达元帝行在, 执臣节如故。”

2. ^ 《明史》(卷一百二十四): “太祖知王终不可以谕降, 乃命傅友德为征南将军, 蓝玉、沐英为副, 帅师征之。洪武十四年(1381年)十二月下普定。王遣司徒平章达里麻率兵驻曲靖。沐英引军疾趋, 乘雾抵白石江。雾解, 达里麻望见大惊。友德等率兵进击, 达里麻兵溃被擒。先是, 王以女妻大理酋段有功, 尝倚其兵力, 后以疑杀之, 遂失大理援。至是达里麻败, 失精甲十余万。王知事不可为, 走普宁州之忽纳砦, 焚其龙衣, 驱妻子赴滇池死。遂与左丞达的、右丞驴儿夜入草舍, 俱自经。太祖迁其家属于耽罗。”

3. ^ 《明史》(卷一百二十四): “太祖知王终不可以谕降, 乃命傅友德为征南将军, 蓝玉、沐英为副, 帅师征之。洪武十四年十二月下普定。王遣司徒平章达里麻率兵驻曲靖。沐英引军疾趋, 乘雾抵白石江。雾解, 达里麻望见大惊。友德等率兵进击, 达里麻兵溃被擒。先是, 王以女妻大理酋段有功, 尝倚其兵力, 后以疑杀之, 遂失大理援。至是达里麻败, 失精甲十余万。王知事不可为, 走普宁州之忽纳砦, 焚其龙衣, 驱妻子赴滇池死。遂与左丞达的、右丞驴儿夜入草舍, 俱自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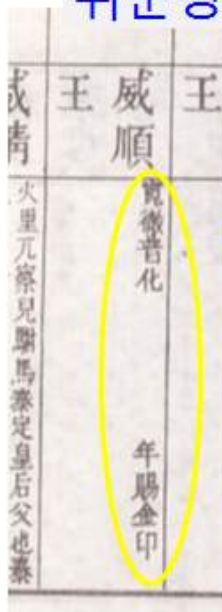
대원(몽골)제국의 14개 국립목장



운남 목장



위순왕, 바이바이(伯伯) 태자의 父



- 封地不详，为金印螭纽王。
- 宽彻不花，脱欢之子，泰定三年（1326年）封，至正十六年（1356年）薨。
- **위순왕 宽彻普化**（？-1365年），又作宽彻不花，元朝宗室，忽必烈之孙，**镇南王脱欢之子。**
- 1326年，封威顺王，镇武昌。1328年，怀王图帖睦尔召见他，还京师大都。奉怀王为元文宗，还镇武昌。1345年，他放纵部下宿卫侵扰百姓，被太师伯颜召回贬官，脱脱任丞相后，放回了。1351年，率军在金刚台大败徐寿辉，战败，儿子别帖木儿被俘。1352年，丢失武昌，被夺王印。湖广行省参知政事阿鲁浑收复武昌、汉阳，他于1354年还镇武昌。1356年，他和袁让王帖木儿不花领兵镇守怀庆路，后来率领水陆军和徐寿辉部将倪文俊激战，在汉川县兵败，投奔陕西。1365年，回大都，被李思齐阻止，受命屯田成州。

※ **脱欢 (镇南王)**：（？-1301年）元代镇南王，元世祖忽必烈的第九子。



云南省 玉溪市 通海县 몽골족 사례(예비조사)



몽골인 거주지역 通海縣

- 通海縣 : Tonghai Xian: 당나라 때 通海鎮이 설립된 후에, 원나라 시기 通海縣으로 이름을 바꿈
- 통하이현의 杞麓湖 서쪽의 杞麓山(지금의 鳳凰山) 자락에 위치
- 통하이현에는 2001년 기준으로 대략 5,527여명의 몽골인이 살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6.83%가 이곳에 거주
- 윈난성 내 74%의 몽골인들이 여기에 거주
- 중국의 남부 雲南에 수 천여명의 몽골족이 거주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많지 않음

몽골인들의 원난 興蒙蒙古鄉 정착기

- 서남 변경에 위치한 雲南은 南詔에 이어 大理國으로 약 500년 가까이 존속되면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던 지역
- 1253년 몽케가 쿠빌라이에게 정복하게 한 후부터 1381년 명나라 군대가 滇지역으로 들어오기까지 蒙元 제국이 128년간 雲南지역을 통치
- 雲南지역은 몽원제국이 南宋을 멸망시키기 전에 정복한 지역이고, 元나라 順帝가 북행한 이후에도 양왕 바자라와르미의 통치하에 大元의 正朔을 받들고 北元의 년호를 사용 하였으므로 몽원의 통치기간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함
- 몽골이 대리를 정복한 후 원난행성이 설치되면서 1256년 원 왕조의 군대가 처음으로 통하이현에 들어오고, 지원 20년(1283년), 滇南 宣慰使司都元帥로 파견된 阿喇帖木耳이 이곳에 정착함으로 본격적으로 많은 몽골인들이 이곳에 정착

몽골인들의 원난 興蒙蒙古鄉 정착기

[몽골족(후방지원부대)이 通海縣에 머물게 된 원인]

- 당시 원나라 군대는 일정한 거주 지역이 없는 상태로 떠돌는 상태
- 통하이현에 주둔하면서 당시 많은 인구의 獮族과 접촉을 하게 됨
- 당시 몽골 군대는 현지 이족 여성과 혼인 관계를 맺기 시작
 - 이족여성들은 자신들의 언어, 가무 그리고 복식을 몽골인에게 가르쳐 줌
 - 당시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이들 몽골인들은 이족의 도움으로 토착화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멸족의 위기를 모면

몽골인들의 원난 興蒙蒙古鄉 정착기

- 통하이현의 몽골족에게 한족의 觀音이나 關公은 이들 마음속에 소중한 신으로 존재하는 등 이족에게 받은 영향뿐만 아니라 한족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음
-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 '三聖宮'
 - 통하이현의 白閣村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북쪽으로는 鳳凰山 서쪽 자락 아래에 위치
 - 청나라 同治年間에 만들어진 붉은 기와에 붉은 벽으로 조성된 매우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
 - '三聖宮'에서 모시고 있는 조상은 칭기즈칸, 몽케칸, 쿠빌라이 칸
 - 조각상과 선조들의 토템이 새겨져 있는 창호 문양 등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유물을 보존
 - '元帥府' 건물 안에는 수십여 점의 비각이 놓여져 있으며, 이 비각에는 초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遷徙史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곳에 부임 받아 온 元帥 阿剌帖木耳(아라테무르)와 元帥 施禮(전단)의 사적에 관한 기록도 새겨져 있음

興蒙蒙古鄉의 과거-현재 생활상

- 원나라 말을 타고 종군하면서 전 세계를 누리던 몽골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들은 우선 선박기술과 어업기술을 배워야 했음
- 杞麓湖 주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유목민은 어민이 되고 농민이 되어야만 한 것
- 일부 중국인들은 이곳의 부녀자의 장식과 몇 마디 언어 속에서만 초원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興蒙縣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몽골족임을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음

興蒙蒙古郷의 현재 생활상

- 수백년 동안 초원을 떠나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원난의 몽골인들은 전통적인 축제를 부활
- '나담축제(那達慕盛會)'를 즐기면서 서로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
- 원래 나담은 물자를 교환하며, 씨족 사회를 연합시키고 전쟁에 대비해 체력을 단련하는 다목적 집단활동이었으나 라마교가 한창이었을 때에는 종교적 성격을 띠었으며, 후에 오락활동으로 발전되어 가축이 살찌고 마유주 등 유제품이 풍부한 여름에 행해짐
- '나담 축제'는 중국 변방 중 변방인 興蒙蒙古郷에서도 농사의 풍년을 기리는 성대한 행사로 진행

興蒙蒙古郷의 현재 생활상

- 음력 6월20일 '憶祖節'
- 남녀노소가 모두 전통복장을 하고 '三聖宮'에서 제사를 지냄
- 덕망있는 향촌의 원로가 의식을 주재하면서, 몽골족이 통해현으로 오게 된 역사를 되새기며,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
- '跳樂': 彝族 가무를 통해 변형되었다고는 하나, 고유의 몽골인들의 는 지금도 가호호 모두가 사랑받고, 행사 때마다 모두가 함께 추는 춤사위
- 언어: 명나라 이후로 대량의 한족들이 이곳으로 이주. 따라서 한족의 언어에다가, 현지 이족들의 언어가 혼합되어 독특한 몽골어인 '喀卓語'가 생겨남
- 몽골인과 현지 이족언어 등이 결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언어
- '喀卓語'는 이곳 興蒙蒙古郷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공용언어로 현재까지도 사용

결론 및 시사점(1)

1. 제주성주 양호와 원세조 쿠빌라이칸과의 첫 만남 후 제주의 운명
 - (元史) 백제인 양호, 고려와 탐라 분리 기록 → 원조정은 탐라를 다른 독립적 존재로 인식
 - 제주성주 양씨 세력의 약화, 제주 고씨 세력의 강화 → 삼별초의 영향
 - 원말명초 고려의 탐라에 대한 지배권 회복 → 제주 성주(高氏)의 성주직 포기, 성주일가의 중앙 진출
2. 탐라의 몽골화(군사, 목축업 등 행정 및 산업 부분), 몽골인의 제주화(생활문화 등) 진행
 - 원 세조 사망(1294) 이전 20년
 - 蒙漢주둔군, 죄수, 목호, 행정관리 등 1,500명(남성) 내외 이주 및 정착
 - 입도 2세 세대의 증가(蒙漢男-제주女 다문화가정 역사 시작)
 - 원 세조 후손 이후 약 80년 (1294~1367)
 - 고려(원 駙馬國 혼혈왕, 金印 보유), 제주에 대한 통치권 점진적 강화 및 회복
 - 원 황금씨족(원 세조 후손) 제주 유배 시작, 피난궁 '정부'(南元?) 건축기술자 등 가족일행 제주 입도
 - 혼혈3세의 급증(기마군단 3,000명), 제주-몽골문화의 융합 성숙기
3. 甲寅의 變('목호의 난', 1374)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대단위 소실
 - 서아이막(西道) 지경 몽골 다문화가정(村落 단위)의 몰락
 - 삼별초 사건 도민 희생(인구감소)→주둔군 정착(인구 급 증가, 100년)→ 다문화가정 몰락(인구감소)
 - 다문화가정의 생존자(투항자, 은거자 등) 몽골성씨의 중국 漢族姓氏化 진행
 - 제주도 주도권력의 변화 : 몽골성씨 다문화가정 → 제주 토호 성씨(고, 양, 부, 문)로 회복

결론 및 시사점(2)

4. 몽골족의 새로운 수혈 - 明初 징기스칸 알탄우룩 성원(皇族)들의 제주 안치(1382~1392) 10년 작업
 - 朱元璋 운남 정벌 후(1382) 318명(남녀 혼성, 가족단위)
 - 이동경로 : 운남→남경→(고려?) →제주
 - 양왕 '바자르와르미' 가족(후케치 계열), 위순왕(진남왕 계열) 후손 바이바이(伯伯)태자 등
 - 북방 정벌 후(1388) 80호(남녀 혼성, 가족단위)
 - 이동경로 : 북방→남경→(고려?) →제주
 - 타타르친왕 등에게 거쳐 마련 (※ 가정: 80호 x 4인 = 320명, 신축/현집 리모델링 후 85호 제공)
 - 잔여 운남 황족의 제주 안치(1392)
 - 양왕 자손 아얀테무르 등 4인, 바이바이(伯伯)태자와 거주

☞ 몽골족 황족(징기스칸)이 집단 거주지로서 제주의 사례(세계사 전례 없음) 의미 부여
5. (증산간 지역) 우마 도살자 650명 집단이주(세종, 1435년)
 - 잔여 목호집단(가족단위)의 정리작업 → 잦은 민란방지, 우마의 순조로운 공납
 - 목호집단 가능성: 우마도살, 우마제사(유목민 풍속), 우마관리
 - 우마 도살자 블랙리스트 약 천여명 작성(제주 관리, 토호세력의 협력?) →목호 출신 다문화가정 감소

(예비조사)결론 및 시사점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 운남의 몽원제국 통치시기 1253~1383년(130년): 주둔군의 경우

- 가) 몽골족의 문화 전변현상 즉, 유목문화화→반어반농문화→농경문화
- 나) 변화 요인
 - 성(gender): 이족 여성과 결혼에 따른 여성(繡族, '羅羅') 중심의 문화 영향
 - 생업환경: 지루호의 수위 변경과 농경지 발생(유목생활 불가)
 - 정치적 환경: 지배자 → 피지배자(은둔생활)

○ 제주의 몽원제국 통치시기 1274~1374년(100년): 주둔군의 경우

- 가) 몽골족의 문화 전변현상 즉, 유목문화→반목(방목)반농문화 →농경문화
- 나) 변화요인은 향후 운남의 문화 전변현상 사례와 비교할 경우 설명 가능

○ 명초 운남의 제주 이주인(80호 외) 1383~ : 운남 양왕 가솔 및 북방 쿠빌라이 후손의 경우

- 한족문화에 익숙한 집단 이주자의 생활

비교연구를 통해 운남과 제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탐색하면(세부 조사설계 필요), 제주 북방유목문화의 특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임(제주문화의 다양성, 비교조사 집단의 중요성 강조)

[참 고 문 헌]

- 김일우(2008). 高麗時代 耽羅史研究, 신서원
- 岡田英弘(2010). 元惠宗と濟州島, モンゴル帝国から大清帝国へ, 165-181
- 大叶昇一(1999). 「元明初の耽羅(濟州島)」『昭和女子大学文化史研究』3研究ノート, 55-67
- 池内宏(いけうち ひろし)(1926). 元の世祖と耽羅島, 東洋學報 16-1
- 高銘元, 云南民族村寨調查(2001). 1 - 27 ; 22. 蒙古族: 通海興蒙鄉/ 方慧, 榮莉 共主編, 雲南大學出版社 (국립중앙도서관)
- Tu, Yu-t'ing(1980). 云南蒙古族簡史, 內蒙古人民出版社. (경북대 중앙도서관)
- 内田吟風(2003). 北方民族史與蒙古史譯文集, 云南人民出版社. (국립중앙도서관)
- 馬世雲(2000). 蒙古族文化史, 云南民族出版社. (단국대 출곡기념도서관)
- Fang, Hui(2001). 蒙古族: 通海興蒙鄉, 云南大學出版社. (충남대 도서관)
- 興蒙蒙古族鄉志(2004).
- Henry G. Schwarz(1984). Some Notes on the Mongols of Yunnan, Central Asiatic Journal. 28(1/2). 100-118
- 裴淑姬(2012). 元末明初の雲南과 故元 後裔의 濟州 移住, 東洋史學研究, 119. 197-226
- Herry Serruys(1980) The Mongols in China during the Hung-Wu Period(1368-1398), Bruxelles: Insitutut Beleg des Hautes Etuedes Chinoise, p 210
- Young-ju Oh(2015). Khubilai Khaan and Tamla's Mongolian in View of Pax-Mongolica. Inst. Of History and Archaeology. Ulanbaatar Mongolia. 144-161
- 기타: 인용문헌은 향후 논문 투고과정에서 밝힐 것임

※(ooo도서관)은 국내에 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말함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연구

홍 기 표(전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

1. 머리말
2. 입도조의 개념과 제주 입도조 현황
3.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분석
4. 맺음말

1. 머리말

여말선초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뜻한다. 왕조교체라는 정국의 대변동이 발발한 때이다. 이때 제주에는 육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여 후손을 남기며 제주민으로 변화하여 갔다. 이들을 제주에서는 입도조(入島祖)라 부르며, 오늘날 자기 성씨들이 제주에 자리 잡게 된 연원을 밝히며 존경을 표하고 있다.

가문에서는 가승(家乘) 및 족보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선양 작업에 초점을 맞춰 미화(美化)와 근거가 부족한 추정 사실을 적시하지만, 정작 역사학에서는 그들과 관련된 사실을 사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조명하려는 입장 때문에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고도 이로 인해 어려움을 제법 겪었다. 다시 말해 제주 입도조들에 대해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검수 작업을 시도하였지만, 한천(韓蕡)과 강영(康永)의 경우만 일부 사례 등장할 뿐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선 용례가 등장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여말선초 각 개인문집에서조차 그들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지 않아 과연 객관적 조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결국 가문에 전하는 가승 및 족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입도조의 입도연대 및 입도지역 등 가급적 ‘사실’에 기반을 둔 내용만 인용하며 서술을 전개하였다. 입도조의 학덕, 교화 등 그들이 제주에 끼친 영향 등은 객관적으로 고증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에 특정 본관의 성씨라도 파조(派祖)가 각각 달라서 같은 본관의 성씨에서 각각 다른 입도조를 내세우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 경우 여말선초라는 시기상 전제 때문에 파조가 달라도 최초 입도한 본관의 성씨 인물만 입도조로 소개하였다.

이런 여러 불합리한 전제를 바탕에 깔고도 본고를 진행하게 된 데는 그간 제주 역사학에서 이런 주제의 논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정황이 이해되기는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역사학에서의 소명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에 본고는 입도조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고, 여말선초 제주입도조로 알려진 인물들을 소개하며 그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 작업을 시도하련다. 또한 그들의 입도연대 및 지역 등에 대한 분석과 입도이유를 중심으로 그들에 대해 유형별 분류 작업을 이루려 한다. 이리하여 특정가문의 입도조 1인 탐구가 아닌 제주 역사에서 이들 입도조들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이들이 당시 제주사회와 어떤 의미로 연계될 수 있었는지 등을 밝히려 한다.

2. 입도조의 개념과 제주 입도조 현황

1) 입도조의 개념

오늘날 성씨의 연원을 밝히는 선조에 대해서는 여러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 파조(派祖), 입도조(入島祖) 등이 그것이다. 시조는 한 가계의 맨 처음이 되는 조상, 즉 성씨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을 일컫는다. 중시조는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을 뜻한다. 예컨대 경상남도 김해(金海)를 본관으로 하는 김해김씨는 수로왕(首露王)을 시조로 하며, 그의 제12대손인 김유신(金庾信)을 중시조로 삼고 있다. 파조는 한 가문에서 고관대작이나 유명한 학자로서 이름을 널리 알린 조상을 말한다. 조선후기 동성부락인 집성촌(集姓村)이 형성될 때 지역적 연고를 중요시하여 입향조(入鄕祖)를 파조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파조는 문중의 중심인물이고, 파명(派名)은 파조의 시호·호·관직·후손집거지 등을 상징화하여 붙인다. 예컨대 ‘문정공파’, ‘익재공파’, ‘판서공파’, ‘수산파’ 등이 그것이다.

입도조는 말 그대로 ‘섬에 (처음) 들어온 조상’을 뜻한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 섬에 들어와서 정착한 최초의 조상을 제주에서는 입도조라 불렀다. 다시 말해 제주의 토착 성씨인 고씨, 양씨, 부씨를 제외하면 제주의 성씨는 모두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성씨들이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삼성 이외의 성씨 후손들이 제주에 최초로 정착한 자신들의 선조를 입도조라 칭하였다.

하지만 입도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밀한 개념 규정 없이 사용돼 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하여 종종 입도조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제주에 처음 들어와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살다가 육지로 다시 돌아간 경우, 그 부인과 자식은 제주에 그대로 남아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갈 때 육지로 돌아간 이와 그 자식 중 누구를 입도조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실질적으로 이곳에 정착했고 그 묘소가 이곳에 존재하는 자식을 입도조라 할 것인지, 비록 이곳에 묘소는 없지만 제주에 처음 들어와 가족을 구성하여 후손을 남긴 인물을 입도조로 볼 것인가의 논란이다.

예컨대 수안(遂安)이씨대종회(<http://www.suanlee.org/>)에서는 이와 같은 입도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현종 초인 1660년대 이지달(李枝達)은 서인과 남인의 예송논쟁에 휘말려 대정현 감산촌으로 유배되었다. 이지달은 아들 이시호(李時皓)와 함께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이시호가 제주에서 오씨 가문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이보운(李寶雲)을 낳았다. 유배가 풀리자 이지달과 아들 이시호는 황해도 수안군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손자인 이보운은 그대로 제주도에 정착, 가문을 형성하여 오늘날 안덕면을 중심으로 수안 이씨 세거지를 이루었다.¹⁾ 이 때문에 수안이씨 입도조를 그간 이보운으로 삼았지만, 제주중친회에서는 묘소는 없지만 제주에 처음 들어와, 결혼하고 후손을 남긴 이시호를 입도조로 보아야 한다고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후손들은 오씨 부인과 아들 이보운이 묻힌 곳을 입도 선영이라 하고, 이곳에 묘소는 없지만 ‘입도시조이공시호추모비(入島始祖李公時皓追慕碑)’를 세워 이시호를 입도조로 추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현시점에서 입도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려 한다. 입도조란 본관이 제주인 고, 양, 부 삼성(三姓) 이외의 타 성씨가 제주 섬 이외의 지역 및 국가에서 제주로 처음 들어와 정착하여 살며 후손(혈족)을 남기고 그들이 대대로 제주에 거주하며 가문을 이루었을 때의 시조이다.

2) 제주 입도조 현황

여말선초에 제주에 들어와 입도조로 조명되는 인물은 대략 16명으로 파악된다.²⁾

1)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1981.

2) 여말선초 입도조를 16명으로 한정 해설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연구에 의해 증감이 있으리라 전제한다. 또한 참고자료는 담수계의 『증보탐라지』(1953),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국서간행회, 1981), 홍순만의 「제주의 입도조와 분묘」(나주김씨제주중친회, 2004),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김찬흡의 「각 성씨 관향별 낙향 유래와 분파 이름」(『제주특별자치도』 113호, 2009)등이다.

본고는 여말선초를 대략 고려말 공민왕 즉위 후인 1350년부터 조선초 세종대인 1450년까지 100년간으로 삼았다. 고려 멸망, 조선 건국이라는 왕조 교체 과정에서, 또는 조선 건국 직후 왕자의 난(1398, 1400) 및 태종 대 집권 강화 차원에서 많은 인물들이 유배 또는 정치적 망명의 이유로 제주에 들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세조 때의 계유정난과 연산군에서 명종까지 이어진 사화 때문에 제주에 유배된 인물 중 본인 및 그 가족들이 제주에 정착하며 입도조로 자리매김 된 경우도 많다. 예컨대 오석현(군위 오씨/ 1456), 이유춘(벽진 이씨/ 1480), 이만수(전주 이씨/ 1498), 이성우(성주 이씨/ 연산군 대), 조방보(한양 조씨/ 1519), 이세번(고부 이씨/ 1520), 윤빈(파평 윤씨/ 1538) 등이 그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차후 기회를 보아 별도로 소개하기로 한다.

이제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16명을 소개하고, 그들 개개인 별로 입도 연대 및 지역과 그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후 그들 전반에 대해 유형별 분석을 이루려 한다.

- (1) 김윤조(金胤祖), 광산(光山) 김씨
- (2) 진계백(秦季伯), 풍기(豐基) 진씨
- (3) 좌형소(左亨蘇), 청주(靑州) 좌씨(본관 변천 靑州→淸州→濟州)
- (4) 김만희(金萬希), 김해(金海) 김씨
- (5) 한천(韓蕝), 청주(淸州) 한씨
- (6) 허손(許遜), 양천(陽川) 허씨
- (7) 이미(李美), 경주(慶州) 이씨(익재공파)
- (8) 강영(康永), 신천(信川) 강씨
- (9) 안득경(安得敬), 순흥(順興) 안씨
- (10) 홍윤강(洪允康), 남양(南陽) 홍씨
- (11) 김검룡(金儉龍), 경주(慶州) 김씨
- (12) 김인충(金仁忠), 나주(羅州) 김씨
- (13) 변세청(邊世淸), 원주(原州) 변씨(훈련공파)
- (14) 강윤희(姜允熙), 진주(晉州) 강씨(은열공파)
- (15) 김안보(金安寶), 연안(延安) 김씨
- (16) 현사경(玄思敬), 연주(延州) 현씨

(1) 김윤조(金胤祖), 광산(光山) 김씨

- ① 가계 : 시조 김흥광(金興光)의 17세손. 증조부 김수(金須, 영암부사, 1270년 삼별초 입도를 막기 위해 제주에 들어왔다 전사한 고려 관군). 부

친 김광재(金光載). 형 김흥조(金興祖).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68년(공민왕 17). 구좌 김녕리→ 한동리.
- ③ 입도경위: 1368년(공민왕 17) 신돈(辛旽)이 집권하여 국정을 어지럽게 하자 그의 형인 군기감 김흥조는 김정(金精)·조사공(趙思恭)·유사의(兪思義)·김제안(金齊顔)·김귀보(金龜寶)·이원림(李元林)·유희종(尹希宗) 등과 더불어 신돈을 제거하고자 하다가 모의가 탄로나 신돈이 보낸 하수인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김흥조는 형의 참화를 보고 곧 개경을 떠나 제주도로 낙향.
- ④ 특이사항: 조선후기 학자 명도암 김진용(金晉鎔)은 그의 9세손.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화산악(花山岳)에 그의 묘소 소재.

(2) 진계백(秦季伯), 풍기(豐基) 진씨

- ① 가계: 시조 진필명(秦弼明)의 18세손. 자(字)는 사원(思遠).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71년(공민왕 20). 애월 애월리.
- ③ 입도경위: 고려 공민왕 때의 권신(權臣) 홍륜(洪倫), 최만생(崔萬生) 등과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미칠 것을 미리 알고 가족을 이끌고 제주목 애월리에 피난 입도하였다. 입도 당시 제주에는 원의 목자 석가을비(石加乙碑) 등의 소란이 극심하였는데 1374년(공민왕 23) 최영장군이 목호난을 평정한 후 최영이 친족인 그를 방문하여 피난생활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귀경을 권하였으나 국정의 혼란과 불의가 만연함을 한탄하면서 그대로 남았다. 최영은 만호 김중광을 시켜 집을 지어 주고 면포 7단과 군량으로 가져왔던 양곡 30석 등을 지원하여 생계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전함.
- ④ 특이사항: 이색(李穡)의 문인. 최영(崔瑩)의 친족. 우참찬(右參贊) 역임.

(3) 좌형소(左亨蘇), 청주(靑州) 좌씨(본관 변천 淸州→濟州)

- ① 가계: 시조(중국 원나라에서 입국).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고려말, 구좌 한동리(좌가장)
- ③ 입도경위: 1273년(원종 14) 여원연합군이 삼별초를 평정한 후 원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목마장을 세웠다. 그는 목마장 감목관으로 입도하였다. 그 후 최영 장군이 1374년(공민왕 23) 8월 목호의 난을 진압한 후 후손들은 고려에 귀화하였고, 이때 후손 좌한기(左漢棄)는 구좌 한동리에서 한경 두모리로 이주하여 정착.
- ④ 특이사항: 원 천관시랑(天官侍郎) 역임.

(4) 김만희(金萬希), 김해(金海) 김씨

- ① 가계: 중시조 김유신(金庾信)의 38세 직계손. 일명 김경흥(金景興). 자(字) 여운(汝雲).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92년(태조 1). 애월읍 곽지리.
- ③ 입도경위: 고려 충정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좌헌납(左獻納)이 되었다. 공민왕 때 대언(代言)으로 자제위(子弟衛)를 총괄하였고³⁾, 벼슬이 삼중대광도첨의좌정승(三重大匡都僉議左政丞)에 이르렀다. 고려말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기꺼이 종적을 감추고 고향으로 물러났다. 1392년 조선 태조가 즉위하자 고려의 유신(遺臣)들을 불렀는데, 그는 절의를 지키며 나아가지 아니하자 제주(濟州)에 유배 보냈다. 처음 애월포(涯月浦)에 도착, 자손들이 이어서 정착.
- ④ 특이사항: 제주 삼절신(三節臣). 바다를 건너올 때에 노래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요순의 시대 멀기만 하네(唐虞遠兮)/ 나는 어디로 돌아갈까(嗟余焉歸)/ 원컨대 백이숙제를 따라(願從夷齊兮)/ 고사리나 캐러 가야지(薄言採薇). 이어서 시 한 수를 읊었으니 다음과 같다. 한라산이 어찌 서산과 같으리오(擎山何似古西山)/ 고죽군의 밝은 바람 아득하여 따를 수 없네(孤竹清風遠莫攀)/ 바다가 뽕밭으로 변했으니 그만둘 수밖에(海變桑田人已矣)/ 문밖에 나가 한라산에나 오를 수밖에(出門欲往小瀛寰). 이 시를 읽으니 사람들이 더욱 감복.

(5) 한천(韓蕡), 청주(淸州) 한씨

- ① 가계: 시조 한란(韓蘭)의 11세손. 호 서재(恕齋).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92년, 표선 가시리.
- ③ 입도경위: 공양왕 때 관직이 예문관대제학에 이르렀다. 1371년(공민왕 20) 경상도도순문사에 임명되었고, 공양왕 때 판개성부사가 되었다. 1392년 공양왕이 원주(原州)로 축출되니 그는 제주(濟州)에 유배되었다.⁴⁾ 지금 정의현의 옛터에 서당(書堂) 옛터가 아직도 존재.

3)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및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에 근거하나, 『고려사』(권24, 열전37, 김홍경) 등에는 공민왕 때 대언으로 자제위를 총괄했던 인물은 김흥경(金興慶)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는 공민왕 시해 사건 관련 우왕 초기에 언양으로 유배되었다가, 처형당한 인물이다. 따라서 조선초 제주에 내려온 김만희(김경흥)와는 거리가 먼 인물인데, 김만희의 관력(官歷)에 소개되어 있는 점이 의문스럽다.

4) 한편 한천의 제주 입도시기가 널리 알려진 1392년 고려 멸망과 함께하여 입도한 것이 아니라 1400년(정종 2)~1403년(태종 3)에 입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홍기표, 「여말선초 청주한씨 제주입도조 한천 재조명」, 『탐라문화』(55), 2017.).

- ④ 특이사항 : 제주 삼절신(三節臣).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의 「서재한 공유허비(恕齋韓公遺墟碑)」.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그의 묘소 소재.

(6) 허손(許遜), 양천(陽川) 허씨

- ① 가계: 시조 허선문(許宣文)의 15세손. 부친 대제학 허흠(許欽). 형 허징(許徵, 두문동 72현).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92년(태조 1), 구좌 종달리.
- ③ 입도경위: 밀직제학(密直提學)을 지낸 고려유신으로 조선 건국시 신왕조를 거부하고 제주도에 낙향, 은거.
- ④ 특이사항: 부친과 형 모두 불사이군의 고려절신(高麗節臣).

(7) 이미(李美), 경주(慶州) 이씨 익재공파

- ① 가계: 시조 이알평(李謁平)의 55세손. 자(字) 중인(仲仁), 호 서재(西齋). 형 이신(李伸) 제주도안무사(1420).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1년(태종 1).
- ③ 입도경위: 진사시에 급제하고 관직이 교리(校理)에 이르렀다. 고려가 멸망하자 물러나 은둔하며 독서하였다. 조선 태종 때 교리로 임명하여 불렀는데 불응하자 제주 향리로 벼슬을 낮추어 유배 보냈다. 도해(蹈海) 시 1수가 전한다. 그 형인 이신(李伸)이 안무사로 제주에 부임하였을 때 의전(義田)을 따로 뒀다.
- ④ 특이사항: 제주 삼절신(三節臣). 서귀포시 하원동 영실 삼장굴(三藏窟)에 그의 묘소 소재. 전하는 시는 다음과 같다. 제주가 비록 누추하다 하나(海朝雖云陋)/ 이 나라 영토 아닌가(莫非傘土濱)/ 여기에서 옛 임금 바라보니(此中瞻舊日)/ 두 임금 섬길 수 있겠는가(肯作二心人).

(8) 강영(康永), 신천(信川) 강씨

- ① 가계 : 중시조 강지연(康之淵)의 8세손. 부친 판도판서(版圖判書) 강윤휘(康允暉). 백부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강윤성(康允成).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사촌 오빠.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2년(태종 2). 조천 함덕포.
- ③ 입도경위 : 1398년(태조 7) 이방원(李芳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덕왕후 강씨의 두 왕자 이방번(李芳蕃), 이방석(李芳碩)을 살해하자 왕자들의 골

육상잔에 환멸을 느끼고 전라감사를 사임(파직)하고 제주도로 유망(유배).⁵⁾

- ④ 특이사항: 공민왕대 홍건적 침입시 격퇴한 공로로 공신 서훈. 우왕대 최영(崔瑩) 및 나세(羅世) 등과 왜구 격퇴.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봉소동에 그의 묘소 소재. 그의 묘소는 함덕 지경에 수백 년간 실묘(失墓) 상태로 있었으나, 1950년 밭을 갈던 농부가 지석을 발견했고, 감정 결과 그의 묘에 넣었던 지석임이 밝혀졌다. 지석에는 피장자와 글쓴이의 이름이 있었는데, 글쓴이가 제주목사로 근무하던 기전(奇虔)이었으며, 현재 탁본이 전함.

(9) 안득경(安得敬), 순흥(順興) 안씨

- ① 가계: 시조 안자미(安子美)의 10세손.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398년(태조 7) 애월 어도리⁶⁾/1401년(태종 1) 한경 청수리⁷⁾/1450년(세종 32)⁸⁾.
③ 입도경위: 왕자의 난 때 이방번, 이방석 두 왕자가 살해되는 왕권투쟁을 보고 제주에 낙향, 은거.
④ 특이사항: 수의부위(修義副尉) 역임.

(10) 홍윤강(洪允康), 남양(南陽) 홍씨

- ① 가계: 시조 홍은열(洪殷悅)의 15세손. 조부 문하시중 홍언박(洪彦博).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2년(태종 2). 조천 조천리.
③ 입도경위: 1374년(공민왕 23) 공민왕시해사건 때 친척으로 있는 홍윤(洪倫)·홍관(洪寬) 등이 주모자로 처형되고 홍사보(洪師普)·홍사우(洪師禹) 등이 유배되자 사재감의 벼슬을 사퇴하고 유랑길에 나섰다가 조선 건국 후 가족과 함께 낙향, 조천 조천리에 정착.
④ 특이사항: 사재감(司宰監) 역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그의 묘소 소재.

(11) 김검룡(金儉龍), 경주(慶州) 김씨

- ① 가계: 경순왕의 넷째 왕자 안동군 김은열(金殷說)의 16세손. 부친 김인찬(金仁贊, 조선개국 일등공신).

5)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에는 유망(정치적 망명)과 유배 두 가지 설을 모두 기록하고 있으나, 답수계의 『증보탐라지』에는 유배라고 되어 있다.

6) 홍순만, 「제주의 입도조와 분묘」, 나주김씨제주종친회, 2004.

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8)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1981.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3년(태종 3). 성산읍 오조리.
- ③ 입도경위: 조선 초(정종 말기~태종 초) 감목사(監牧使)로 입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403년(태종 3) 양마 6필을 경기도 양근현(楊根縣) 마유봉(馬遊峰)에 보내 헌마한 후 같은 해 제주도지관(濟州都知官)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승됨. 이로 미루어 감목사라는 벼슬로 제주와 인연을 맺고 정의현 오조리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
- ④ 특이사항: 헌마공신 김만일(金萬鎰)은 그의 7세손.

(12) 김인충(金仁忠), 나주(羅州) 김씨

- ① 가계: 시조 김운발(金雲發)의 14세손.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3년(태종 3), 애월 고내리⁹⁾/우왕대(1374~1388)¹⁰⁾.
- ③ 입도경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제주도로 낙향.
- ④ 특이사항: 고려 말 강화진 좌령랑장(左領郎將) 역임. 후손 건공장군(建功將軍) 김성조(金成祖),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시 왜구 격퇴. 제주시 노형동에 ‘나주김씨입도조단소(羅州金氏入島祖壇所)’ 소재.

(13) 변세청(邊世淸), 원주(原州) 변씨 훈련공파(訓練公派)

- ① 가계: (원 귀화) 시조 변안열(邊安烈)의 3세손.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05년(태종 5). 제주목 노형동.
- ③ 입도경위: 조부 변안열이 고려말 이방원에 의해 참살되자 손자로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피신하여 제주에 입도.
- ④ 특이사항: 고려 중랑장(中郎將), 조선 중훈대부(中訓大夫) 주학교수(州學敎授) 역임. 후손 변경봉(邊景鵬, 대정현감) 1794년(정조 18), 갑인년 흥년 때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구휼미 1만5천석을 지원받아 백성들을 구제. 제주시 노형동 함박동(咸朴洞)에 그의 묘소 소재.

(14) 강윤희(姜允熙), 진주(晉州) 강씨(은열공파)

- ① 가계: 증시조 강민첨(姜民瞻)의 13세손.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1418¹¹⁾. 애월 남읍리

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10)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1981.

1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고로 김봉현의 『제주도유인전』에는 진주강씨 제주 입도조가 ‘강철(姜哲, 水山派)’로 되어 있으며, 1506년(중종 1) 낙향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 ③ 입도경위: 양녕대군 폐출에 반대하다가 유배.
- ④ 특이사향: 형조좌랑, 대사헌 역임.

(15) 김안보(金安寶), 연안(延安) 김씨

- ① 가계: 시조 김섬한(金暹漢)의 8세손.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정종대(1398~1400)¹²⁾/ 15세기 초, 제주성 일도리¹³⁾.
- ③ 입도경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관직을 버리고 제주에 낙향. 처음 제주성에 은거.
- ④ 특이사향: 한림학사(翰林學士). 아들 김복수(金福壽) 때 화북2동 거로 마을로 옮겨 설촌.

(16) 현사경(玄思敬), 연주(延州) 현씨

- ① 가계 : 시조 현담운(玄覃胤)의 9세손.
- ② 입도연대 및 지역: 태종(1403~1419) 때 추정. 현사경 아들 3형제 중 장자 현수인(玄壽仁)은 제주시 거로(巨老), 차자 현부인(玄富仁)은 남원(南元), 삼자 현귀인(玄貴仁)은 성산(城山)에 거주.
- ③ 입도경위: 미상. 문중에는 그가 제주목사로 도임하였다가 되돌아가지 않고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
- ④ 특이사향: 제주목사 부임(?)¹⁴⁾, 조선 초 돈녕부 도정(都正) 역임.

이상 여말선초 16명의 입도조에 대해 그들의 가계 및 입도 연대, 지역, 경위 등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12)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1981.

13) 홍순만, 「제주의 입도조와 분묘」, 나주김씨제주충친회, 2004.

14) 현사경의 입도연대로 추정되는 태종대(1400~1419)의 제주목사는 총 8명으로 다음과 같다. 박덕공(朴德公), 이원항(李原恒), 조원(趙源), 정초(鄭初), 김정준(金庭雋), 윤임(尹臨), 오식(吳湜), 이간(李諫). 또한 현씨로 조선시대 제주목사에 부임했던 인물은 광해군 때의 현즙(玄楫, 재임: 1613~1616)만 확인된다. 따라서 현사경이 제주목사로 부임했다는 사실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음.

[표 1]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현황¹⁵⁾

연 번	성명	본관	입도연대	입도지역	입도이유	특이사항
1	김윤조(金胤祖)	광산(光山)	1368(공민왕 17)	구좌 김녕리 → 한동리	정치적 망명 (김흥조, 신통제거 모의발각 처형)	증조부: 김수(金須) 형: 김흥조(金興祖) 9세손: 김진용(金晉鎔)
2	진계백(秦季伯)	풍기(豐基)	1371(공민왕 20)	애월 애월리	정치적 망명 (폐행 최만생, 홍륜 등과 불화)	이색의 문인 최영의 친족
3	좌형소(左亨蘇)	청주(靑州)→ 제주(濟州)	고려말	구좌 한동리 (좌가장)	공무 수행 후 정착 (탐라 목마장 감목관 부임)	현손 때 세거지를 제주 서북부 지역 (한경면 일대)으로 이거
4	김만희(金萬希), 김경흥(金景興)	김해(金海)	1392(태조 1)	애월 광지리	유배(高麗遺臣/ 절의파)	(제주) 삼절신(三節臣)
5	한천(韓臧)	청주(靑州)	1392(태조 1)/ 1400(정종 2)	표선 가시리	유배(高麗遺臣/ 절의파)	15대손: 김만덕(金萬德)
6	허손(許憇)	양천(陽川)	1392(태조 1)	구좌 종달리	은둔 처사(高麗遺臣/ 절의파)	(제주) 삼절신(三節臣) 목은, 포은과 교류 부친: 대제학 허흥(許欽) 형: 허징(許懲, 두문동 72현)
7	이미(李美)	경주(慶州) 익재공파	1401(태종 1)	제주 외도동	유배(高麗遺臣/ 절의파)	(제주) 삼절신(三節臣) 형: 이신(李伸, 제주도안무사, 1420) 형의 육지행 권유 거부
8	강영(康永)	신천(信川)	1402(태종 2)	조천 함덕리	유배(1398년, 1차 왕자의 난) 정치적 망명	종제: 신태왕후 강씨 제주목사 기건(奇虔)의 지석
9	안득경(安得敬)	순흥(順興)	1398(태조 7)/ 1401(태종 1)/ 1450(세종 32)	애월 어도리/ 한경 청수리	은둔 처사(낙향)	1차 왕자의 난
10	홍윤강(洪允康)	남양(南陽)	1402(태종 2)	조천 조천리	은둔 처사(낙향)	조부: 문하시중 홍언박(洪彦博)

15) 남평문씨(南平公派) 입도조 문작(文祿)은 여말선초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고려 중엽 무신집권기 때(1194년, 명종 24) 대제학으로 문교 선화를 위해 입도 후 정착.

연 번	성명	본관	입도연대	입도지역	입도이유	특이사항
11	김검룡(金儉龍)	경주(慶州)	1403(태종 3)	성산 오소리	공무 수행 후 정착 (감목사, 제주도지관 부임)	부친: 김인찬(金仁贊), 조신 개국공신 7세손: 현마공신 김만일(金萬鎰)
12	김인충(金仁忠)	나주(羅州)	1403(태종 3)	애월 고내리	은둔 처사(낙향)	강화진 좌령랑장(左領郎將) 역임 후손: 김성조(金成祖), 을묘왜변(1555년, 명종 10)시 건공장군
13	변세청(邊世淸)	원주(原州) 훈려공파	1405(태종 5)	제주시 노형동	정치적 망명(변안렬의 손자)	조부: 변안렬(邊安烈), 고려말 삼도도원수(三道都元帥) 후손: 대정현감 변경봉(邊景鵬), 갑인년(1794, 정조 18) 대흥 때 구휼
14	강윤희(姜允熙)	진주(晉州) 은열공파	1418(태종 18)	애월 남읍리	유배(양녕대군 폐출 반대)	
15	김안보(金安寶)	연안(延安)	정종대/ 15세기 초	제주성 일도리	은둔 처사(낙향)	이들: 김복수(金福壽), 거로동(禾北二洞) 설촌
16	현사경(玄思敬)	연주(延州)	태종대/ 15세기 초	?	공무 수행 후 정착 (제주목사 부임?)	

3.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분석

이제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 16명에 대해 그들의 입도연대 및 지역 그리고 입도이유에 대한 개략적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먼저 입도조의 입도 연대는 서두에 여말선초 100년간으로 한정해서 살펴본다는 전제를 밝혔지만 대체로 다음의 세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공민왕대, 둘째 조선건국, 셋째 태종대였다.

공민왕대의 입도인은 김윤조와 진계백이다. 이 둘은 모두 공민왕 집권 후반기 권신인 신돈 및 최만생/홍륜 등과의 불화 때문에 정치적 피난처를 찾아 입도하였다. 김만희, 한천, 허손 등은 1392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절의를 숭상하며 고려유신으로 남기를 자처하여 유배되었거나 은둔처를 찾아 입도한 경우였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례는 태종대였다. 두 차례(1398, 1400) 왕자의 난을 거쳐 태종이 집권하자 혼란 정국을 피해 서울과 가장 먼 변방 제주로 은둔하여 처사처럼 지내려는 입도인들이 많았다. 안득경, 홍윤강, 김인충, 김안보 등이 그들이다. 또한 강영과 변세청은 각각 신덕왕후 및 변안열의 인척으로 태종과의 악연을 지녔던 인물들이다. 그 때문에 정치적 망명처를 찾아 제주로 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역시 태종의 관직 서용에 대해 고려의 신하임을 내세워 거부했다 제주로 유배되었다.

결국 공민왕 말기, 태종 집권 초기와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주를 향한 입도인들은 정치적 망명처 또는 은둔 처사의 삶을 위해 들어온 것이었다. 또한 고려 멸망, 조선 건국이라는 왕조교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의를 지키며 불사이군의 고려유신(高麗遺臣)으로 남기를 자처하다 유배당해 제주로 향했던 인물도 있다.

입도조의 입도 지역은 대부분 제주섬 북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북동부 지역인 조천(강영, 홍윤강) 및 구좌(김윤조, 좌형소, 허손)에 5명, 북서부 지역인 외도/노형(이미, 변세청) 및 애월(진계백, 김만희, 안득경, 김인충, 강윤희)에 7명, 제주성안(일도리)에 1명(김안보) 등 총 13명이 북부지역에 정착하였다. 남부지역은 2명이 정착하였는데, 성산(김검룡), 표선(한천)의 남동부지역이었다. 이 외에 미상 1명(현사경)이 있다.

결국 대다수의 입도조들은 제주목관아로부터는 일정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육지와 왕래를 염두에 두어 북부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리라 판단한 듯하다. 물론 당시로서는 제주에서도 오지일 수 있는 성산 오조리나 표선 가시리에 정착하여 속세와 절연하려는 의도가 강한 입도조도 소수 있었다.

입도조의 입도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유배인, 둘째 정

치적 망명, 셋째 은둔 처사, 넷째 공무수행 후 정착이다. 유배인과 정치적 망명은 대부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연고도 없는 먼 변방 제주로 입도한 경우이다. 이에 반하여 공무수행 후 정착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의지가 담긴 입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은둔 처사형의 삶을 위한 입도는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과 동떨어진 먼 변방을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온 자의적 입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결국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들은 ‘타의반 자의반’의 성격으로 이해된다. 이들에게 제주는 형극의 길이기도 또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는 도전의 길이기도 했다.

첫째, 유배인 입도조이다. 유배인들은 양심에 반하는 타협을 거부하며 새로운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제로 제주에 입도한 경우이다. 김만희, 한천, 이미, 강윤희의 4명으로 확인된다. 김만희와 한천은 조선 건국과 더불어 유배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와 강윤희는 각각 태종 초기와 말기에 제주에 유배되었다. 또 김만희와 이미는 각각 태조와 태종 초 출사를 종용받았으나 고려의 신하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가 유배된 경우이며, 한천은 건국초 성석린(成石璘), 이원평(李元紘) 등과 더불어 고려의 신하라는 이유로 유배되었다.¹⁶⁾ 강윤희는 양녕대군 폐출을 반대하다 제주로 유배되었다.

둘째, 정치적 망명의 입도조이다. 정치적 망명은 본인 및 친족이 역시 권력 실세와 대립각을 세우다 화가 미치기 전에 먼 변방으로 피난처를 찾아 제주에 들어온 경우이다. 김윤조, 진계백, 강영¹⁷⁾, 변세청의 4명으로 확인된다. 김윤조와 진계백은 고려말 공민왕 때이며, 강영과 변세청은 조선 태종 때이다.

김윤조와 진계백은 모두 공민왕 집권 후반기 권신들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정치적 피난처를 찾아 입도하였다. 김윤조는 김홍조의 동생인데, 형인 김홍조가 공민왕대 권신 신돈을 제거하기 위해 모의하던 중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다.¹⁸⁾ 결

16) 『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7월. “회빈문 밖에서 단양군 우성범과 진원군 강희계를 배었다. 태조(이성계)가 그것을 듣고 대노하여 중지시켰으나 시간이 늦었었다. 찬성사 성석린과 정당문학 이원평, 청성군 강시, 예문관대제학 한천, 밀직제학 성석용을 귀양 보냈다(斬丹陽君禹成範晉原君姜淮季于會賓門外 我太祖聞之大怒止之不及 流贊成事成石璘 政堂文學李元紘 菁城君姜著 藝文館大提學韓戴 密直提學成石瑑).”

17) 유배인 입도조 5명 중 강영은 태종 때 유배로 들어 왔는지, 정치적 망명의 피난처로 입도했는지 불분명하다. 유배인의 신분으로 입도한 사실이 종친회를 비롯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록을 비롯한 사료에서 고증할 수 없다. 오히려 필자는 태종의 치세와 멀리 떨어진 제주로 자발적인 정치적 망명을 꾀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그 근거는 입도시점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즉 신덕왕후 강씨의 사망은 1396년이요, (사촌) 외조카인 이방번, 이방석 두 왕자가 살해당하는 1차 왕자의 난은 1398년의 일이었다. 강영의 제주 입도 시점이 1402년이 맞다면 그로부터 4년 전후의 기간이 경과된 뒤에 입도한 것이다. 따라서 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뒤에 강영을 유배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18)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7년 10월. “1368년 10월. 전 밀직부사 김정이 김홍조, 조사공, 유사의, 김제안, 김귀보, 이원립, 윤희중 등과 모의하여 당시 권신이던 신돈을 배어 죽이기로 하고 비밀리에 암살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사실을 조사공이 자기와 친한 전 홍주목사 정운에게 누설했다. 정운은 또 자기와 친한 제학 한천에게 알렸고, 한천은 정운과 더불어 평소 잘 알고 있는 시중 이춘부에게 알려

국 김윤조는 신돈의 추가 보복을 피해 바다 건너 제주에 들어왔다. 진계백 역시 공민왕 말기 자제위(子弟衛) 소속으로 충애를 받던 홍륜, 최만생 등과 불화를 빚어 정치적 망명처로 제주를 택했다.¹⁹⁾

강영은 신덕왕후 강씨의 종형이요, 이방번/이방석 두 왕자의 외종숙이었다. 태종이 두 왕자를 제거하는 1398년(태조 7) 왕자의 난으로 강영은 태종과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변세청은 변안열의 손자인데, 변안열은 1389년(창왕 1) 김저(金佇) 등이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고 우왕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이림(李琳), 우현보(禹玄寶), 이색(李穡) 등과 함께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사형된 인물이었다. 따라서 강영과 변세청은 태종이 집권하면서 그와 가급적 멀리 떨어진 제주로 정치적 망명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은둔처사의 삶을 위해 제주를 찾은 입도조는 5명으로 추정된다. 허손, 안득경, 홍윤강, 김인충, 김안보가 그들이다. 이 중 허손은 건국 직후, 나머지는 태종 즉위 전후에 입도한 것으로 전한다. 따라서 은둔 처사를 지향하게 된 외적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허손은 부친(허흠)과 형(허징)이 고려절신으로 순국하거나 두문동 72현이 된 인물들이어서 본인 역시 절의 정신에 입각한 고려의 신하로 살아가기 위해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일한 이유로 유배를 당해 제주에 입도한 김만희, 한천, 이미와 ‘타의냐, 자의냐’의 상황만 달랐을 뿐이다. 나머지 4명은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거쳐 즉위한 태종의 집권을 목도하면서 건국 초 혼란한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처사의 삶을 위해 자의로 제주를 택한 경우이다.

하필이면 바다 건너 제주까지 들어 온 당시 이들의 입도를 오히려 오늘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임시방편, 현실도피, 유유자적의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듯하다. 정국이 편안해지면 다시 중앙 무대로 돌아가야지 하는 의도로 입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임시방편의 이유였다면 굳이 바다 건너 변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또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삶 또는 그런 세계보다는 오히려 양심을 지키며,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당당히 살아가려는 삶을 그리며 입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를 택한 그들에게 현실도피의 모습보다는 도전정신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는 조명이 옳을 듯하다. 더구나

이춘부로 하여금 왕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왕은 즉시 그들 모두를 순군옥에 가두고 모두 곤장을 쳐서 귀양 보냈다. 그러나 신돈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 김정, 김홍조, 조사공, 유사의 등을 뒤쫓게 하여 도중에서 그들을 목을 매어 죽게 하였다(殺前密直副使金精 金興祖 趙思恭 俞思義等 初精等 與金齊顏 金龜寶 李元林 尹希宗等 謀誅(辛) 思恭洩謀於所善 前洪州牧使鄭暉 暉與提學韓藏 告侍中李春富 春富入告王 乃命繫巡軍獄 並杖流于外 思恭追遣人於路 皆縊殺之).”

19) 진계백과 홍륜, 최만생과의 불화와 관련된 사실은 정사(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서 확인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갖춰진 안락한 기반 위에 유유자적하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척박한 토질과 삼재(三災)라는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 견뎌내야 하는 삶을 인지하며 입도했다는 점이다.

넷째, 공무수행 후 정착한 입도조이다. 좌형소, 김검룡, 현사경의 3명으로 추정된다. 좌형소는 고려말, 김검룡과 현사경은 조선 태종 때 입도하였다. 이 중 좌형소와 김검룡은 탐라(제주) 목마장의 감목관 또는 감목사로 부임한 뒤 제주에 정착하였으며, 현사경은 제주목사를 부임한 뒤 그대로 제주에 머물렀다고 전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가승(家乘)의 기록 외에 사서 및 역사지리지서를 포함한 문헌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²⁰⁾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말선초 제주 입도조의 제주 유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그 기준은 다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객관적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입도조 내면적 요인에 의한 주관적 정황에 초점을 맞추면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도 있다. 타의에 의한 고난의 길과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선 자발적 의지의 소산이 그것이다. 즉 유배인 및 정치적 망명은 타의에 의해 변방을 쫓기듯 입도한 경우이며, 은둔 처사의 삶 및 공무수행 후 정착은 자발적 입도의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입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이들의 지위와 조건이다. 제주 입도조들은 대부분 양반으로 일정한 학문적 소양과 중앙에서의 신문물 경험치를 지닌 존재들이었다. 거기다가 이들은 입도할 때 나름의 경제적 기반까지 수반해 왔으리라 여겨진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서의 양반은 실제 노동은 하지 않지만 농업 경영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존재이다. 중국과의 교류 및 문물 섭취도 인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질병 치료에 대한 의학적 상식까지 구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입도는 제주에 새로운 사회 영역의 탄생에 예고하는 것이었다. 척박한 제주의 자연환경과 기후 조건을 생활화하고 나름의 전통 관습을 지닌 토착 제주인에게는 이질적인 집단의 등장이었다.

제주의 토호 세력 및 민간은 초기에는 이들을 향해 경계의 시각으로 접촉했겠지만, 점차 그들이 영주(永住)를 목표로 생활해가는 모습을 보고는 상호 정보 교류 등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주 사회문화의 상승을 함께 꾸려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더구나 이들은 단기간 지배층으로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목민관이 아니었다. 제주에 정착하고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하며 후손이 대를 이어가며 차차 제주 사람이 되어 갔다. 이를 보면서 당시 토착의 제주 사회는 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

20) 필자는 이들의 관력(官歷)과 관련해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 정사는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 다수의 탐라지리지 및 검색 가능한 개인 문집 등을 뒤졌으나 고증할 대목을 찾을 수 없었다.

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접촉과 수용, 흡수와 통합 등 나선형적인 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제주문화를 탄생시켜가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4. 맺음말

여말선초 제주에는 육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여 후손을 남겼다. 이들을 제주에서는 입도조(入島祖)라 부른다. 입도조란 본관이 제주인 고, 양, 부삼성(三姓) 이외의 타 성씨가 제주 섬 이외의 지역 및 국가에서 제주로 처음 들어와 정착하여 살며 후손(혈족)을 남기고 그들이 대대로 제주에 거주하며 가문을 이루었을 때의 시조이다.

여말선초 제주에 들어와 입도조로 조명되는 인물은 대략 16명으로 파악되며 다음과 같다. 광산김씨 김운조(金胤祖), 풍기진씨 진계백(秦季伯), 제주좌씨 좌형소(左亨蘇), 김해김씨 김만희(金萬希), 청주한씨 한천(韓蕡), 양천허씨 허손(許遜), 경주이씨 이미(李美), 신천강씨 강영(康永), 순흥안씨 안득경(安得敬), 남양홍씨 홍윤강(洪允康), 경주김씨 김검룡(金儉龍), 나주김씨 김인충(金仁忠), 원주변씨 변세청(邊世淸), 진주강씨 강윤희(姜允熙), 연안김씨 김안보(金安寶), 연주현씨 현사경(玄思敬).

이들은 대체로 고려 공민왕대, 조선건국 전후, 조선 태종대에 집중적으로 입도하였으며 그 지역은 대부분 제주섬 북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입도조의 입도 이유는 첫째 유배인, 둘째 정치적 망명, 셋째 은둔 처사, 넷째 공무수행 후 정착의 네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유배인과 정치적 망명은 대부분 타의에 의해 먼 변방 제주로 입도한 경우이다. 이에 반하여 공무수행 후 정착과 은둔 처사형의 삶을 위한 입도는 제주에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온 자의적 입도로 이해했다.

한편 입도조들의 입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은 바로 그들의 지위와 조건이었다. 학문적 소양, 신문물 경험치의 양반들이었으며, 당연히 경제적 기반까지 수반하여 입도하였으리라 보인다. 척박한 제주의 자연환경과 기후 조건을 생활화하고 나뭇의 전통 관습을 지닌 토착 제주인에게는 이질적인 집단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제주인들은 그들이 제주에 정착하고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하며 후손이 대를 이어가며 차차 제주 사람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호 정보 교류 등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주 사회문화의 상승을 함께 꾸려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바야흐로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접촉과 수용, 흡수와 통합 등 나선형적인 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제주문화를 탄생시켜가는 힘의 원천을 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 참고문헌

1. 사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남사록』
(김상헌), 『탐라지』 (이원진), 『증보탐라지』 (윤시동), 『탐라지초본』 (이원조),
『증보탐라지』 (담수계), 『남환박물』 (이형상), 「서재한공유허비」 (최익현).

2. 단행본 및 논문

- 고창석, 「원명 교체기의 제주도」, 『탐라문화』 (4), 1985.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9~23), 1993~1995.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2013.
-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국서간행회, 1956.
- 김석익, 『탐라기년』, 영주서관, 1918.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 김창현, 「탐라의 지배층」, 『탐라사』 (Ⅱ), 2010.
- 김찬흡,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 김찬흡, 「각 성씨관향별 낙향유래와 분파이름」, 『제주특별자치도』 (113), 2009.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 신천식,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학맥』, 경인문화사, 2004.
- 양진건, 「제주 유배인의 개화교학활동연구」, 『민족문화연구』 23, 1990.
- 양진건, 「탐라국의 유학 수용 연구」, 『한국교육사학』 18집, 1996.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지』 1, 제주도, 1996.
- 제주문화원, 『역주증보탐라지』, 2005.
-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제주유맥육백년사』, 1997.
- 홍기표, 「여말선초 청주한씨 제주입도조 한천 재조명」, 『탐라문화』 (55), 2017.
- 홍순만, 「제주의 입도조와 분묘」, 나주김씨제주도종친회, 2004.
- 홍순만, 『제주에 선비의 얼을 심은 고려유신 한천』, 남제주문화원, 2008.
-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 연구』, 혜안, 2005.

3. 홈페이지

- 고영철, 고영철의 역사교실(<http://www.jejuhistory.c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222.grandculture.net/>).

한국전쟁기 제주 피난과 이주, 그리고 정착

김 아 람(연세대 국학연구원)

1. 머리말
2. 최후의 피난 지구, 제주
3. 이주와 개발: 고아·군인의 이주와 제주도 개발계획
4. 난민에서 도민으로, 제주에 정착한 사람들
5. 맺음말

1. 머리말

제주는 4.3사건과 한국전쟁으로 강제 소개(疏開)와 피난이 거듭되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기에 제주도 내 이주민은 4.3사건으로 거주지를 떠난 난민/이재민과 전쟁기 육지에서 온 피난민/이주민으로 구분된다. 이 시기 제주에서의 이주 문제는 국가형성 과정에서 자행된 내부의 국가폭력과 외부와의 전쟁이 야기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 있다.¹⁾ 또한 전후 제주의 복구는 4.3피해 난민과 전쟁 피난민에게 공통적으로 절실한 과제였다. 이 논문에서는 전쟁기 육지에서 제주로 피난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과정과 정부와 군에서 제주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구상 및 그 실재를 규명하고자 한다.

전쟁은 정치·군사·외교의 격변을 초래하는 초대형 사건이자 사회의 변동과 지역의 변화, 삶의 파괴와 재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연구에서도 전쟁이 장·단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미친 영향과 그 의미에 주목하는 등 전쟁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이 전쟁을 경험한 실상과 전후의 변화상은 먼저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고, 과거를 기억하고자

1) 필자는 해방 후 전쟁기까지 한국 내에 있는 강제 이주민(귀환민, 월남민, 소개민, 피난민)을 ‘난민’으로 범주화하여 국민 형성의 과정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김아람, 『한국의 난민 발생과 농촌 정착사업(1945~1960년대)』 연세대 사학과 박사논문, 2017, 서론 참조.

하는 노력의 결실이다. 마을과 가족 단위로 벌어졌던 학살 문제는 지역과 마을에서
서의 증언과 사료들로 규명될 수 있었다. 근래에는 지역에서의 피난과 피난민 거
주, 전후 정착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전쟁을 전후한 지역사회의 변화상은 또한 전쟁기와 전후에 중앙 정부 및 군과
지역의 연관성을 통해 전시의 사회상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군이 실행한 사회정책
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역은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투와
피난의 장소로 역할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와 미국 원조기구는 피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민사업무로 삼고, 구호사업을 실시하였지만 그 내용은 지역과 피해 당사자
에게 적극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었다.²⁾

4.3사건 진압에서 드러나는 바, 정부는 제주를 ‘초토화’해도 된다는 인식하에
소외시키고 파괴하였다. 곧이어 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는 다시 군대 훈련 장소, 최
후의 피난 지역,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중첩적인 피해와
복구의 어려움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징이었다. 동시에 전국에서 피난민의 이동과
거주, 정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가 구상하는 피난민 통제와 구호대책의 틀에
제주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전쟁기에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최후의
기지이자 피난지 역할을 요구받았다.

전쟁기의 제주 연구들은 타 지역과는 다른 제주의 역사성에 주목하였다. 양정
심은 UNCACK(유엔민간원조사령부)에 나타난 제주지역 구호활동과 주민 관리
를 통한 정치·사회·인구의 변화상을 밝히고, 전쟁 전후 제주 ‘지역엘리트’에 주목
하며 전쟁 후 제주도민이 반공국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³⁾ 박
찬식은 지역민의 입장과 생각, 정서, 생활상을 통한 4·3사건과 한국전쟁의 연관
성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피난민 입
도 후 주택난과 식량난, 지역민-피난민과의 갈등, 4·3사건으로 인한 마을 복구
및 이재민 정착 사업을 다루었다.⁴⁾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전쟁이 제주 지역민들
의 반공의식을 높이고 국가체제에 순응하게 되었다고 결론을 맺었다. 김아람은 제
주도로 피난한 월남민의 정착과정을 통해 피난민에 의해 기독교가 제주도에 확대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난민정착사업이 기획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사례로 서
귀포 법호촌을 다루었다.

2) 김아람, 위의 논문, 2장 참조.

3) 양정심, 「한국전쟁기 제주지역사회의 변동」,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4) 박찬식, 「한국전쟁과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4·3사건과 전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사회』
27, 2010.

이상의 연구에서는 전쟁기 정부가 제주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조사하였는지, 제주가 전쟁기 정부의 전국적 정책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미진하였다. 또 피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이주가 있었고, 개발이 시도되었다는 점도 규명되지 못하였다. 정착사업에 관해서도 법호촌이 상세히 규명되었지만, 도내 사업 전반의 기획 및 4.3난민과 피난민의 분류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전쟁기 구호대책의 전반에서 제주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제주의 역할을 정리하고, 고아와 군인의 이주를 새롭게 밝히고자 하였다. 또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전쟁 당시에도 제주가 개발 지역으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육지에서 제주로의 피난과 이주가 임시적이어서 복귀가 시작될 때 제주에서도 육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제주를 터전으로 삼고 정착한 사람들의 삶이 지속되고 있고, 그들을 통해 지역이 경험한 전쟁을 구체화할 수 있기도 하다. 이주했던 사람들이 떠났다하더라도 지역은 전쟁 경험을 역사로 품고 있다.

2. 최후의 피난 지구, 제주

전쟁이 발발하고 대규모의 피난이 시작되면서 피난민의 이동과 수용이 정부의 당면 문제로 부상하였다. 피난민 수용 지역과 수용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점차 구체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피난민 구호대책 요강’⁵⁾을 결정하였다. 이 요강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피난민 구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대구-영천-경주-포항을 잇는 직선의 남쪽 및 대구-경산-청도-밀양-창원을 잇는 선의 동쪽 지역, 기타 완전한 지역 및 제주도 내에 피난민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요강에 따르면 인민군 점령 지역은 피난민 수용 지역에서 배제되었다.

이때 피난민 수용소는 각 가정에 두거나 집단의 매 수용소의 정원을 최하 1만 명 최고 2만 명으로 하고, 그 시설로 사회부 출장소·보급소 진료소·영업관 주재소·교육 계몽반을 두게 하였다. 수용소의 운영은 구호위원회가 담당하기로 되었다. ‘중앙피난민구호위원회’는 사회부·보건부·농림부·내무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하고, 구호사업의 감독 감찰, 구호대책의 수립, 구호물자의 제1차 분배를 그 기능으로 두었다. 지방에는 군수와 지방 유력인사, 피난민대표로 구성된 ‘지방피난민구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본 위원회는 해당 구역 간 수용소의 운영계획과 수용소 생활 개선책 수립, 구호물자의 제2차 분배를 맡았다. 또한 수용소는 서울특별시·도·군·면·동 혹은 리·통·반으로 종적 조직을 갖추도록 하였다.

5) 『민주신보』 1950.8.24.

이 대책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한 당시의 전황을 반영하였다. 그런데 규정에 따른 대책 이행을 위해서는 각 지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피난민 수용이 가능하다고 정한 ‘기타 완전한 지역’은 군의 작전과 현지 상황이 신속하게 연락·보고되어야 실제로 피난이 가능한 지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수용소의 운영 주체로 중앙과 지방에 각각 구호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수용소 운영계획, 생활개선, 구호물자 분배는 지역의 최소 행정단위인 반까지의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에 군수와 유력인사 뿐만이 아니라 피난민 대표가 소속되도록 하여 수용소 운영에 대해서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부여되었다.

전황이 불리해진 겨울에 사회부는 ‘피난민 소개 및 구호요강’⁶⁾을 통해 피난 경로와 장소를 지정하고, 수용할 지역을 선정하였다. 구호대상자 선정과 수용소 규정도 더욱 구체화하였다. 피난민을 출신 지역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수용소에서 관리·통제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 것이었다.

피난 장소는 국방부·내무부·사회부에서 합의 후 결정하여 4개 지구로 구분하였다. 출신 지역에 따라 지정되는 장소가 달랐다. 제1지구는 경상남북도, 제2지구는 전남 일부와 전북, 제3지구는 충남, 제주도는 제4지구였다. 38선 이북 출신의 피난민은 충남과 전라남북도로 정하였고, 서울과 경기지구의 피난민은 일반 시민과 기타 피난민으로 나누어서 일반은 전라남북도, 기타는 경상북도로 정하였다. 지구별 및 수용인원은 약 2백만 명으로 예정하고 각 지방에 배정하는데, 충남지구를 조기 피난지구로 정하였다. 영남과 제주지구를 최후의 피난지구로 하였다.

정부는 피난민 대책에서 각 도의 자치적인 구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사회부는 각 도지사의 책임 하에 각 도별로 수용소를 만들고 전재민을 등록해서 사회부에 보고를 하면 그 내용에 따라 구호물자를 분배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사회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도저히 적절한 대책을 실시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의 결과였다. 내무부가 한강에 가교를 설치하고, 교통부가 열차를 편성하였지만 인민군이 피난민을 가장하고 들어온다는 이유로 작전 당국에서는 “전재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사회부는 피난민의 철수 속도를 따라가기 못하고 있었다.

피난민 구호사업의 모순으로 지적된 점 중에는 지역적 격차가 있었다. 정부 소재지, 도청, 군청 등 지방 행정기관의 구호는 잘 이루어지지만 중심지에서 멀고 전선에 가까운, 안동·영주·봉화, 경기지구 등에서는 전혀 구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⁷⁾

6) 사회부, 「피난민 소개 및 구호요강 송부에 관한 건」, 1950.12.15, 『정부소개대책관계서류』, 1950(국가기록원, BA0852069).

또한 사회부는 당시에 미8군으로부터 대구와 부산의 난민을 일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당장 시행할 여력이 없었다. 정부가 “경상남북도 이외의 다른 도에 지시한다고 해도 안전지대를 찾아서 온 피난민들이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장소에 갈 리가 만무하다”는 근거로 “막대한 숫자에 있는 피난민을 단 시일 내에 보낼 도리가 없고, 보낼 곳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⁸⁾

그러자 미군이 자체적으로 대구에 있는 피난민을 마산으로, 부산에 있는 피난민을 거제도, 제주도, 가덕도로 소개하였다. 1951년 2월에 대구에서는 17회에 걸쳐 트럭 118대를 동원하여 5,101명을 마산으로 ‘이송’하였고, 부산에서는 14회(거제도 8, 제주도 5, 가덕도 1회) 동안 TK호 22척으로 29,734명(거제도 8,391명, 제주도 20,975명, 가덕도 268명)을 보냈다. 거제도로 보내진 사람 중에는 원산에서 도착한 월남 난민들이 263명, 기독교인 325명, 결인 115명, 죄인 118명이 포함되었다.⁹⁾

‘1·4 후퇴’ 후 정부의 피난민 대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일부 군과 고위층의 부적절한 행태가 계속되기도 했다. 군인이 영리를 위해 피난민을 차에 태우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국회에서 이 문제는 또 지적되었고, 정부·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촉구되었다. 100만 명이 피난 중인데 군부, 정부 요인들은 도로에서 개를 신고 가며 전재민이 도움을 청하자 총으로 위협하며 그대로 통과하였다는 국회 보고가 있었다. 이진수(李鎭洙)¹⁰⁾ 의원은 “공산당보다 더한 개 같은 놈들”이라며 분개하며 국회가 술선해서 직접 지역 파견에 나서자고 제안하였다. 사회부에서 대전 북쪽에 주재원을 두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지에 아무도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을 포함하여 국회의원들과 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자들이 소수라도 결사대를 조직해서 현지에 파견하여 즉각 피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곽의영(郭義榮)¹¹⁾ 의원은 소수의 의원으로는 실행력이 없으며 민간 자동차는 모두 징발한 상태이므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교통수단을 마련하도록

7) 태완선 의원, 「재수복지구의 실정 및 피난민 동태 조사에 관한 건」, 『제2대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51.2.27.

8) 「비상사태 수습대책에 관한 긴급질문」, 『제2대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51.1.16.

9) 國防部, 『韓國戰亂一年誌』, 1951.10.15, D38쪽. 사회부에서 3월 10일자로 조사한 이 자료와 다르게 사회부 차관은 1월 20일에 국회에서 피난민이 제주도에 4만 8천명, 거제도에 9만 8천명이 있다고 보고하여 그 차이가 심하다. 「피난민 강제 소개 및 양곡정책에 관한 긴급질문」, 『제2대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51.1.20.

10) 1900~1968, 함남 이원 출생, 북청보통학교, 경성 오성중학교, 니혼대학 졸업, 변리사, 제헌국회의원(무소속 양주을), 제2대국회의원(민국당 양주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1) 1912~1991, 충북 청원 출생, 경성법률전문학교 졸업, 충북 광공국 상무과장, 피산군수, 청원군수, 제2대 국회의원(무소속 청원을), 제3대, 제4대 국회의원(자유당 청원을), 주정협회 회장, 임광토건 회장, 대성공업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²⁾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자 국회 문교사회위원회는 ‘위문단’을 조직하여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다. 국회의원 파견 지구를 제1지구와 제2지구로 나누었는데 제1지구는 현재 사회부가 구호를 관여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제주도와 거제도, 군산이 포함되었다. 제2지구는 피난민이 집합되어 있으나 사회부 시책이 미치지 못한 곳이었다.¹³⁾

국회위원의 현지 방문의 실현 여부와 그 성과는 알 수 없으나 1951년 봄에 정부의 피난민 구호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정부는 전시 재정 절약과 국민 자력자급 정신의 계몽이 요청된다며 구호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의 구호 원칙을 변경하였다.¹⁴⁾

전쟁 기간 중 각 지역별 피난민 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한국전쟁기 지역별 피난민 현황

조사 시기 및 주체 지역	1951년 2월 6~20일 사회부 ¹⁵⁾	1952년 1월 16~31일 UNCACK ¹⁶⁾	1952년 3월 15일 UNCACK ¹⁷⁾	1953년 6월 30일 UNCACK ¹⁸⁾
서울		80,890	47,925	57,547
경기	308,110	680,848	821,678	913,447
강원	192,785	418,844	139,084	140,317
충북	763,830	158,255	137,980	155,298
충남	888,949	697,278	340,980	289,350
전북	257,558	512,005	312,637	285,047
전남	1,004,343	535,838	157,132	171,655
경북	1,334,062	726,601	273,033	270,891
경남 ¹⁹⁾	540,401	602,506	476,374	557,196
제주	106,353	54,873	25,360	21,525
합계	5,396,391	4,477,938 ²⁰⁾	2,732,183	2,862,273

12) 「전재 피난민 위무 급(及) 전의 양양 격려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 『제2대 제10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1951.1.17.

13) 위문단의 구성은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 4명, 기타 일반인 약간 명으로 하였다. 조직은 조사반, 구호반, 선전반을 두기로 하였다. 조사반은 피난민 실태와 행정시책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고, 구호반은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해서 피난민에게 배당된 구호물자를 직접 가지고 피난민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것을 맡으며 선전반은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혹은 ‘문화인’을 위촉하여 강연회나 ‘선무(宣撫)에 필요한 공작’을 하는 역할로 정하였다. 단원 선출은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 혹은 인접지역 국회의원 및 희망 의원으로 조직하고 제1지구는 배편이 연락되는 대로 즉시 단행, 제2지구는 실행성이 있을 때에 파견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2지구에는 밀양, 김해, 마산, 통영, 창녕, 남해, 울산, 여수, 거문도, 완도, 진도가 해당되었으나 광주, 전주, 대구, 영천, 경주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뒤 재의하기로 하였다. 「전재 피난민 위무 급(及) 전의 양양 격려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 『제2대 제10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1951.1.17.

14) ‘노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노유약자, 불구질병자, 병자 및 부녀자만을 구호대상으로 하여 구호양곡을 무상으로 배급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피난민 또는 전재민이라 할지라도 노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구호대책에서 제외하고 구호양곡을 무상배급하지 말 것, 단 수입의 방도가 전무한 자에 대하여는 구호양곡의 무상배급을 실시하되 지방 실정에 즉응(卽應)하여 청소, 도로, 교량수리 등 기타 공공작업에 종사하는 자에만 한하여 규정에 의한 무상배급을 실시토록 적절히 지도할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다. 원칙상 배급을 위해서 ‘절대요구호대상자’의 통계를 작성하고 무상배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社會部, 「1. 救護對策에 新措置」, 『救護狀況月報』 5월 상반기 16호, 1951.5.15. (국가기록원 BA0135071).

총수로 볼 때 1951년 2월에 최고치를 보이다가 1952년 3월부터 급격하게 그 수가 감소하였다. 후술하겠으나 이때부터 피난민의 정착사업이 시작되었고, 영농을 위해 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1951년 2월에 편차가 큰 가운데 경북과 전남에 가장 많은 피난민이 있었다.²¹⁾ 주목할 점은 제주도에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피난 중의 비율로도 2%에 달하여 다른 시기보다 높다. 전국적으로 1952년 1월에 경북, 충남, 경기도 순으로 많다가 3월부터 1953년 6월까지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순으로 지속되었다. 특히 경기도는 피난민 총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피난민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큰 폭으로 감소한 전남과 경북은 1952년 1월 조사 당시에 피난민의 출신지별로 볼 때 도내 피난민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었다.²²⁾ 복귀 역시 도내에서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쟁 후반기에 갈수록 제주의 피난민도 감소하였다.

1951년부터는 피난과 동시에 복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규모가 줄어들었고, 제주에 왔던 피난민도 육지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복귀 대책은 군 작전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했고, 복귀할 지역으로써 서울과 타 지역은 대책 내용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 수복’ 이후 피난을 떠난 사람들의 귀향 대책은 경상도부터 1차로 실시하고자 하였다.²³⁾

15) 社會部, 「救護狀況週報 第七號」, 1951.2.18.~24, 『特別地方官會議關係書類』, 1951(국가기록원, BA0135101).

16) RG 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UNCACK), 1952, En UNCACK, Box 5753, Classified Command Report Files(1 Jan.-30 Dec. 1952), Korea Civil Assistance Command(2 of 2) 1952(이임하,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의 인구조사와 통제」,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112~113쪽에서 재인용).

17) 자료는 3월 15일자로 표기되어 있음. UNC, *United Nations Command Civil Assistance and Economic Affairs-Korea 1 JULY 1951-30 JUNE 1952*, p.9 PUBLIC WELFARE REFUGEES IN REPUBLIC OF KOREA 30 JUNE 1952.

18) UNC, *United Nations Command Civil Assistance and Economic Affairs-Korea 1 JULY 1952-30 JUNE 1953*, p.9, REFUGEES IN REPUBLIC OF KOREA 30 JUNE 1953(source: UNCACK).

19) 거제도와 합한 수치.

20) 북쪽섬 1만 명 포함.

21) 이임하가 UNCACK 지역팀의 보고를 활용하여 낸 결과와 차이가 있다. 그의 통계는 조사 시점이 모두 달랐다는 점을 볼 때, 각 도별로 정해진 기간에 추산한 이 결과가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통계에는 서울 복귀한 피난민은 추산하지 않았고, 총수를 내지 않았다. 이임하,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의 인구조사와 통제」,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115쪽, <표 7> 전쟁기 피난민의 동태 참조.

22) 북한, 서울, 다른 지방, 도내로 구분하였다. RG 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UNCACK), 1952, En UNCACK, Box 5753, Classified Command Report Files(1 Jan.-30 Dec. 1952), Korea Civil Assistance Command(2 of 2) 1952(이임하, 위 논문, 112~113쪽에서 재인용).

23) 경남지구 계엄사령관과 사회부 장관의 ‘피난민 귀향 조치에 관한 공동발표’(1950.10.1.)에 따르면 피난민은 체류지의 읍·면장, 시 동회장이나 수용소장의 귀향증명과 방역증명을 받아야 했다. 증명을 받

정부에서는 1951년에 본래 피난민 50만 명을 제주도로 소개할 계획이었으나 8군단에서 10만 명 이상은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였다.²⁴⁾ UNCACK 제주팀 조사를 토대로 한 1951년 피난민 인구통계는 31,344명에서 14만 8천명까지 파악되기도 하였다. 1951년 4월 자료로는 <표 1>의 2월 자료와 동일하다. 지역별로는 북제주군 5만 2천여 명, 남제주군에 1만 2천여 명, 제주읍에 4만 2천여 명이 있었다고 추산되었다.²⁵⁾

정부는 휴전이 성립할 경우를 대비하여 1952년 1월에 38선 이남 지역에서 남하할 피난민의 운송 방법과 배치 지역을 지정하였다. 규모는 서해안과 문산 서북지대를 떠나는 피난민 12만 명, 중동(中東)구 지대 피난민 20만 명을 상정하였다. 지역별 피난민 운송은 서해안 도서는 해로로, 문산 서북 지대는 용진도서를 경유하여 해로로, 중부지대는 원주를 경유한 육로나 광주·인천을 경유한 해로로, 동부 지대는 주문진을 경유한 해로로 하였다.

이때에도 제주도에 대규모로 피난민 배치가 계획되었다. 서해안 도서 및 문산 서북지대에서 제주도로 5만 명, 전라남북도에 각각 3만 5천명을 목포와 군산을 중심으로 도내에 분산한다는 계획이었다. 중부지대에서 원주를 경유한 피난민은 충청북도에 3만 명, 충청남도에 4만 명을 충주, 제천, 아산, 당진을 중심으로 분산하고, 광주 경유 피난민은 전라남북도에 각각 1만 5천 명씩 배치하기로 정하였다. 동부지대 피난민은 경상남북도에 5만 명씩 포항, 울산, 삼천포를 중심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²⁶⁾

정부와 미국 원조기구는 복귀하는 피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였다. 1952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한미합동난민정착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되었다.²⁷⁾ 제주도에서는 1953년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도과 함께 다음의 과제가 부여되었다.

오면 도내 귀향자는 헌병대장(파견대) 또는 경찰서장(지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도 외 귀향자는 이에 더하여 경남지구 계엄사령관의 인정을 받아야 했다. 일반 피난민을 귀향시킨 다음에 군·경·관 공무원들의 가족이 귀향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부산지구 출발역인 부산역과 도착하는 역에는 안내소를 설치하고 며칠 분의 식량을 배급하였다. 『부산일보』 1950.10.5.

24) 國防部, 『韓國戰亂一年誌』, 1951.10.15, D38쪽. 사회부에서 3월 10일자로 조사한 이 자료와 다르게 사회부 차관은 1월 20일에 국회에서 피난민이 제주도에 4만 8천명이 있다고 보고하여 그 차이가 심하다. 최창순 사회부 차관, 「피난민 강제 소개 및 양곡정책에 관한 긴급질문」, 『제2대 제10회 국회 정기회의속기록』, 1951.1.20.

25) 양정심, 앞의 책, 209, 212쪽; 夫萬根, 『光復濟州 30年』, 文潮社, 1975, 116~117쪽.

26) 大韓民國政府, 「今後 展開될 新事態에 卽應하는 避難民 疏開 及 應急救護對策 大綱」, 1952.1, 『국무회의상정안건철』(국가기록원, BA0084188)

27) 난민정착사업의 구상과 원칙, 목표, 초기 시행 과정은 김아람, 「한국전쟁기 난민정착사업 실시와 구호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16.6 참조.

1. 피난민의 즉각 복귀 허가를 결정
2. 추가적인 복귀 허가 지역 개방이 가능하도록 안전 준비
3. 지역 경찰에 의한 정착민의 보호를 위한 준비
4. 복귀민에게 필요한 자재 원조 결정. 토지 및 농업 생산에 쓸 지역의 자원
5. 정착민이나 지역 자원이 제공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필수 자재 원조 결정. 그 원조 공급의 방법과 수단
6. 지방 관료와 지역 유지가 사업 전반의 목표와 계획을 이해하여 최대한의 협력을 추구함²⁸⁾

위의 과제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역이 정착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전황의 변화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고, 군정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한미합동위원회는 1953년에 많은 경작 가능한 토지가 경작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최대한 토지를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다. 군사시설 인근, 철로, 도로, 하천과 기타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경작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실무자 그룹 단위로 현지 지역 조사에 나서며 난민정착사업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1953년 4월 1~20일 제주도, 전라도, 경기도와 서울에서 정착 성과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다. 실무자 그룹은 관련 부처 차관과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담당관 외에도 농림부 관료와 유엔한국재건단(UNKRA) 측 3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지방 관료 및 경찰과 농민의 배치 및 정착에 대해 논의하였다.²⁹⁾

이들의 현지 조사 보고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는 4·3사건으로 72개리가 완전 파괴된 통제구역이었고, 130개리가 반파되어 10,000세대(55,000명) 이상이 이 지역에서 떨어져 있고, 8,000정부가 생산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제주도는 4·3사건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채로 전쟁을 겪으며 더욱 피해해질 수밖에 없었다. 실무자 그룹이 지역 대표와 유리된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농민들은 가능하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마을을 재건하고 땅의 일부라도 계속 농사짓기를 매우 원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공비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찰 간부에게도 집의 재건과 마을 영유를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경찰 간부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무장대의 접근을 막는 데에 300명 이상의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입

28) Ibid.

29) RG 554,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Adjutant General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Decimal Files), 1951-55 Series, Report of the Twenty-ninth Meeting of the Joint ROK-UNCACK Resettlement Committee, 1953.5.16.

장이었다. 내무부 차관은 부산에 돌아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다고 밝혔다.

1953년 6월 말 제주도에 21,525명의 피난민이 있었다고 추정된다(<표 2>)

<표 2> 피난민 현황(1953.6.)

(단위: 명)

지역	현재 원주민 인구(A)	피난민					총인구 (A+C-B)
		북한 출신	서울 출신	남한 내 타 지역 출신	도내(B)	합계(C)	
서울	723,166	27,593	0	29,954	0	57,547	780,713
경기	1,835,606	252,494	247,716	48,560	364,677	913,447	2,384,376
강원	908,833	66,846	5,589	0	67,882	140,317	981,268
충북	1,037,000	18,869	80,977	55,452	0	155,298	1,192,298
충남	1,797,058	76,834	124,916	87,600	0	289,350	2,086,408
전북	1,851,692	120,792	70,690	54,981	38,584	285,047	2,098,155
전남	2,907,070	33,742	26,523	51,207	60,183	171,655	3,018,542
경북	2,898,212	52,320	110,300	89,216	19,055	270,891	3,150,048
경남	3,087,090	170,917	193,918	107,547	84,814	557,196	3,559,472
제주	244,894	10,045	5,720	3,743	2,017	21,525	264,402
합계	17,290,621	830,452	866,349	528,260	637,212	2,862,273	19,515,682

출전: UNC, *Civil Assistance and Economic Affairs-Korea 1952.7.1.-1953.6.30*, p.9, REFUGEES IN REPUBLIC OF KOREA 30 JUNE 1953(source: UNCACK)

<표 3> 월남민 현황(1952.1~1953.6)

(단위: 명)

조사 시기 및 주체 지역	1952년 1월 16~31일 UNCACK 30)	1952년 3월 사회부31)	1952년 3월 15일 UNCACK 32)	1952년 12월 사회부33)	1953년 6월 30일 UNCACK 34)
서울	23,722		15,758	16,355	27,593
경기	212,944		195,632	233,045	252,494
강원	65,317		64,610	44,462	66,846
충북	12,108		16,516	13,504	18,869
충남	103,346		55,720	57,527	76,834
전북	59,945		82,442	43,898	120,792
전남	30,689		32,446	159,892	33,742
경북	73,103		39,518	68,882	52,320
경남	126,233		146,764	39,753	170,917
제주	3,615		10,186	6,998	10,045
북쪽 섬	10,000				
합계	721,022	618,721	659,592	684,316 ³⁵⁾	830,452

30) RG 338, UN Civil Assistans Command, Korea (UNCACK), 1952, En UNCACK, Box 5753, Classified Command Report Files(1 Jan.-30 Dec. 1952), Korea Civil Assistance Command(2 of 2) 1952(이임하, 「한국전쟁기 유엔민간원조사령부의 인구조사와 통제」,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112~113쪽에서 재인용).

그 출신 지역별로는 북한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서울-육지 타 지역-제주도의 순이다. 38선 이북 출신의 월남민은 1952년 3월에 난민정착사업이 실시될 때부터 정착이 문제시되었다. <표 3>과 같이 전쟁기의 월남민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달랐다. 각 조사들은 모두 피난민 중에서 월남민을 분류하고 있다. 1952년 3월 시점에 그 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정부가 UNCACK과 다르게 과소 추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UNCACK의 3월 조사에 비해서도 1월에는 더 많은 수의 월남민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실제로 수치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1950년 12월부터 남하한 월남민이 1952년에는 정착하기 시작하며 피난민으로 추산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1953년 6월에는 그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도 정책 상 집단적으로 남하하는 월남민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⁶⁾

전쟁기 제주도는 정부의 피난민 대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제주도를 최후의 피난지로 삼으면서 동시에 최대한의 규모로 제주도에 피난을 보내고자 하였다. 제주도는 가장 먼 곳이었으나 대형 미군 수송함으로 집단 수송이 가능한 곳이기도 했다. 최대 10만 명의 피난민이 입도하게 되는 데에는 정부의 이러한 의지와 미군의 협력이 합쳐진 결과였다. 피난민의 복귀가 시작되고, 난민 정착사업이 실시되자 제주에서도 4.3사건 이후 복구와 함께 정착사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었다.

3. 이주와 개발: 고아·군인의 이주와 제주도 개발계획

제주도로 오게 된 피난민은 월남민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출신들과 함께 고아들도 있었다. 미 공군의 ‘고아대피작전(Operation of Kiddy Car Airlift)’으로 서울에 있던 고아들이 제주도에 보내졌다. 이 작전은 딘 헤스(Dean E. Hess, 1917~2015)의 업적으로 크게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즈 델(Russell L. Blaisdell) 중령, 멀 스트랭(Merle Y. Strang) 하사가 주도하

31) 社會部, 1952년 3월 15일 현재, 國防部, 『韓國戰亂二年誌』, 1952.4.20, D 22, 42. 戰災原因別統計表의 越南避難民.

32) UNC, *Civil Assistance and Economic Affairs-Korea 1951.7.1.-1952.6.30*, p.9 PUBLIC WELFARE REFUGEES IN REPUBLIC OF KOREA 30 JUNE 1952

33) 內務部 治安局, 1952년 12월말 현재, 國防部, 『韓國戰亂三年誌』, 1954.5.23, D 7, 19. 避難民數의 緯北避難民.

34) UNC, *Civil Assistance and Economic Affairs-Korea 1952.7.1.-1953.6.30*, p.9 REFUGEES IN REPUBLIC OF KOREA 30 JUNE 1953(source: UNCACK)

35) 원문은 685,316으로 오기.

36) 김귀옥은 전쟁기 월남민이 1950년 12월부터 51년 1월까지 두 달여 만에 일거에 이주했다고 했으나 정 전협정 직전에도 남하하였다.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68쪽.

였다. 블레이즈델(1910~2007)은 전쟁 발발 직후 미 공군 군목으로 들어와서 9월 말부터 고아를 돌보기 시작하다가 빈 학교 건물에 ‘서울 고아수용센터’를 만들었다. 1·4후퇴 시기에 1천여 명의 고아를 제주도에 보내기 위해 공군 사령관을 설득하여 일본에 있던 C-54기 16대를 동원하였다. 블레이즈델이 스트랭 하사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았고, 인천, 김포로 옮긴 끝에 제주도에 보낼 수 있었다.

이 고아 대피 작전이 미국에 알려지며 많은 원조물자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고아들이 제주도에 도착해서는 헤스가 마련한 제주농업학교의 시설에 들어갔다. 그런데 헤스가 1956년에 자서전을 쓰며 자신이 고아대피작전을 위해 제5공군 사령부에 전화를 해서 수송기를 요청했다고 하였다. 그가 제주도 고아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고 몇 차례 방문하여 기여한 바가 있었으나 대피 작전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헤스의 자서전은 1957년에 영화로도 제작되며 그가 ‘고아의 아버지’로 크게 알려졌고 그 공로로 한미 양국에서 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헤스는 자서전 인세와 영화로 인한 수익금을 한국의 고아를 위해 사용했으나 고아대피작전의 공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랭이 1957년에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블레이즈델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헤스는 영화 제작 전 작전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적은 일을 하고 영웅 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레이즈델은 헤스의 선행에 만족한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후 2001년 방한하여 영부인과 만나는 등 그의 활동이 한국에 알려졌고 광주 충현원에서 회고록을 번역출간하였다.³⁷⁾ 전쟁 시기에 제주도에 4개의 고아원이 있었고, 4개가 새로 설립되었다. 그 중 가장 큰 규모는 1951년 3월에 황온순이 인가받은 한국보육원이었다. 황온순은 제주도에 고아를 돌본 공로로 1952년 사회부장관 표창을 받았다.³⁸⁾

미군과 사회사업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고아는 생존이 절박했다. 입도한 후 봄이 되자 병약한 아이들은 죽고 건강한 아이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³⁹⁾ 하루에 한두 번씩 죽을 주었다고 하지만 부족해서 나무뿌리를 먹어야 했

37) Russell L. Blaisdell, John P. Kennedy, *Father of a Thousand-Kids of the Korean War-*, 2007(충현원을사랑하는사람들 옮김, 1,000명의 아버지, 충현원, 2011); Dean E. Hess, *Battle Hymn*, 1987(이동은 옮김, 『신념의 조인』, 도서출판 플래닛미디어, 2010, 287~392쪽); George F. Drake, 2004년 작성, 한국전쟁 아동 희생자 추모단체 홈페이지(<http://www.koreanchildren.org>, 검색일: 2016.12.1).

38) 1957년 통계에서 고아원 8개, 맹아수용소 1개에 1,361명이 수용인원이었고, 한국보육원은 338명이었다.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5~1957, 468쪽. 한국보육원에서 57년 11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서울 회경동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육원 홈페이지-법인소개 연혁(<http://www.hanguki.kr>, 검색일: 2016.12.8).

다.⁴⁰⁾ 정영철은 대구에서 제주도로 가게 되었다고 기억하였는데, 고아원에서 배가 고파서 부산으로 탈출하였다.

대구 동촌 비행기장에 가니께 콘서트(concert)⁴¹⁾를 지어놔는데, 우리들 또래들이 한 50명 정도 있으니께 마음이 놓이더라고. 거기서 배도 안 고프고 잘 얻어 먹고 있었는데 며칠 있으니께 포 소리가 평평 나더라고. [소리가] 자꾸 가차워 지니께, 헬기로 [우리들을] 제주도 갖다 내버려 버렸어. 제주도 무슨 고아원이야. 그런데 거기는 배가 고파서 못 건디는 거야. 하루에 아침에 한 아홉 시 돼서 강냉이죽 한 그릇 먹으면 그걸로 끝이여.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지. 거기서 6·25가 끝났어. 전쟁이 끝났다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전쟁 끝났는가보다 했는데 가족들 찾아가야 될 거 아녀. 그런데 거기서 안 보내주니까. 아마 한 열 몇 살 때 일 거야. 내가 그 때는 좀 성숙한 편이었었던가벼. 어른들이 입던 옷을 입었어. 굉장히 지루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몇 개월 된 것 같아. 그 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있었던 것 같아. ... 미국 목사가 위탁을 해놓은 고아원이여. 먹을 식량은 없고 애들은 많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부산으로 나왔어. 나중에 제주도 관광 가서 한 번 찾아볼라니께 도저히 못 찾겠네. 난 뭐 기억이 안나갖고. 어디에 있었는지, 바닷가에 물이 철렁거렸어. ... [제주도에] 여름에 들어갔는데 겨울에 나왔어. 입은 옷은 여름옷이라 얼마나 추워. 가을에 배가 출발했는데 부산에 오니까 겨울이여.⁴²⁾

제주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설치되며 이주해오는 군인들도 많았다. 백선엽은 제1훈련소는 1.4후퇴로 이승만이 중국군에 위협을 느끼며 유사시 제주를 최후의 거점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회고하였다.⁴³⁾ 전쟁 초기에는 육지에서 징집된 제2국민병이었다. 전쟁 당시 제2국민병이 2만 6천 명 가량 제주도 모슬포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었다. 차순홍은 1927년생으로 평양에서 월남하고, 전쟁기에 육지에서 강제 징집되었다. 그는 LST가 일본으로 가는 줄 알았으나 도착하고 나서야 제주도인줄 알았다고 한다.

이 배는 일본 자판(Japan), 요코하마 간다는 거예요. 고것까진 알았어. 야- 희망이 있더라고. 일본만 가면 사는 거 아니예요. 일본 원래 있었으니께 일본말

39) Dean E. Hess, 이동은 옮김, 앞의 책, 319쪽.

40) KBS 한국의유산-황온순(https://www.youtube.com/watch?v=xyS_S1kKflw, 검색일: 2016.12.1.); 2012년 7월 9일, 15일 구술, OH_012_006_정영철_006.

41) 콘서트(concert) 건물: 군대에서 사용하는 야전식 건물로서, 아치형으로 기둥과 보가 없이 지붕과 벽을 인체로 한 터널식 모형의 가설 건물. 전쟁 시 쉽게 건설하고, 철거 또한 간편한 철제 가설 건축물.

42) 2012년 7월 9일, 15일 구술, OH_012_006_정영철_006.

43) 「白善燁 回顧錄 軍과 나 (29) 山積한 문제를 풀다」, 『경향신문』 1989.1.26.

잘하겠다. 희망이 있었는데 딱 내리고 또 배에다 옮겨 싣더라고요 LST에다가. 게 LST가 와서 부리는데 보니까 산이 보여. 근데 이게 일본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두에 내리니까 고구마장사가 많-이 나와서 “잡수까 잡수까.” 뭐 이렇게 자꾸 “고구마”소리만 많이 해. 잡수까 잡수까 뭐 이러는데 이게 어디냐 그러니까 제주도래는 거예요.⁴⁴⁾

뿐만 아니라 국민방위군에 편입되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사회조직도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국민방위군이라는 거예요. 국민방위군. “그게 국민방위군이라는 게 뭐냐?” 물어봤대니까 현역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방에 있다가서 유사시에만 나가는 군대래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밥 두덩어리 맥이곤 하루 정일 응,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것만 배워대는 기야. 뭐 이렇게 “앞으로 가йт! 뒤로 가йт!” 하면서 그 주먹밥 하나 먹고는 하루 정일 그겁니다.⁴⁵⁾

제2국민병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경우, 다양한 형태로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중 ‘불순분자’가 섞여 있다는 의심은 제주도 치안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⁴⁶⁾ 훈련에서 낙오되거나 육지에서 속아서 들어온 장정들은 할 일을 찾지 못하여 난감했다. 신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칫 ‘공비’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었다.⁴⁷⁾

차순홍은 시험을 거쳐서 간부교육대로 들어갔었다. 중대장을 맡아서 부대를 이동시키던 중 이탈자가 발생하였고, 책임을 져야했다. 그 후 다시 부대원으로 들어갔다.

그 무슨 탈출구가 있어야 살 거 아니냐 하고 고민하던 때에 젊은 청년 중에 패기 있고 희망 있는 사람 신청하라. 그 1번으로 신청했어요, 무조건. 그 간부학교라고 그래서 또 장교 되는 줄 알았어, 그게. 그 1번으로 신청했어요. 거기 함덕 가서 시험을 봤어요. 기본만 그저 푹니다.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제각 합격

44) 2015년 5월 15일 차순홍 구술(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소장)

45) 위와 같음.

46) 허정 사회부 장관, 「비상사태 수습대책에 관한 긴급질문」, 『제2대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51.1.16.

47) 조광섭 의원, 「금강 이북 전제민 구출 급(及) 제2국민병 처우개선 및 제주도 조사 시찰 보고」, 『제2대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51.2.12.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입소했어요. 군대 추력(트럭)이 오더라고요. 합격된 사람들 신고서 그래 갔더니 모슬포예요. 모슬포 가 보니까 그 간부교육대라고 썼어요, 간판 보니까. 간부교육대, 간부교육대라.⁴⁸⁾

성산포에 부대를 또 이동, 절반 갈라가지고 보내는데 거기 또 중대장 책임을 또 지더라고요. 개래서 땃 백 명 또 인솔하고 갔어요. 그래 성산포에 가니까 네 명이 없어졌어. 도망갔어. 그래 내만 실컷 맞았어. 성산포에 가서. 그것도 기억이 있어요. 중대장 책임이라고. 왜 네 명 없냐 이기야.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거 안하고 그냥 부대원으로 들어갔어.⁴⁹⁾

제주도에 들어온 군인은 제2국민병 외에 현역병도 있었다. 민간인 피난민이 들어오던 시기에 군인의 입도도 계속 늘었다고 한다.

현역. 훈련받아서 일선에 나가는 겁니다. 총 쏘는 걸 배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소모되니까.⁵⁰⁾

군인이 뭐 2천명 3천명도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화순항으로 LST가 민간인들 들어올 땐데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군인이. 뭐 2천명이다 3천명이다, 5천명 됐다. 이거 맥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니까 쌀은 돼요. 군량미가 있으니까. 부식이 문제 아니에요. 뭐 맥여 살릴 겁니까. 그러니까 재정부 요원들이 급하니까 전-부 부식 사러 갑니다. 아침에는 추력 한 대하고 돈 백만원 가지고 나가는 기야요. 그 항목 보면 너는 돼지, 너는 무, 너는 배추, 너는 미역 이기 잼, 잼혀 있어요 품목이.⁵¹⁾

국민방위군 사건⁵²⁾으로 드러났듯이 모슬포 훈련소의 여건도 여의치 않았다. 군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우선 모슬포 훈련소 근처에 물이 없었다. 수용시설, 훈련시설, 병원시설도 미흡하고 식량 조달도 원활하지 못하였다.⁵³⁾ 당

48) 2015년 5월 15일 차순홍 구술(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소장)

49) 위와 같음.

50) 위와 같음.

51) 위와 같음.

52) 1950년 12월 17일부터 51년 3월 31일까지 간부들이 인원을 조작하여 금품을 착복하고, 양곡을 부정처분한 사건. 이 사건으로 부통령 이시영, 국방부 장관 신성모가 사임하였다.

53) 「白善燁 回顧錄 軍과 나 (29) 山積한 문제를 풀다」, 『경향신문』 1989.1.26.

시에 병사들은 간부들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굶주리지만 전쟁이라는 현실을 수긍하고 있었다. 김생금은 부부가 함께 피난 와서 남편이 모슬포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 역시도 열악한 식량 사정으로 쇠약해졌다고 한다.

훈련소에서 4개월 훈련 받는데도 먹은 게 너무 작아요, 밥이. 좌우간 이 밥 그릇에 밥 들어오는 거 보면 이렇게 깎아서 들어오는데 한 여섯 숟, 다섯 숟갈 먹으면 다 없어져요. 군대 숟갈이 크잖아요. 그걸로 한 땀 숟갈 먹으면 없어요. 하고 무슨 국도 들어왔는데 건더기는 하나도 없고. 소금국만 들어오고. 근데 그거 뭐 나라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후에 알아보니깐. 다-떼먹었어요. 군량미가 한 사람 앞에 하루 뭐 2홉인가 나온대요. 밥을 이만큼 줘야 된답니다. 근데 뭐 연대장 떼먹지, 대대장 떼먹지. 전부 지프차로 싣고 나간답니다, 쌀을. 이 놈저놈 다 떼먹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후에 아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배 굶는 겁니다.⁵⁴⁾

저 모슬포로 갔는데 모슬포서 훈련 받고 거기서 육지로 나갈 건지 배치될 건지. 그런데 내가 신자 어렸을 때 그거 하나 데리고 있는데 저 면회, 육지로 간다고 기별이 오니까 면회를 한 번 해야지 하고 갔어 모슬포로. 그런데 차도 없을 때라. 차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갔는데 가가지고서 보니까 눈이 쑥-들어가서 해골이야. 다 들어가서. 그 여름에 설사를 만나가지고 먹지 못하는데다가 그 다른 사람도 다. 그때는 군인이 먹을 게 조금백엔(밖에) 안 쫓으니까. 먹을 게 지방 군인은 호강이지. 그래가지고 한데. 아이고 그렇게 면회를 보고서는 나는 애기를 업고서 성산포 있을 땐데 집세를 오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불쌍해.⁵⁵⁾

제주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은 배치 없이 제대하거나 육지에 배치되었다가 제대하였다고 한다. 모슬포 훈련소 출신의 군인들 350여 명이 1985년 국군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 06전우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전쟁기에 06군번을 받았기 때문이다. 1987년 당시에 전구 10개 지회가 설치되었다.⁵⁶⁾ 모슬포 제1훈련소는 1956년 1월 1일에 해체되었고, 현재 지휘소, 막사, 의무대 건물이 남아있다. 1952년 5월에 당시 훈련소장 장도영이 건립한 강병대 교회는 그 건물이 남겨

54) 2015년 5월 15일 차순홍 구술(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55) 2015년 6월 3일 김생금 구술(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56) 「『06전우회』 激戰地 순례」, 『경향신문』 1987.6.1.

졌고, 민간인 신자가 중심이 되자 모슬포중앙교회로 개칭하였다.⁵⁷⁾

한편, 전쟁기 제주도는 피난과 이주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발 지역으로도 대두되었다. 1950년부터 제주도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경제안정위원회(ESC)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제주도개발위원회(CDC)의 구성과 활동을 결정하였다. CDC는 단장을 비롯하여 경제협조처(ECA)대표, 재무부대표, 농림부대표, 상공부대표 및 제주도지사의 6인으로 구성하였다. 제주도 내의 입지적 조건을 조사 연구하여 개발에 필요한 사업항목을 결정하는 동시에 그 사업에 필요한 ECA대충자금을 알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⁵⁸⁾

사업 첫 해에는 ECA자금 16억 4천만 원으로 간이주택 건설, 생산시설, 산림 벌채 등 개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⁵⁹⁾ 농림 개발, 토지개량, 수산 개량, 후생사업, 보건사업, 공공건물 증축, 도로 개량, 항만 개량, 수도시설, 통신 시설, 전기시설, 교통시설, 공업시설, 문교시설 등 14개 사업이 구상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도민들은 사업에 기대감을 갖게 한 정부를 불신하고 있었다.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지적되었다. 첫째 4·3사건 후 치안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전력(電力) 개발과 교통 등 기반시설이 미진한 점, 셋째 16억 4,000만 원으로 책정한 개발 자금을 정부가 결손을 우려하여 지급하지 않는 점이었다.

당시 제주도의 치안 문제는 가옥과 마을의 재건과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다. 서범석 의원은 경제 안정을 확립해야 치안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4·3사건 후 ‘부흥자금’을 마련했으나 소실된 가옥의 재건을 위해 한 호에 3,000~4,000원을 제공하여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재물을 채벌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빈민에게 재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다.

또한 피난민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교통 시설은 부족한 상태였다. 육지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선박이 목포, 부산에서 출항하지만 선박업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었고, 항구에 대형 선박이 기항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제주도 내 교통도 인구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다. 개발 자금은 ECA가 90%, 식산은행이 10%를 담당하려던 것에서 ECA가 식산은행을 통해서만 지불하도록 하면서 결손까지 담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⁶⁰⁾

57) 『두산백과』, 『디지털 서귀포 문화대전-모슬포중앙교회』

58) 「제주도개발단사업보고서」, 1951.3.25, 『일반국정관계서류철』(국가기록원, BA0135103).

59) 『민주신보』 1950.12.23.

60) 이종현, 조광섭, 서범석 의원, 「금강 이북 전제민 구출 급(及) 제2국민병 처우개선 및 제주도 조사 시찰 보고」, 『제2대 제10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51.2.12.

초기 구상처럼 다방면에서의 개발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였고, 육지의 공장들이 이전하고 기존 공장이 가동을 재개하는 정도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경인지구에서 들어올 공장이 세계고무, 한국피혁, 조일고무, 협신제약, 대성목재 등 7개, 기존 공장이 제주식품 등 6개소 공장 대표들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대책, 운영자금 및 원자재 공급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952년에 한국피혁, 한일공업, 남방산업, 벤아니기업 등 4개 업체만 식산은행 대출을 승인받게 되었다.⁶¹⁾

개발계획으로 볼 때, 원조기구와 정부는 제주도를 타 지역에 비해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시 제주도개발계획은 정부가 비계획적, 비현실적으로 기획하였고, 결국 현실화되지 못한 계획에 그쳤다. 제주도는 4·3사건 후 가옥과 마을이 채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직면하였다. 정부의 ‘종합개발’ 시도는 현지의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데다가 제주도가 전쟁 후방 기지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애초에 실현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발과 피난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으나 피난민은 그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새로이 들어온 공장에서 제주도 출신은 그나마 노동할 기회를 얻었으나 피난민은 그렇지 못했다.⁶²⁾

4. 난민에서 도민으로, 제주에 정착한 사람들

전선이 교착된 후 육지 내에서도 원주지로의 복귀가 이루어진 것처럼 제주도에 서도 육지로 복귀하는 피난민이 늘어났다. LST로 또는 개별적으로 부산, 서울 등 육지로 다시 떠났다. 제주도의 파괴된 마을도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의 전후 복구는 4·3사건 피해 마을과 난민, 전쟁 피난민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였다. 한국전쟁기 제주도로 피난 온 이주민이 정착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월남민 출신 기독교 교인들은 피난 과정과 초기 셋방살이에서도 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교회를 설립한 경우도 많았으며 마을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내에서 기독교 교세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⁶³⁾

피난민이 정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난민정착사업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 정부와 미국이 전국을 단위로 적극 추진하던 사업은 제주에서도 실시되었다. 난민정착사업은 최소한의 양곡과 주택자재를 주고 미개간지를 개간한 후 정착하게 한

61) 「제주도 개발사업 진척」, 『경향신문』 1951.5.3; 『민주신보』 1951.6.20.; 『부산일보』 1952.8.10.

62) 강창용 의원, 「지방 실정 보고 및 질문」, 『제2대 제11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1951.9.29.

63) 김아람, 「38선 넘고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 월남민의 제주도 정착 과정과 삶」, 『역사문제연구』 35, 2016, 224~233쪽.

다는 목표였다. 제주도에서는 4.3사건 난민과 육지 피난민이 동시에 정착사업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우선 정부는 4.3사건으로 인한 난민과 구분하여 육지에서 온 피난민을 조사하였다. 정착 방법에 따라 희망 세대를 <표 4>와 같이 영농 희망, 상업 희망, 양계·양돈·기타 축산을 포함한 유직(有職)으로 구분하였다.⁶⁴⁾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54년 말~1955년 초 제주도 내 육지 피난민은 1,146세대 4,529명으로 추산되어 전쟁기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중 제주도에서의 정착을 원하는 수는 748세대, 2,976명으로써 전체의 65%가량이었다. 이들의 약 45%가 영농을 원하였고, 약 35%가 기타, 약 21%는 상업 희망하였다.

<표 4> 제주도 내 육지 피난민 정착 희망 조사

구분 읍·면		피난민 총수		영농 희망		상업 희망		기타 유직(有職)		정착 희망자 합계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북제주군	제주읍	209	790	16	71	9	20	55	130	80	221
	애월면	137	526	85	358	5	26	11	37	101	421
	한림면										
	구좌면	194	907	23	118	12	57	28	129	63	304
	조천면	168	464	65	216	24	71	15	55	104	342
	계	540	2,223	124	547	26	103	94	296	244	946
남제주군	대정면			2	6			1	4	3	10
	안덕면	79	321	14	56	6	21	23	94	43	171
	중문면	26	90	9	38	17	52			26	90
	서귀면	192	804	45	241	55	172	92	391	192	804
	남원면	12	43	4	16	1	3	2	10	7	29
	표선면										
	성산면	129	584	71	368	30	120	28	96	129	584
합계		1,146	4,529	334	1,488	159	542	255	946	748	2,976

출전: 남제주군수, 「정착사업 자료조사에 관한 건」, 1954.12.10; 북제주군수, 「정착사업 자료조사 실시에 관한 건」, 1955.2.4, 『1469난민정착(4.3사건피해상향조사)』, 1955 (국가기록원 BA0178704)

도 당국은 피난민 조사를 실시하면서 자기 소유 토지가 없는 자에게 읍면 내 휴간지를 알선할 계획을 수립할 것, 농구 및 주택 건축 자재를 도에서 분급할 것, 종곡은 도에서 알선할 것이며 식량은 정착난민 구호계획에 의하여 구호미를 지급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⁶⁵⁾

64) 제주도지사, 「정착사업 자료조사 실시에 관한 건」, 1954.11.17, 『1469난민정착(4.3사건피해상향조사)』, 1955 (국가기록원 BA0178704)

65) 제주도지사, 「정착사업 자료조사 실시에 관한 건」, 1954.11.17., 『1469난민정착(4.3사건피해상향조사)』, 1955(국가기록원 BA0178704).

또한 도 당국은 1954년 11월 20일 각 군수에게 목재 수요량 조사를 지시하였다. 이 조사는 정착할 피난민 중에서 목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거나 보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유림의 벌목 허가를 주선하기 위해서였다. 제주도구호위원회가 제공했던 것과 같이 건축용과 보수용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결과, 북제주에서 3,317세대(건축용) 및 2,625세대(보수용)와 남제주에서 1,884세대(건축용) 및 1,425세대(보수용)가 신청하였다.⁶⁶⁾

제주도 당국은 “수복할 수 있는 치안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으로 1954년의 각 읍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1955년 봄부터 정착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4·3사건 난민 2,074세대와 피난민 및 실업난민 898세대로 총 2,972세대의 귀농 정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사회부 및 농림부 장관과 한국민간원조사령부(KCAC) 제주도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아울러 사업에 소요되는 구호미, 건축자재, 농기구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2,074세대의 읍·면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정착사업 계획이 마련된 지역은 12개 읍면 중 8개 지역이었고 남원면, 애월면, 안덕면이 사업 전체 인구수의 약 74%를 차지하였다. 경지면적은 제주읍의 통계가 없으나 남원면이 가장 컸고, 그 중에서도 의귀리 월산동이 2,450, 남원리 서의동이 1,750을 차지하였다.

4·3 난민 외의 898세대는 피난민으로 분류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피난민 341, 용사촌 정착 30, 부흥단 관계 517, 아라리 관계 10세대였다. 제주의 용사촌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육지에서의 경우, 상이군인의 집단 정착지로 조성된 마을이다. 부흥단은 사단법인 상운산업부흥단 제주지단을 가리킨다. 아라리에서는 1952년 4월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44동 57세대로 마을의 과반수가 소실된 일이 있었다. 이때 생겨난 난민으로 추측된다.⁶⁷⁾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사업으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법호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법호촌은 월남한 피난민 출신의 기독교 장로가 시온교회를 세우고 난민정착사업을 계획하며 피난민이 모인 후 형성된 마을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식량과 자재가 전혀 유입되지 않으며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한라산에서 벌목 등을 하며 매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다.⁶⁸⁾ <표 5>의 당시 사업 대상자 명단을 통해 보면, 가족수는 평균 4.8명이고, 세대별 노동능력자수는 2.3명이다. 특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장은 개간 및 농사

66) 위와 같음.

67) 「我羅里部落에 大火」, 『경향신문』 1952.4.23.

68) 김아람, 앞의 논문, 4절 참조.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없다. 출신 지역별로는 제주 출신도 소수가 있으나 육지 피난민이 대종을 이루고, 특히 북한 출신이 다수였다.

<표 5> 제주 법호촌 난민정착귀농단 단원 명부

현주소 (남제주군 서귀면)	세대주 성명	가족 수	노동능 력자수	가족 중 특기	본 적
남성리	오O문	4	2		남제주군 서귀면 동흥리
호근리	현O규	7	3		남제주군 서귀면 호근리
하효리	이O식	4	3		평안북도 박천군
하효리	우O운	3	2		평안북도 희천군
호근리	이O진	8	4		황해도 풍산군
호근리	김O작	6	2		남제주군
호근리	김O경	4	2		남제주군
호근리	허O부	5	2		남제주군
호근리	오O부	4	2		남제주군
법환리	강O운	9	3		남제주군
서귀리	정O운	4	2		경상도 남해군
서귀리	김O생	5	3		경상도 남해군
서귀리	박O복	5	2	목공	평안남도
서귀리	강O열	8	5		평안남도
서귀리	김O규	7	2	약초재배 경력	황해도
서귀리	강O해	5	2		서울특별시
서귀리	김O순	3	3	미싱	평안남도
서귀리	최O후	7	2	양? 축산	평안남도 순천군
서귀리	정O희	6	2		황해도
서귀리	이O선	6	1	古靴수선	전남 완도군
서귀리	정O규	6	2	약?	제주도
서귀리	정O익	5	2		평안북도
서귀리	정O심	3	2		평안북도
서귀리	박O식	5	2		전남 광주군
서귀리	김O구	6	2	약초재배 경력	황해도
서귀리	이O화	5	2		평안남도
서귀리	김O화	4	3		평안남도
호근리	박O순	4	2		전남 장성군
서귀리	황O택	3	2		황해도
서귀리	김O성	5	2		
서귀리	김O복	4	2		
서귀리	김O우	6	3		
서귀리	박O생	8	4		

현주소 (남제주군 서귀면)	세대주 성명	가족 수	노동능 력자수	가족 중 특기	본 적
서귀리	김O옥	3	2		함경남도
서귀리	김O순(여)	5	2		함경북도
서귀리	김O종	4	4		함경남도
서귀리	김O수	5	2		함경남도
서귀리	김O중	5	3		함경남도
서귀리	김O규	7	5		평안북도
서귀리	장O인	3	3		평안북도
서귀리	김O균	3	2		평안북도
서귀리	김O희(여)	6	2		평안북도
서귀리	현O애(여)	4	1		평안북도
서귀리	김O자(여)	2	2		경기도
서호리	이O혁	4	2		평안북도
서호리	강O규	3	2		평안북도
서호리	김O	2	2		평안북도
서귀리	오O범	2	1		평안남도
서귀리	김 ?	6	3		함경북도
서귀리	김O선	4	2		전라북도
서귀리	이 O	3	3		평안북도
서귀리	이O열	5	1		평안북도
서귀리	함 O	4	1		평안북도
보목리	임O실	2	1		평안남도
서귀리	송O호	4	2		평안남도
서귀리	이O순	2	2		평안남도
서귀리	김 O	2	2		평안남도
서귀리	박O범	5	본?		평안남도
서귀리	방O호	2	2		황해도
서귀리	최O옥	6	4	상인	황해도
서귀리	이O아(여)	6	2		황해도
서귀리	박 O(여)	6	2		경기도
서귀리	박O익	9	4	상인	충청남도
서귀리	정O생(여)	3	2		충청남도
서귀리	이O원	1	1		충청남도
서귀리	김 O	7	1		경상도
서귀리	강O국	5	3		경상도
서귀리	임O신(여)	6	1		함경남도
서귀리	조O구	4	2		평안북도
서귀리	고O열(여)	5	1		황해도
서귀리	안O삼	3	2		황해도
서귀리	김O범	5	2		함경남도
서귀리	이 O	6	4		함경남도
서귀리	이O모	6	3		함경남도
서귀리	장O식	4	4		평안북도
서귀리	이O희	4	1		평안북도
서귀리	김O현	6	3		평안북도
서귀리	오O룡	9	4		함경남도
서귀리	오O룡	7	2		함경남도
서귀리	이O홍	6	3		평안북도

❖ 2017년 (사) 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현주소 (남제주군 서귀면)	세대주 성명	가족 수	노동능 력자수	가족 중 특기	본 적
법환리	이O범	2	2		평안북도
서귀리	홍O규	2	1		경상도
서귀리	윤O이	7	2		전라북도
법환리	김O호	5	3		전라북도
서귀리	김O산	2	2		평안남도
서귀리	최O실	4	1		경상도
서흥리	이O순	1	1		경상도
서귀리	백O이	2	1		평안북도
서귀리	이O혁	4	2		함경북도
서귀리	김O수	3	1		평안북도
서귀리	이O규	4	3		황해도
서귀리	송O호	6	2		평안남도
서귀리	옥O실(여)	7	5		평안남도
도평리	김O한	5	2		평안북도
서귀리	백O정	6	4		평안북도
서귀리	박O석	6	2		충청남도
서귀리	홍O규(여)	1	1		경상도
서귀리	이O규(여)	5	1		강원도
서귀리	김 O(여)	5	2		경상도
서귀리	신O화(여)	1	1		경상도
서귀리	황O기	1	1		경상도
서귀리	박 O	6	2		경상도
중문리	김O현	9	3	목공	제주도
중문리	강O운	12	4		제주도
서귀리	이O우	12	5		
합계	105	479	229		
출전: 「남제주군 난민정착귀농단 단위 명부」, 『1469난민정착(4·3사건피해상향조사)』, 1955 (국가기록원 BA0178704)					

제주도에서 정착사업은 피난민과 4.3사건 피해 난민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5·16쿠데타 후에도 재차 추진되었다. 전국적으로도 ‘난민정착사업’은 1960년대 전반까지 계속되었다. 1960년까지 난민정착사업은 1,685개 사업장에서 실시되었고, 43만 6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에서는 175개 사업장에 813세대, 2만 7천 4백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사업은 원칙적으로 피난민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구호대상자들이 광범하게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원이 피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정착한 피난민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업자, 영세민, 이재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69) USOM, The Summary of Statistics of A and R Project in Korea(宋柱仁, 「韓國의 難民定着事業과 家内手工業에 關한 考察」,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61, 21쪽, 표 1. ‘난민정착상향’

제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63년 제주도청 사회계장에 의하면, 1962년 현재 이재민 15,228세대(80,065명) 가운데 7,524세대(39,916명)가 자력으로 복귀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7,704세대(40,149명) 중 복귀희망자 3,965세대(17,915명)에 대해 도에서 2개년 계획으로 복귀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⁷⁰⁾

즉, 정착사업은 전쟁 피난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 전반으로 확대되어갔다. 제주는 4.3사건 진압과 전쟁의 발발로 도 내외에서 거주지를 잃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정착사업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생존 기반이 없거나 부실한 이주민들도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삶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마을은 어떠한 과정으로 복구되었는지, 1950~60년대 정착사업을 매개로 중앙 정부와 제주가 어떻게 상호연관을 맺었는지 등 해명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5. 맺음말

제주는 전쟁기 최후의 피난 지구로 명명되며 최대 규모의 피난이 기획되었다. 거제도, 군산과 더불어 사회부 차원에서 구호에 직접 관여하는 곳이기도 했다. 한미합동으로 추진한 난민정착사업에서도 제주는 실무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사업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3사건의 파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당시 농민들은 농사를 재개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전쟁기 제주도에는 북한 출신의 피난민, 육지 타지역 피난민뿐만 아니라 공군 작전으로 이송된 고아와 징집되어 군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고아대피작전’은 미국의 고아 원조가 촉진되는 계기였으나 그 주체와 성과가 과장된 면이 있다. 모슬포의 제1훈련소는 열악한 환경과 국민방위군 고위직의 부정이 얹혀 피폐한 상황이었다. 제주도는 개발 지역으로도 주목되어 대규모의 사업이 기획되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제주도에 남은 이주민들은 난민정착사업의 대상이 되었으나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는 마을 사업장별로 파악되어야 한다. 법호촌은 실행되지 않았고, 빈곤한 마을이라고 하여 차별을 경험한 바 있었다.

전후 제주도 이주민의 정착 과정은 전쟁의 사회사에서 중요한 면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난민, 고아, 군인으로 제주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기억이 복원될 필요가 있겠다. 북한 출신 월남민은 이북5도민회

70) 金仁和(제주도청 사회계장), 『제주도』 제8호, 1963.

제주지소가 활동을 하고 있으나 1세대가 고령화되었고 이념의 강박으로 인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고아나 군인 출신은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지역에서 기억을 발굴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1960년대까지 전후 복구사업의 핵심이었던 난민정착사업이 제주에서도 계획되어 170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법호촌 외의 사업장 마을이 파악될 필요가 있겠다. 4.3사건과 전쟁 후 마을이 복구되는 데에 사업은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를 통해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개발계획 이전에 지역이 자체적으로 피해를 극복하고자 하고, 지역민이 노력해왔던 역사가 복원되기를 희망한다. 제주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데, 전쟁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역사와 지역의 특징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이주민의 정착 과정이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토대이며 전후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통로라 생각한다.

冊 2017 제주학회 학술대회-학술토론회

산업화시기의 제주이주민 :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

염 미 경(제주대 교수)

1. 머리말
2. 논의의 배경과 연구 방법
3. 산업화 시기 제주이주민의 지역 정착과 사회연결망
4. 맺음말

1. 머리말

제주는 1987년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을 전후해 인구유입이 급증하면서 2013년 8월 인구 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제주인구는 66만 명을 기록하였다. 특히, 2010년을 전후부터 국내의 타 지역에서 제주로의 이주는 신이민시대로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제주의 인구 변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의 외국인주민 수는 외국인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제주 전체 인구의 0.5%(제주 561,695명, 외국인 2,645명), 2009년에는 1.2%(제주 567,913명, 외국인 2,645명), 2011년에는 1.5%(제주 583,284명, 외국인 8,499명), 그리고 2014년에는 15,568명으로 거의 7배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 외국인주민의 성장속도는 매년 거의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민자의 수는 2008년 1,201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696명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주이주민의 증가 추세는 전지구화에 따른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에 따

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다 귀농·귀촌인구 및 거주희망은퇴자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관광개발, IT기업의 이전, 국제학교 유치와 투자 유치에 따른 이주 등 제주지역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인구유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제주의 인구증가는 전국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등의 이주와 국내 타 지역에서 제주로의 인구유입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이처럼 제주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당국은 2014년 4월 귀농·귀촌, 다문화, 외국인 등을 포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¹⁾’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의 지역 적응을 지원하고자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²⁾.

그런데 타 지역에서 제주로의 인구유입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 이주와 1960년대 산업화와 감귤산업의 성장 및 관광개발 등으로 제주는 이미 타 지역민 이주가 증가했었다³⁾. 즉 국가 간 이동에 의한 제주의 인구증가는 2000년을 전후해 나타난 전국적 현상인 반면,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는 2010년 전후부터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1960년대 제주개발 붐이 일고 감귤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미 제주는 인구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대적 의미의 이민시대를 열었던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2. 논의의 배경과 연구 방법

1) 논의의 배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민 수용소와 군사훈련장인 육군훈련소가 제주에 설치되면서 한국전쟁기 내내 피난민의 유입지 역

-
- 1)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주민을 정착주민으로 명명하였고, ‘외국 혹은 타 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정착주민으로 정의하여 국가 간, 지역 간 이동에 의한 이주자(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직장 및 교육 이주 등)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주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하며, 제주에서 현대적 의미의 첫 이민시대를 열었던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 2) 염미경, 「이주민과 제주사회 함께 살아가기」, 『평화, 여성, 미래: 제주사회 평화 실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개원2주년 기념 여성·가족정책 국제포럼 자료집』, 2016, 61-76쪽.
 - 3) 이를 배경으로 하여 1987년 당시 제주는 50만 시대를 열었고, 2013년 8월 인구 60만 시대를 맞이한 후 현재에 이른다. 이에 대해서는 이창기,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출판부, 1999와 염미경,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6(1), 2015를 참조바람.

할을 하였다⁴⁾. 제주의 피난민은 87,000명이었고 그 가운데 5개 수용소에 집단 거주하는 피난민은 67,000명에 달했다⁵⁾. 1950년 7월 16일부터 제주·한림·한림·화순 항을 통해 1만여 명의 피난민이, 그리고 1951년 1·4후퇴 후 북한주민들을 주축으로 수만 명의 피난민이 제주로 왔는데, <표 1>에 의하면 피난민 수는 1951년 1월 3일까지 16,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1월 16일에는 87,000여 명, 5월 20일에는 148,000여 명에 이르렀고, 이는 제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었다⁶⁾. 피난민들은 1951년 6월 6일 피난민협회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난민과 토착제주지역민 간 갈등이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피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제주지역은 주택난이 가중되었고 식량을 비롯한 구호물자의 부족, 식수난으로 인해 제주는 포화상태였으며, 피난민과 토착지역민 간 이념적 갈등도 있었다⁷⁾.

<표 1> 한국전쟁 직후 제주인구 현황

시 기	제주도민	피난민	총계
1951 1. 16	248,867	87,000	335,867
1951. 4. 8	248,867	71,228	320,095
1951. 5. 20	238,867	148,000	396,897
1951. 8. 25	299,715	51,040	352,755
1951. 10. 15	299,715	31,344	331,059

자료: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조사자료; 양정심(2009: 130)에서 재인용

이렇게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제주에 온 피난민 중 일부는 제주에 정착하였다. 해방직후의 월남민, 한국전쟁 때 제주에 온 피난민, 1·4후퇴 때 온 피난민 중 제주에 정착한 이북도민 1세대는 2013년 기준 약 8,900명 정도로 이들은 제주지역민으로서 자리매김해 있다⁸⁾.

이처럼 한국전쟁 직후 피난처 역할을 했던 제주는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제주가 편입되면서 또다시 인구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제주는 지역개발 붐이

4) 양정심, 「한국전쟁기 제주지역사회의 변동」, 『사학』, 33, 2009; 박찬식, 「한국전쟁과 제주지역사회의 변화: 4.3사건과 전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27, 2010.

5) 「민주신보」, 1951. 1. 17; 양정심, 앞의 글, 132쪽에서 재인용.

6) 양정심, 앞의 글, 130쪽.

7) 양정심, 위의 글, 132-135쪽; 박찬식, 앞의 글 참조.

8) 문순덕·염미경, 『제주 이주민의 지역 정체성 정립에 관한 기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4; 염미경, 앞의 글, 2015, 56쪽.

일었고 감귤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주는 급속한 인구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상도 매우 복잡해졌다⁹⁾. 1960년대 이후 제주의 인구성장률을 보면, 전국평균치를 훨씬 상회하였는데 1960-66년의 제주지역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10%로 전국의 인구성장률 2.79%보다 0.31% 높게 나타났는데, 이 기간 제주인구가 증가한 것은 고출생률의 지속과 제주지역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창기, 1999: 39).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60년대 이후 제주의 출생지별 인구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1960년 95.4%, 1970년 93.7%, 1980년 88.8%, 1985년 86.9%, 1990년 84.9%로 제주 출생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 제주 이외 지역에서 출생한 제주지역민의 출생지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가장 많다는 점인데, 특히 1970년과 1980년에는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타 지역 출생자의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2> 참조), 이는 제주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주·전남지역에서 충원한 결과로 볼 수 있다¹⁰⁾.

<표 2> 제주지 이외 지역 출생 제주지역민의 출생지 분포 (단위: %)

연도	타도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기타
1960	100.0 (12,912)	4.2	3.2	1.1	0.8	1.4	2.4	29.9	2.1	8.0	46.9
1970	100.0 (26,803)	6.8	4.0	2.4	1.8	4.4	6.0	42.2	5.4	11.9	15.1
1980	100.0 (51,017)	8.8	3.9	3.4	2.3	4.9	5.4	42.9	5.9	12.0	10.6
1985	100.0 (64,018)	11.4	5.5	3.3	2.4	5.2	5.7	37.0	7.0	15.0	7.6
1990	100.0 (76,356)	11.7	6.1	3.5	2.2	5.8	5.2	34.8	7.9	17.3	5.5
1995	100.0 (80,314)	14.2	8.1	3.7	2.4	5.1	5.1	29.3	7.7	18.3	6.1

주: 기타에는 북한 출생자와 외국 및 미상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이창기, 위의 책, 92쪽에서 재인용(각 년도 국세조사보고서).

9) 이창기, 앞의 책, 15-16쪽; 엄미경, 앞의 글, 2015, 62쪽.

10) 이창기, 위의 책, 91-93쪽.

그러나 1980년 전후부터는 이러한 유입인구의 지역분포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광주·전남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인구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는 대신 서울 지역이나 부산·경남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표 3> 참조). 즉 1990년대 초반에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비율이 10% 정도 떨어지고, 대신에 인천·경기지역이 15%를 상회하면서 제주 인구의 주요 유입지로 부상하게 된다¹¹⁾.

<표 3> 제주 유입인구의 지역분포

연 도	타도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기타 (외국)
1965-70	100.0 (14,925)	15.7	5.7	3.1	1.5	4.3	5.4	36.8	8.5	16.7	2.3
1970-75	100.0 (20,056)	19.9	6.7	3.5	1.4	3.1	4.5	38.1	4.5	16.6	1.7
1975-80	100.0 (21,474)	23.4	5.2	3.0	1.2	4.0	3.4	28.5	6.5	16.4	8.4
1980-85	100.0 (25,421)	30.6	8.8	3.0	1.3	3.6	3.5	17.4	6.7	22.5	2.6
1985-90	100.0 (29,107)	29.0	10.3	3.6	1.1	4.2	3.1	15.9	7.5	23.8	1.5
1990-95	100.0 (32,124)	28.4	15.3	2.3	1.5	2.6	3.3	10.3	5.9	25.5	4.9

(단위: %)

자료: 이창기, 위의 책, 95쪽에서 재인용(각 년도 국세조사 보고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까지 제주의 인구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제주4.3과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관광개발 및 감귤산업의 성장이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제주로의 인구유입과 이로 인한 제주의 인구변동이 한국전쟁이나 개발사업 추진 등과 같은 특수 상황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이러한 제주로의 인구유입은 그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이는 꾸준히 진행된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 등 제주 외적 요인과 감귤산업 성장에 따른 제주농업의 특수성과 관광개발 등 제주 내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¹²⁾.

11) 이창기, 위의 책, 95-96쪽; 염미경, 앞의 글, 2015, 64-65쪽; 염미경·문순덕, 「산업화시대 이주자 공동체로서 향우회의 역할과 변화」, 『한국민족문화』, 61, 2016.

12) 이창기, 위의 책과 염미경, 앞의 글, 2015를 참조바람.

한국은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주민들은 당연히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즉 한국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의 강한 영향력 하에 연고를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는 전통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귀속적 특성에 기반을 둔 모임이 사회생활의 주된 준거가 되었다¹³⁾. 일자리를 찾아 출신지를 떠나 타지로 온 이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향우들을 만나 유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타지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향우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기를 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이주민들의 결집체로서 향우회들이 결성되게 된다¹⁴⁾.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산업화시기 자신의 출신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 그것도 제주라는 섬 지역에 적응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연고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사회연결망으로서 연고를 잘 활용하기 위해 정착 초기에 특정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¹⁵⁾. 자신의 연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그 연결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결망까지 활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집적해 거주함으로써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데 필요한 자원인 호혜성, 연대성, 동향인이나 동족에 대한 배려, 정보망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정착 초기 동족 혹은 동향 집단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주민들의 집중거주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를 사례로 해 산업화와 지역개발 붐 속에서 제주로 이주한 호남인들이 제주지역 내에 형성했던 ‘해남촌’ 또는 ‘전라도동산’이라는 집중거주지에 대한 염미경의 연구¹⁶⁾가 주목할 만하다.

사회연결망은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확산되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은 사회연결망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자원 그 자체(Bourdieu, 1986), 혹은 그러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Lin, 1999)을 의미한다¹⁷⁾. 한국사회와 관련해서는 유석춘·장미혜¹⁸⁾와 유

13) 이재열·남은영, 위의 글, 182쪽.

14) 향우회는 규모별로 광역시 또는 도(道) 단위 도민회, 시·군·면 단위 향우회가 있다. 강경주, 「재인 충남인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충남향우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쪽.

15) 이에 대해서는 Faist, T.,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ditional Social Spa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및 염미경,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제주도연구』, 35, 2011; 염미경, 위의 글, 2015, 염미경·한상희,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의 특성 분석과 중학교 지역학습자료의 구성」, 『시민교육연구』, 46(2), 2014를 참조바람.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 앞의 글, 2011과 2015를 참조하기 바람.

석춘·장미혜·김태은¹⁹⁾), 김용학²⁰⁾과 이재열²¹⁾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유석춘·장미혜²²⁾와 유석춘·장미혜·김태은²³⁾은 한국사회만이 갖고 있는 사회자본의 풍부한 원천으로서 다양한 연고집단이 지닌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김용학²⁴⁾과 이재열²⁵⁾은 연고집단의 특성상 귀속적인 지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한 결속력 속에 감추어진 내부규율과 동조화의 압력이 있을 수 있어 공적 신뢰를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폐쇄성과 보수성을 갖고 있음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연구자들이 사회연결망과 사회자본에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특정 연계를 통해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와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사회연결망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이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지원형태와 만족도 등 개별 행위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다²⁷⁾. 그리고 이주민의 사회연결망에는 혈연과 학연, 지연에 의한 사회연결망과 현지 토박이와의 연결망으로 나뉘볼 수 있지만 산업화시기 이주민들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 논문에서는 주로 전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경제적 동기로 자신의 출신지역을 떠났던 산업화시기 이주민들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것이 거주지선택과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정착, 그리고 사회·심리적 안정일 것이다. 사회연결망에 대한 연구들 중 사회연결망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이 노동시장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즉 취업에서 연결망을 통해 활용한 자원이 효과가 있었다는 연결망의 효과를 다룬 연

17) 최정호·박선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특성이 거주지 선택에 미친 영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2014, 84쪽.

18) 유석춘·장미혜,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부문과 사회발전: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0(2), 1999; 유석춘·장미혜, 「한국사회와 사회자본」,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2003.

19) 유석춘·장미혜·김태은, 「동아시아의 연고집단과 세계화」, 유석춘(편저),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2000.

20)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2003.

21) 이재열,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사상』, 37, 1998; 이재열, 「의리인가 계약인가?: 인격주의와 개인주의 갈등적 공존과 한국사회의 제 문제」, 석현호·유석춘(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 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2001.

22) 유석춘·장미혜, 앞의 글, 1999와 2003.

23) 유석춘·장미혜·김태은, 앞의 글.

24) 김용학, 앞의 책.

25) 이재열, 앞의 글, 1998과 2001.

26) Mitchell,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 Analysis of Personal Relationship in Central African Town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69.

27) Weiss, The provision of social relationship, in Rubin, Z. (ed.), *Doing unto others: joining, molding, conforming, helping, loving*, New Jersey: Prentice Hall, 1974; Ong and Ward,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ocial support measure for sojourners: The index of sojourner social support(ISSS) sca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6), 2005.

구²⁸⁾, 연결망으로 인해 직업적 지위, 승진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²⁹⁾가 있다. 대체로 사회연결망은 이주민들의 이주와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데,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의 사회연결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주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주한 동향인과의 연결망이나 지원은 이주민들이 거주지나 일자리 찾는 과정에 인큐베이터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안정도 중요한데, 집합적 삶을 중시하는 한국인에게 있어 연결망은 지역집단의 성격에 관계없이 개인과 연결된 타자들의 집합으로서 인맥 형성의 중요한 준거점이자 원초적 유대감을 형성시켜주는 자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³⁰⁾.

인구이동은 두 지역 사이에서 일어나며 단위 지역은 크게 국가와 국가 내 지역의 둘로 나눌 수 있는데³¹⁾, 이 논문은 국가 내 지역 간 이동에 주목하며, 1960년대 산업화와 지역개발 붐 속에서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둔다. 제주로의 이주열풍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라면, 과거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사람들이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며 제주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정착해나갔을까? 이 논문은 이러한 기본 질문에 시작하여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의 지역정착을 사회연결망의 동원과 지역집단으로서 향우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이 논문의 연구 범위와 대상은 산업화와 지역개발 붐 속에서 제주로 이주한 현대적 의미의 제주이주민이다. 제주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시기에 관광개발과 감귤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함으로써 1980년대까지 서울, 부산과 함께 대규모 인구유입을 경험한 지역으로, 산업화시기 이주민들 중 자신들의 생활터전이었던 출신지역을 떠났던 대표적인 이주민집단이면서 대부분 농어촌출신인 관계로 집단주의, 연고주의, 친분주의와 같은 전통적 농어촌공동체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한국의 산업화시기 지역 간 인구이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³²⁾.

28) 관련 연구로는 Lin et al., 1981; Hsung&Sun, 1988; Masden & Hulbert, 1988; De Graaf & Flap, 1988; Meyerson, 1994; Lee & Brinton, 1996; Bian & Ang, 1997 등이 있다.

29) 관련 연구로 Lin, N..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1999.가 있다.

30)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1979; 이재열·남은영, 앞의 글, 184쪽.

31) 권태환 외, 『사회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6, 283쪽.

3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 앞의 글, 2015를 참조바람.

우선 제주는 국가 중심부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변방으로서 지리적 협소성과 자원의 한정성 그리고 제주4.3을 겪으면서 역사적 어려움이 많았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피난민과 포로수용소, 육군훈련소라는 후방의 역할을 담당해 피난민의 유입이 두드러진 지역이었으며,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농이 본격화하던 시기 정부 주도의 관광개발과 최대 농산물인 감귤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함으로써 농촌근대화 열풍이 불었던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이 제주지역이다.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호남의 농어촌, 특히 지리적으로 근접한 광주·전남지역 사람들에게 제주는 서울, 부산 등과 함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으로 인식되었으며, 당시 제주로 들어가는 뱃길이었던 목포-벽파진-추자도-제주 노선은 제주로 가기 위한 집결지 역할을 했다³³⁾. 다음으로, 산업화시기 제주정착 호남인 사례는 지역집단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과 과정을 거쳐 이주지에서 집단적으로 결집해나가고 지역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지 등 특정 지역에서 지역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어떻게 결집해 지역집단으로 성장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의 정착과정과 사회연결망을 호남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 시기 제주의 출생지별 인구구조에서 제주 이외 지역에서 출생한 제주지역민의 출생지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 고려되었다(앞의 <표 2> 참조).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문헌자료와 심층면접자료가 활용되었는데, 문헌자료에는 향우회 발간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및 통계자료, 행정기관 및 인터넷 검색 자료가 포함되었다. 심층면접대상자 선정은 지역의 호남 향우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주로 제주시 호남향우회³⁴⁾와 서귀포시 전남도민회를 방문해 향우회의 회원명부에서 소수를 소개받고 이들을 매개로 심층면접대상자를 확대해나가는 눈덩이표집방법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는 1차로 2011년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1960년대 전후부터 1970년대 초반에 제주에 온 1세대 이주민들에 대한 생애사 중심의 심층면접자료가 집중적으로 수집되었다. 2014년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2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차 조

33) 전라도 서남부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교통로에 대해서는 주희춘,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출판사, 2008과 엄미경, 위의 글, 2015를 참조바람.

34) 제주시 전북도민회는 제주시 호남향우회에서 1975년 5월 분리된 경우로, 처음에는 친목회로 존재하다가 1976년 5월 10일 전남도민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며, 산하에 9개의 시·군 단위 향우회를 두고 있고, 최근 다시 호남향우회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호남인 집단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사 시의 심층면접대상자는 제주 이주1세대 17명³⁵⁾, 제주지역 지역향우회 관계자 20명 등 총 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의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

1) 이주경로 및 동기와 사회연결망

제주개발 붐이 일면서 섬지역인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주경로는 어떠했고 이주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제주는 국가 중심부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최고주변부로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개발과정에서 지역변동을 경험했으며, 제주 출생자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곳이었던 반면, 개발이 시작되면서 전라도 등지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는 전라도는 제주와 비교적 근거리이고 해상교통이 있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목포는 전라도 서남부지역 사람들이 제주로 가는 뱃길로 목포-벽파진-추자도-제주 노선이 있었다³⁶⁾. 현재는 1979년 4월 17일부터 운행한 완도-제주 간 뱃길이 있지만 그 이전 강진, 해남, 완도, 장흥, 영암지역 사람들이 제주를 가기 위해서는 전남 진도군 벽파진이나 목포로 가야 했다. 특히, 당시 벽파진은 당시 제주로 가는 뱃길의 중심지였고, 벽파항은 제주에 오려는 전라도 사람들의 집결지이자 주요 경유지 역할을 했다. 보성이나 순천 등 전남지역 동부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목포로 가서 배를 타는 경우가 많았고, 구례나 곡성, 담양사람들도 버스를 이용해 목포로 가서 배에 오르는 게 제주로 가는 일반적인 경로였다³⁷⁾.

이렇게 하여 제주항에 도착한 호남인들은 제주이주 초기에는 저변층 일용노동자로서 제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제주 이주민들의 이주 동기는

35) 2차 조사 시의 심층면접대상자는 이주시기별로는 1950년대 1명, 1960년대 8명, 1970년대 3명, 1980년대 5명이며, 제주 거주기간별로는 30년 이상이 8명, 40년 이상이 5명, 50년 이상이 4명이다. 이들의 생업을 보면 상업 종사자 9명,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4명, 공무원 3명, 회사원 1명으로 상업 종사자가 많다. 이 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는 문순덕·염미경, 앞의 책에 수록되었음을 밝혀둔다.

36) 전라도에서 제주로 가는 뱃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황경수, 『제주교통사소고』, 온누리, 2004, 167, 264쪽, 주희춘, 앞의 책, 301-302쪽, 염미경, 위의 글, 2015, 65-66쪽을 참조바람.

37) 염미경, 앞의 글, 2015, 66-70쪽; 주희춘, 위의 책, 296, 301-302쪽; 이 논문의 주요 심층면접대상자인 허** 씨, 최**1 씨는 벽파진에서, 이** 씨는 목포에서 가야호를 타고 제주로 온 경우이다. 이 논문의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이 시기 전라도 서남부지역 사람들이 제주로 오려면 목포-벽파진(진도)-추자도-제주 노선을 이용해야 했다고 구술하였다.

경제적 사정, 사회적 범법 행위자, 그리고 투자 등이었으며 이 논문의 조사대상 호남인들의 이주 동기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산업화시기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간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그렇듯 제주에 온 호남사람들 대부분도 최극빈 상태에서 이주지로 제주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배편 이동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이 늘어나게 된다. 제주 이주 동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 실직이나 사업실패,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개인적 이유 등이 있었음을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알 수 있다. 제주로 먼저 이주해 살고 있던 가족이 있어 1976년 제주에 들어온 김** 씨의 경우는 서귀포지역에 정착했는데, 구멍가게를 운영해 성공해 서울로 가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사업실패 후 제주로 재이주한 경우다. 또한 박** 씨는 단신으로 제주에 와 제주에서 우연히 동향인을 만나면서 제주에 정착하게 된 경우로, 목포에서 제주항에 내려 택시 타고 서귀포로 갔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선배를 우연히 만나 제주에 정착하게 된 경우다.

이 논문의 조사대상 호남인들은 출신지역과 제주 간 거리가 가까워서, 1960년대 이후 제주개발과 감귤산업 성장으로 제주에 일거리가 많아서 이주하게 된 경우, 1960년대 제주로 이주하기 전에는 고향에서 부모를 도와 농사일 하다가 단신으로 제주에 정착한 경우, 개인적으로 고향에서 살기 힘든 일이 있어 무작정 멀리 떨어진 제주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목포 등 전남지역에서는 제주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노동을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먼저 제주에 이주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 쉽게 들어온 경우도 있다. 이들이 이주할 당시만 해도 호남보다는 제주의 경기가 좋다고 알려져 일거리를 찾아 제주에 온 경우가 대부분이며³⁸⁾, 무일푼으로 제주에 와 일용직에서 제주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당시 호남지역은 2-3년 연속 흉년이 들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이들은 제주에 와서 닥치는대로 일을 하면서 제주에 정착해나갔다³⁹⁾.

제주에 온 호남인들 대다수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갖고 있던 연결망을 통해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하고 제주에 와 정착해나간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들과의 심층면접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이주민들 중에는 제주항에 도착해 제주항 부근에 정착하려 했으나 제주항 부근 전라도사람들의 집중 거주지가 포화상태에서 제주항에서 서귀포시까지 가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다.

38) 문순덕·염미경, 위의 책, 2014, 72쪽; 염미경, 위의 글, 2015, 69쪽.

3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 위의 글, 2011과 2015를 참조바람.

“... 당시 뱃삿만 들고 제주에 온 전라도 출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고향에서 빛을 많이 저 제주에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이** 씨와의 심층면접)

“옛날에는 ... 다 살기 힘들었던 때야.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사업하다 실패해 온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한 두 사람 제주로 오면서 제주에 먼저 정착한 선후배나 같은 동네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어 온 사람도 있고 친척으로 연결해 온 사람도 있고. 그냥 혼자서 제주에 와 성공한 사람도 있고 ...”(공** 씨와의 심층면접)

“남편이 시댁 돈 가져다가 목포에서 사기 당해 다 날려버렸어요. ... 제주에 도착하니 캄캄한 밤이더라고요. 제주 오니까 부둣가에 아주 작은 집이 있어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집에 가면 잠잘 곳 있고 밭도 싸고 하다고 해 그분들 집에서 하룻밤 보냈는데, 제주시 부둣가로 판자촌 같은 집이었어요. 거기서 마이크로버스 타고 서귀포로 왔어요.”(최**2 씨와의 심층면접)

이와 관련해 조사대상자 허** 씨는 처음에는 호남지역과 제주 간 교류는 거의 없었으나 지역에서 한 두 사람이 제주로 왔고 이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줄줄이 (제주로) 오게 되면서 전라도 출신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포함되었는데, 최**1 씨는 한국전쟁 때 큰댁이 제주시로 피난 와 있었고 사촌형제가 제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제주행 배를 타서 제주시로 오게 된 경우이고, 이** 씨는 먼저 제주에 정착한 뒤 여동생이 남편 직장 때문에 제주에 와 있어 쉽게 제주에 와 정착한 경우다. 또한 공** 씨는 남동생 네가 서귀포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 이주를 선택한 경우이고, 1970년대 초 제주는 감귤산업이 성장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로서 제주생활을 시작한 사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 초기 제주에 온 이주민들 다수는 흉년으로 생계가 어려웠던 농어촌 출신자들이었고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고 해상교통로를 통해 제주에 올 수 있었던 호남 출신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의 제주이주 동기로는 경제적 동기가 많았고 대부분 자신들이 출신지역에서 갖고 있던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결망을 통해 섬지역인 제주로 이주해온 경우였다. 이 논문의 조사대상자들과의 심층면접결과를 종합해보면, 당시 전라도의 농어촌지역에서는 제주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땅, 개발과 감귤산업 등으로 인해 일

거리가 많은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 1990년대까지도 전남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밀감 따는 일을 하기 위해 제주를 오는 농업노동인구의 이동이 빈번했다. 전남지역은 이 시기가 농한기에 해당되므로 제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일하러 제주에 왔다. 호남 출신으로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거나 밀감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연락해 일하러 제주를 오갔다⁴⁰⁾.

2) 지역정착 초기 집중거주지의 형성과 사회연결망

정부가 제주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항만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고 제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항은 10여년 이상 날품일터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1970년대 제주에서 감귤산업이 성장하면서 서귀포에서 채배된 감귤이 육지로 운송되기 위해서는 짐꾼이 필요했고 호남이주민들 상당수가 제주항 주변에 모여 살면서 매일 지게꾼 일을 했다(주희춘, 2008: 336). 따라서 1960, 70년대 제주시는 제주항 주변 건입동에, 서귀포시는 동홍동과 주변 일대에 자연스럽게 호남 출신 이주민들의 집중거주지가 생겨났다⁴¹⁾. 이 시기 제주에는 호남사람들의 집중거주지가 있었던 것이 비해, 영남사람들의 경우는 이처럼 밀집지역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는 산업화와 개발 초기 이주민들 대부분은 호남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제주시 영남향우회 고문과의 심층면접결과).

이처럼 제주이주 초기 호남사람들의 집중거주지는 호남 출신 이주민들이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찾기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상부상조가 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곳 거주자들은 이곳을 정착지로 여기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상향이동을 위한 경유지로 여겼다.

“해남촌 사셨던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해남촌에 살던 분들은 거기 오래 살진 않았어요. 2-3년 또는 3-4년 살다가 돈 벌어서 해남촌을 뜬 사람들이 많

40) 문순덕·엄미경, 위의 책, 2014, 74쪽; 엄미경, 위의 글, 2015, 70쪽.

41) 이들 지역을 제주토박이들은 ‘해남촌’ 또는 ‘전라도동산’이라고 불렀는데, 심층면접결과에 의하면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적한 지역으로 빈민가나 마찬가지로었다고 한다. 해남촌은 19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호남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해남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였지만 여타 전라도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1970년대 들어서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 곳은 영구적인 정착지라기보다는 전라도사람들의 이주 초기 임시 거주지로서 빈민촌의 성격을 가졌다. 현재 제주지역 해남촌은 거의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지역에 살던 다수는 돈을 모아 이 지역을 떠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희춘, 위의 책, 343-344쪽과 엄미경, 위의 글, 2011을 참조 바람.

아요. (중략) 해남촌은 기반 잡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피난촌 같은 곳이었어요. 아픈 부분이고, 초기 애환이 서려있는 장소죠.”(허** 씨와의 심층면접).

이들 호남사람들의 집중거주지는 주민 대다수가 호남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매우 강했으며, 다수는 단순 직종인 노무업이나 운수업 등에 종사하였다. 주민구성원들은 대체로 젊고 거주 기간도 짧은 편이었다. 일반적으로 도시하위계층의 집적지로서 밀집지역이 생겨나는 것은 초기 이주민들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향 또는 동족집단과 함께 거주하면서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 역시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살게 되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주민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밀집지역을 떠나 보다 나은 주거지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 이는 사회-공간복합체로서의 밀집지역은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힘들에 의해 구성되고 변형되고 재조직되는 살아있는 사회관계의 산물이며, 그 내부의 공간적인 구성과 배치, 즉 공간적 관계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다⁴²⁾(Soja, 1985).

모든 공동체는 특정 공간에 대해 자신들의 기억과 해석을 통해 고유한 정서적 태도를 갖고 있다. 호남인들이 이주 초기 호남인 집중거주지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가족이나 친족 등 혈연망이 없는 경우 학연이나 지연 등 다른 사회연결망을 활용하기 쉽고 이곳이 일거리를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1 씨와의 심층면접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제주에 온 사람들은 부두와 가까운 해남촌이나 그 근처에 살려고 했는데, 해남촌이 배 부두에서 가까우니 일감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해남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갈 곳이 없으니 신산부락 쪽에 살았어요. 처음엔 해남촌에 들어가지 못해 변두리에 있다가 들어갔어요. (중략) 해남촌에서는 부두가 가까워서 1970년대 초반에 해남촌에 어마어마하게 판자집들이 증가했어요. 다들 육지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제주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벌어먹고 살기에는 부두 쪽이 나았으니까. 저도 1958년 제주시에 도착해 사촌형님 댁이 있던 해남촌 부근 신산부락으로 갔어요. 이곳도 판자집들을 짓고 살았죠. 제가 2, 3개월 동안 형님 댁에 있으면서 지켜보니까 거의 모두가 해남이나 완도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이 진도나 강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중략)

42) Soja,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Towards a Transformative Retheorization.” in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 edited by Derek Gregory and John Urry, London: Macmillan, 1985.

형님은 신산부락에 잠시 살다가 해남촌 쪽에 집을 마련해 내려가서 살았어요. 신산부락에서 해남촌으로 내려간 것은 해남촌 쪽으로 더 살기가 나아서라기보다는 부두에서 가까워 일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신산부락 거주지는 해남촌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인 셈이죠.”(최**1 씨와의 심층면접)

호남인 집중거주지는 1970년대 중반, 1980년대를 거치면서 호남인들이 제주에 적응하고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그리고 제주가 관광지로 본격 개발되면서 제주도 행정당국에서 이곳 거주자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해 실시하면서 해체되게 된다⁴³⁾.

대체로 이주민들의 집중거주지는 높은 지역성, 강한 공동의 유대감,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공동체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공동체이다. 제주 정착 초기에 호남 출신 이주민들이 밀집해 살았던 집단거주지도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호남사람들의 삶의 여건 변화와 지역개발로 인해 이 공간은 해체·사멸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호남인들은 정착 초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곳에 사는 호남인들과의 교류과정에서 동향인들 간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제주에 정착하기 위한 지연집단을 강화시켜나갔고, 이 과정에서 제주시 호남향우회의 전신이자 지역집단 결집체로서 ‘호남동지회’를 만들어지게 된다(이** 씨와의 심층면접). 다음에서는 공식적인 지연기반 집단적 결집체인 향우회의 결성과정과 참여 그리고 호남인들이 제주에서 지역집단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집단적 결집체로서 향우회의 결성과 지역집단화

사람들은 사회연결망을 통해 타인과 일차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주민들은 정착 초기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사회에 진입 •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사회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지역사회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거나 확장하면서 새로운 지역의 환경에 적응해나간다. 이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서 다양한 모임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향우회이다. 향우회는 처음에는 동향사람들끼리 친목도모와 부조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개인적 연결망으로 출발했다가 점차 그 조직규모나 활동이

43) 황석규, 「도시 내 상층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염미경, 위의 글, 2011.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지역 향우회들도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쳤다. 제주 이주 초기 이주민들은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그리고 낯선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보교류나 협력 등이 필요해 동향사람들끼리의 친목모임을 만들었다가 점차 연합조직 형태로 발전하는 경로를 거쳤음을 이 논문의 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⁴⁴⁾.

이주지에서 향우회를 결성하는 이유로, 호남향우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고향사람들끼리 타향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심충면접일자는 2014년 5월 2일자). 제주에는 다소 성격이 다른 이북5도민연합회 이외에 행정구역별로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호남향우회는 1969년, 영남도민회는 1970년, 충남도민회는 1970년, 전북도민회는 1975년, 서울경기향우회는 1978년, 충북도민회는 2013년 조직되었으며, 이들의 연합조직으로서 연합도민회가 1993년 조직되었다. 서귀포시 향우회들의 연합조직인 연합도민회가 제주시보다 빠른 1987년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1970년 조직된 전남도민회, 1972년 조직된 영남도민회, 1975년 조직된 전북도민회, 1980년 조직된 강원도민회, 1980년대 초 조직된 충청향우회, 1984년 조직된 서울·경기도민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지역 향우회들 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 제주시 호남향우회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제주에 온 이주민들 중 전라도 출신자가 가장 많은 데서 연유한 것이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 제주에 와 하층민으로서의 생활경험을 가진 이주1세대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집단적 결집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시 호남향우회는 1950년대 후반 제주에 와있던 이주1세대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호남동지회’라는 친목회에서 시작해 1969년 호남향우회로 재조직된 경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 몇 명의 호남사람들이 호남친목회를 계(契) 형식으로 발족시켰는데 이것이 제주시호남향우회의 출발이다. 이후 제주에 호남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호남동지회가 결성되었고, 5·16 이후 사회단체 해산조치에 의해 해산되었다가 이**(당시 **신문사 제주지사장), 호남친목회 총무 정**(당시 인장업), 곽**(당시 **신문사 제주지사 총무) 등이 향우회 결성의

44) 이는 향우회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며, 제주지역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음을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제주지역 향우회들은 그 결성 시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았지만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공식 조직으로 발전한 향우회들의 경우 그 조직 연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호남인들이 만든 향우회들은 대체로 그 조직 연도가 명확한 편에 속한다. 제주지역 향우회들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순덕·염미경, 앞의 책을 참조바람.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상회 대표 신**, 하**(숙박업), 고**(토건업), 서**(안과의원), 이**(철재업), 이**(경찰관), 김**(공업사), 정**(공업사) 등 상업, 숙박업, 토건업, 철재, 경찰관, 공업사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1969년 5월 호남향우회로 조직되었다(제주시 호남향우회 내부자료).

한편, 서귀포지역의 전남도민회는 1970년 12월 13일 전남청년회로 시작해 1971년에 첫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후 현재에 이르며, 제주지역에서도 회원들 간 집단적 결집력이 매우 강한 향우회이기도 하다(제주지역 향우회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결과 종합).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주지역 향우회 조직의 변화 중 하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회원의 거주지, 즉 동(洞)별 향우회가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동 단위 향우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열고 각 지역 연합도민회 체육행사에 참여한다. 이처럼 향우회 산하에 출신지별 향우회 이외에 현재 거주지로서 동별 향우회가 조직된 배경은 지방자치제 실시되면서 향우회집단의 정치세력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향우회들의 경우 각기 독자적으로 향우회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제주의 행정구역 범위 내에 있는 향우회들 간 협의체로서 연합조직도 구성되어 있다.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 향우회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연합도민회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각각 조직되어 있고, 연합도민회의 회장 임기는 1년이며, 각 향우회 대표가 순번제로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귀포시지역 연합도민회는 1987년 조직되어 마찬가지로 각 향우회 대표가 순번제로 회장을 맡아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 향우회들은 집행부나 회원 구성에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논문의 조사대상 향우회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 호남인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타향살이의 애환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적응은 어느 정도 해나갔으나 제주살이에서 차별이나 소외감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졌고, 일차적으로는 호남인들이 경험한 차별은 지역토박이가 아닌데서 오는 차별이었다. 차별은 1970-80년대 호남지역 차별과 결합되어 한층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73년 제주시로 이주해와 관광업에 종사했던 호남향우회 소속 호남인과의 심층면접내용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제주사람들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얹혀 있어서 사업에 따라 보호를 받는데 이주민들은 아무도 보호해 줄 있는 연고자가 없어서 법적인 피해를 겪었고 이럴 때 이주민으로서 비애가 컸다. (중략) 사업상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지만 간혹 이를 어

기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제주사람은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 나가는데 이주민들은 주변에 지원군이 없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 (중략) … 사업상 관공서와 접촉할 일이 많은데, 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순조롭다가도 대금 청구가 들어가면 제주 출신이 아니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이 점 때문에 본적을 제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 이후 관공서 일을 보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졌다고 했다.”(제주시 호남향우회 소속 김**씨와의 심층면접, 관광업 종사)

서귀포에 거주하는 박** 씨의 경우는 제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피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본적을 바꾸기까지 했고, 엄** 씨의 경우 제주에 와 호남말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제주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소위 학연과 지연에 의한 연고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받았다. 이런 경험 때문에 아이들은 한 곳에서 졸업하도록 하고 학연 망과 향우회 결성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식들이 제주에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기에 본적을 제주로 옮겨와 버렸다”(박** 씨와의 심층면접)

“말씨 때문에 금방 어느 지역 출신인지 드러나서 불이익을 받았다. 제주에 와 일할 때 고향 말을 사용하니깐 주변사람들이 놀려서, 제주에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제주어를 속성으로 배웠다. 전문분야 종사자도 차별받았다고 들었는데, 최종결정 단계에서 호남사람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엄** 씨와의 심층면접)

이처럼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산업화시기 제주에 와 정착한 호남인 대부분이 차별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산업화 초기 제주에 온 호남인의 경우 이주 초기에는 일용직 농업노동자나 막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귤산업의 성장과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과수원 조성 및 감귤농사 일, 과수원 지기, 건축현장 막노동을 하거나 토건업, 감귤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1970-80년대 초반에는 양복점, 양장점, 맞춤코너, 관광업, 유흥업,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주사회의 하층민으로서 제주생활을 시작해 제주사회의 경제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거쳤다⁴⁵⁾. 이 과정에서 호남인들은 집단적 결집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산업화시기 호남인들은 이주 당시 낙후된 농어촌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고, 1970년대 이후는 사회구조적 수준의 호남차별이 심화되고 있던 터라 호남인들은

45) 염미경, 위의 글, 2015, 77-81쪽.

이주지에서 호남차별과 박탈을 예상했고, 이에 대처하는 생존전략으로서 호남인들은 제주에서 높은 수준의 집단적 결집을 해나갔고⁴⁶⁾, 이것은 제주에서 호남인의 지역집단으로서의 등장을 가속화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는 다시 향우회의 선거 개입과 정치세력화 노력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70, 80년대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제주 정착 호남인들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지역토박이가 아닌 데다 초기에 하층민으로 제주생활을 하게 되면서 받은 호남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한 차별과 함께 사회구조적인 호남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이 결합되면서 차별은 최고조에 달한다. 제주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위상이 나아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다.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 제주에서의 호남인의 위상 변화에 대해 김** 씨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⁴⁷⁾.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호남사람들이 제주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전라도 사람들 … 손가락질 많이 받았죠. 각자 흩어져 있으니깐. 각자 먹고 살기 힘들니까 뭉치질 못했었죠. 막걸리 한잔 사주거나 밥 한 끼 사주면 여당으로 다 넘어갔지. 다들 힘들게 살 때니까. 전남도민회가 조직화되고 특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해남향우회, 즉 해남군민회가 결성되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고 해남군과 일정한 연계망을 가지면서 서귀포지역에서 세(勢)가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전남도민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김** 씨와의 심층면접)

지역주의는 지역에 대한 의식, 인식 또는 감정 등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하나의 신념체계이자 지역을 중심으로 집합적 의식의 형태를 지향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⁴⁸⁾. 출신지역의 생활방식이나 신념, 가치관, 문화, 정치적 태도 등을 간직하고 있는 이주1세대는 출신지역에서의 정치적 신념과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신지역을 떠나왔지만 자신의 출신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고 출신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한다. 이러한 성향은 정착지에서의 정치적 태도나 활동에도 반영되어 출신지역의 정치와 정착지역의 정치 양쪽에 영향을 준다. 이는 한국의 정치활동이 여전히 지역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⁴⁹⁾.

46) 최영진, 「지역집단의 사회적 구성과 정치적 메커니즘」, 『국제정치논총』, 41(3), 2001, 472-473쪽.

47) 염미경, 위의 글, 2015, 82쪽 자료 활용.

48) 최영진, 「한국 지역주의 논의의 새 지평: 정치적 정체성 개념과 동기부여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1997; 정병은, 앞의 글, 7쪽

산업화시기 제주에 와 하층민으로서 생활과 차별받은 경험을 갖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이주1세대들은 사적인 관계 속에 영위된 자신들의 공동체를 양성화시킨 형태로 향우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의 집단적 결집과 지역집단화 그리고 사회·정치적 세력화는 그들의 생존 그 자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국 대부분의 향우회가 그렇듯, 제주지역의 향우회 집행부도 세대교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주1세대와 2세대, 특히 2세대는 부모세대와 달리 출신지와 거주지가 같은데다가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제주에 온 1.5세대의 경우도 제주에서 유년,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주1세대와 같이 출신지역에 기반한 정당 지지성향이나 그 정당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제주에서 태어났거나 제주에서 성장한 1.5세대와 2세대는 제주에서 생활하는 데 지역토박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도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지역 향우회 집행부의 세대교체와 회원구성의 변화 그리고 과거 향우회의 선거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여론이 생기면서 지역 향우회의 지역활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4. 맺음말

변방이지만 과거 희망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간주되던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의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을 이주민공동체의 형성과 향우회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논문은 이주지의 공식기록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된 지역의 역사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 논문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면서 끝맺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의 연구결과 제주가 국제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하면서 막노동 등 날품일터가 생겨나고 감귤산업이 성장하면서 서귀포에서 재배된 감귤의 육지 운송을 위한 관문인 제주항 부근에 밀집해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호남인 집중거주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민들은 이주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박이들의 폐쇄성에 의해 지연을 바탕으로 한 동향 출신자들끼리 밀집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착 초기 경제적 도움과 상부상조 그리고 친선도모를 위해 또는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동향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집중거주지를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는 사회연결망이 호남인의 제주정착 초기 중요한

4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엄미경, 앞의 글, 2015를 참조바람.

자원이었음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전통적으로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주지에서의 애환 등 정서적 욕구 충족 기제 역할을 한 것이 향우회였고, 제주정착과정에서 호남인들은 지역토박이가 아닌 데서 받는 차별과 함께 지역주의가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면서 받은 차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집단적 결집력으로 대응해나갔으며, 그 기반이 향우회였음을 이 논문의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을 다룬 연구이지만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과거 산업화시기 이주민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 국내외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에서 이들에 대한 분석과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논문은 제주지역 전체 이주민들의 지역집단화와 집단적 결집체로서 향우회의 활동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주민들의 출신지에 따라 이주 이전의 생활경험과 정치적 성향과 태도 그리고 출신지에 대한 의미부여가 다를 것이며, 제주로의 이주 시기와 동기 및 정착과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제주에서의 결집 양상과 그 결집체로서 향우회의 활동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포괄하지 못했다. 또한 이주민들은 이주 시기와 개인의 나이, 학력, 직업 경험, 경제적, 정보력, 인적 자본 측면에서 이주민들 간은 물론 지역토박이들과 다를 수 있고, 이를 지역토박이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도 이 논문의 한계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이주민들과 지역토박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그 양상을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제주에서는 제주 이외의 한반도 내 모든 지역을 ‘육지’라고 부르고, 구별하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세계의 사회·문화 간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1990년대 말 지역자료의 수집과 발굴, 정리의 활성화가 강조되던 분위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전체사와 지역의 역사라는 통일된 관점에서 지역의 내재적 발전과 외부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재생시키는 기반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해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지역사회의 수용성은 커질 수 있다. 물리적·공간적 근접정보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안의 사회·심리적, 문화적 거리감을 없애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문화이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

-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 동 현(제주대학교)

1. 들어가며
2. 귀농귀촌지원법과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
3. 문화이주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
4. 문화 '이주'에서 '문화'적 삶의 변화로

1. 들어가며

2000년 이후 제주 이주 열풍의 특징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화이주'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구통계 상 순유출 인구보다 순유입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이러한 명명은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문화이주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규정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문화이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현상의 하위범주인지, 문화예술인 혹은 이질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주민들의 증가를 지칭하는 말인지 아니면 문화 자체의 이전과 전파인지 그 개념을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정착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착 주민의 유형별 분류를 문화예술, 귀농·귀촌, 다문화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 하지만 이러한 분류에서도 문화이주와 귀농귀촌 이주의 동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제주 이주의 현상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류가 제주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변별적 특성으로 삼을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면 이주 동기를 기존과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한 응답은 문화예술(31.9%)와 귀농귀촌(29.4%)이 크게 다르지 않았

1)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2014.

다.²⁾ 이주 동기에서 변별성을 갖지 못하는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문화이주라는 용어 자체가 엄밀한 개념 규정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현상적 측면을 지칭하는 임의적 정의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이주라는 용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제주정착주민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착 주민에 대한 정의와 귀농귀촌법의 이주민 규정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조례로 귀농·귀촌 이주를 포함해 타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기존 법령에서 정착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우선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정착주민’이라는 외국 혹은 타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³⁾

제주정착주민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착주민’의 개념은 기존의 귀농귀촌법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보다 포괄적이다. 귀농귀촌법은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귀농귀촌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는 기존의 귀농귀촌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귀촌 이주와 타시도에서 전입해온 “제주와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괄하

2) 위의 연구, 77쪽.

3)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고 있다. 타시도의 귀농귀촌 지원 조례 대부분은 귀농귀촌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다. 귀농귀촌이라는 용어가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는 개념이라면 제주 정착이주민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정착이주민이라는 용어는 다문화,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제주의 경우에는 다문화·북한 이탈주민에게 통용되던 정착이주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내리면서 일종의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정착이주민 지원조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타시도 전입 주민들을 모두 정착이주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포괄적 개념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착주민지원 조례 이외에도 제주도는 이주민들이 제주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귀농귀촌지원 조례, 제주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례들은 이주 유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타시도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조례가 사실상 정착 주민 지원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제주는 별도의 정착주민지원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다.

이주민 지원 조례의 등장은 제주 이주가 기존의 이주 현상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 유입인구의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제주 이주, 제주이민, 문화이주 등 다양한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 왔다. 이주의 사전적 용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 사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때 타시도 유입 인구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귀농귀촌지원법과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

제주이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문화이주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주정착주민지원조례에는 “제주지역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제주문화가 타시도의 문화와 다르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제주문화는 타시도의 그것과 다르며 ‘이주민들의 유입=이질적 문화의 유입’이라는 인식을 조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정착주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상수로 인식하면서 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⁴⁾

4)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 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2014.

제주 이주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탈중심화와 이로 인한 주변 지역의 가치 절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근대화는 서울중심주의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중심의 강화는 기실 식민주의 내면화가 가져온 공간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간적 모순은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유럽 역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주변의 위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테면 롤랑 바르트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유럽 사회의 중심-주변의 위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서 우리 도시의 중심은, 중심이 진실의 장소가 되는 서구의 형이상학의 기본적 흐름과 일치하면서 풍요로움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 특별한 장소에 문명의 전체 가치가 모여들고 응축된다. 영혼성(교회), 권력(사무실), 돈(은행), 상품(백화점), 언어(카페와 산책로)가 모여 있는 것이다. 시내 중심가로 가는 것은 사회적 '진실'을 만나는 것이며, '현실'의 멋진 풍요로움에 참여하는 것이다.⁵⁾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식민지 수탈과정에서 서울은 수탈의 대상이기도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제국의 대리인이자 내부 수탈의 대리인이기도 했다. 일본-제국이라는 외부의 수탈자가 사라져버린 이후 서울은 내부의 공간을 폭력적으로 구획하면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러한 서울의 성장은 공간의 평등성을 왜곡한 결과였다. 지금도 서울은 여전히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의 역사는 뿌리 깊다. 역사적 기원의 요구함만이 문제가 아니다. 왜곡을 왜곡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 그 자체를 당연시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관습헌법이었다.⁶⁾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중심주의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에 권력과 부가 집중되

5) 롤랑 바르트, 김주환·한은경 역, 『기호의 제국』, 산책자, 2008.

6)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헌재 2004헌마554, 2004헌마566.

면서 나타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따른 수도의 성격 규정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신행정수도이전 위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서울중심주의는 견고하다.

2000년대 이후 실시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역설적으로 서울이라는 가시적 공간의 폭력이 가져온 서울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적 차원의 성격이 짙다. 농촌과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은 귀농귀촌이라는 새로운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이어졌다.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국가차원의 지역개발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명문화하고 있다. 농림식품부의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농촌지역 시군의 인구 유입정책 지원, 귀농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각종 지원조직과 교육체계 마련이 대표적이다.⁷⁾

기존의 지원정책은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지속적인 농촌인구의 감소 현상으로 인한 지역의 인력·산업 구조를 변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귀농귀촌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정착주민 지원 정책은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이를 위해 우선 관련 조문을 검토해 보자. 2005년에 제정된 귀농귀촌법은 모두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 제정된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는 모두 22조이다. 우선 법과 조례의 목적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법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도민과 정착주민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귀촌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는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주민 간의 상생협력 촉진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7) 강대구,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4호, 2010.

귀농귀촌법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정착주민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있는 제3조의 규정은 귀농귀촌법과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가 그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귀농귀촌법 제5조에서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귀농어귀촌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도 정착주민 지원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제6조), 정착주민지 데이터 작성(제8조), 정착주민지원위원회 설치(제11조), 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제19조)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귀농귀촌법의 지원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주정착주민 지원 조례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사업
2. 정착주민에 대한 창업, 취업 등 지원 사업
3. 정착주민에 대한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4.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5. 마을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교육·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정착주민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정착주민의 재능, 기술 및 경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참여 촉진 사업
8.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도민 환대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귀농귀촌법과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는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 제도와 다른 선주민들과의 상생 협력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조례가

경제적 개발과 이익 창출의 관점보다는 사회 통합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귀농귀촌지원법이 농어촌 발전을 위한 인력 활용과 지원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제주정착주민 지원 조례는 정착지원과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3. 문화이주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주 현상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이주의 대상과 현상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타시도의 이주정책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현재 타시도의 귀농귀촌 지원 조례는 대부분 귀농귀촌지원법을 준용해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농촌 인구 감소가 지역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라는 귀농귀촌 이주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2000년대 이후 제주 이주 열풍이 기존의 귀농귀촌 이주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제주 이주민의 증가를 제주 문화의 정체성과 충돌할 수 있는 이질적 존재들의 유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제주만의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기존 귀농귀촌 현상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생계형 귀농이주 외에 다양한 형태의 이주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농촌생활에 대한 선호, 이상적인 삶의 실현, 건강에 대한 관심, 도시생활의 청산과 새로운 삶의 모색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귀농귀촌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주에서 도시적 삶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라이프 리셋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 유형의 변화는 결국 경쟁과 효율이라는 도시적 삶의 문화를 탈피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귀농귀촌 이주의 변화는 단순히 도시적 삶을 이식하는, 도시적 삶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화를 회구하는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농산어촌에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방식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지리산과 섬진강 주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룬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에는 이러한 대안적 삶의 형태를 모색하는 이주민들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동네밴드를

결성하고 시인과 함께 문화 강좌를 진행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최근 귀농귀촌의 새로운 형태는 문화이주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주 이주 현상을 설명할 때 종종 등장하는 문화이주라는 용어는 그동안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제주 이주라는 현상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즉 귀농귀촌 현상의 하위 범주로 문화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종의 보통명사처럼 문화이주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문화이주는 학문적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문화이주라는 용어에 대한 이주민들의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조랑말박물관 관장을 지냈던 지금중은 문화이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이민자’는 정확한 표현일까? 이 말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주했다는 걸 의미하는가? 아니면 문화적 이유로, 혹은 문화활동을 위해 이민을 했다는 걸까? 모호한 표현이다. 아마도 근래 지칭되는 제주 ‘문화이민자’의 경우는 예술의 활성화와 접근성, 즉 예술활동을 위한 인프라와 환경이 좋아서 이주를 하는 일반적인 문화 이주 사례와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중략)

따라서 제주로 ‘문화이주’가 활발한 근본적 원인은 좁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적 이유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태적 가치의 확산, 무한경쟁 사회에서의 탈주, 느린 삶과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 추구 등 ‘삶의 방식’의 전환을 꿈꾸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⁸⁾

‘문화이민’과 ‘문화이주’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이 글에서 지금중은 ‘문화이주’의 개념을 문화예술인들의 이주가 아닌 대안적 삶의 문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이주를 생태적 가치의 추구하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삶의 모색이라고 바라볼 때 제주 이주-귀농귀촌을 포함한-는 생태적 가치와 무한경쟁 사회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 추구라는 점을 보여준다. 귀농귀촌과 문화예술인 이주를 구분하여 이주 동기를 조사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이주 동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존과 다른 삶에 도전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었다.⁹⁾ 삶의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이주 동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이주를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의 이주로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은 제주 이주 현상을 단편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¹⁰⁾

8) 지금중, 「제주 문화이민에 관한 몇 가지 짧은 생각」, 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32호, 2012.

9) 제주도, 앞의 연구.

10) ‘문화이주’ 용어의 문제점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수행한 『제주

제주정착주민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라는 정착 주민에 대한 정의 역시 정착 주민을 대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제주 정착 주민들은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때문에 제주문화와 생활에 동화되어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질적 문화의 유입이 사회문화적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제주문화의 특수성과 변별성을 상대화하면서 타 문화의 유입과 그로 인한 제주 정체성의 해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¹¹⁾

2000년대 들어 인구 유입의 가속화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제주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긍정적 인식과 함께 문화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낳게 했다. 제주인구 100만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의 수립과 함께 중국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¹²⁾ 이는 이주 인구의 유입이 제주 경제의 양적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제주 고유의 정체성의 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양가적 감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이주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 증가에 대한 양가적 입장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주 현상의 일면만을 편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이주를 설명하기 위한 한시적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적 사용이 과연 지역의 문화적 변화 양상을 포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화전달은 문화 전달의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수용 방식 또한 상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라는 용어조차도 대단히 포괄적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가) 지적, 정신적 미학적 발달의 전체적인 과정 나) 국민, 시대, 집단 또는 인간 전체의 특정한 생활 양식 다) 예술활동

의 문화다양성-문화예술가의 제주이주 현황조사」에는 문화이주자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문화이주자’는 그 기원이 정확하지 않으나 정책 담당자들과 언론 종사자에 의해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확산되고 있는 용어다. 용어 자체가 경계와 정체성이 불분명한 집단을 하나의 범주로 묶음으로써 오히려 개인적 다양성을 간과하고 분리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로 이주하는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문화이주자’라는 용어는 그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로 이주한 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초연구는 전무한 상황에서 ‘문화이주자’라는 용어는 편의적으로, 그러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013.

11) 물론 제주문화가 육지부의 문화와 다르다는 점은 동의한다. 언어가 그러하고 인문환경 역시 물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변별성이 제주만이 지닌 특수성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12) ‘제주 인구 100만 대비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 뉴스1, 2016. 7.6. ‘제주도 중국관광객 하루 1만명 빛 좋은 개살구’ 한겨레, 2013. 7. 26.

의 실천이나 그로부터 탄생되는 작품 등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¹³⁾

제주 정착주민 지원 조례에서 ‘제주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이주민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는 제주 정착주민 지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주 이주 자체가 넓은 의미의 문화이주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문화이주를 제주 이주를 총칭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정착 주민 중에서 직업적 분류에 따른 현상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구분 이외에도 문화 이주라는 용어의 사용이 이주민 증가로 인한 제주문화의 정체성 훼손 혹은 왜곡에 대한 대항적 담론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4. 문화 ‘이주’에서 ‘문화’적 삶의 변화로

2000년대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사회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를 우선시하는 이 법의 적용은 ‘특별자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개발과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난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도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제자유도시의 목적 조항이 정치적 의제로 등장한 것은 시민사회 진영의 문제제기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미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이식하려는 중앙정치와 제주 정치권의 야합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주 이주가 도시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라이프 리셋을 추구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이주, 문화이주자들의 삶의 태도는 제주 내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과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 제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지대로서 문화이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이주는 ‘이주’라는 형식에만 집중해왔다. 문화예술인 이주자들이 증가

13)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유리 역, 『키워드』, 민음사, 2010.

하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새로운 문화 향유와 매개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지금-여기 제주가 지향해야 하는 문화적 가치는 외면해 왔다. 제주 공동체적 질서를 위협하는 문화의 이질성을 통합의 관점에서 문화이주를 상대화한 측면이 많다.

이주자들을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은 타자로 인식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관리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인식이 또 다른 배타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이주라는 용어는 제주 이주현상을 설명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이주 현상에 담겨 있는 대안적 삶의 가치를 제주 사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제주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冊 2017 제주학회 학술대회-학술토론회

외국 이주민의 정착과 전망

황 석 규(제주다문화복지교육연구소)

외국이주민의 정착

- 제주 외국인의 정착 선사시대
 - 구석기 유물 발견과 증명 유무 결정
- 중역사기록에 의한 외국이주민 정착
 - 탐라시대: 고양부, 벽랑국3공주
- 역사기록에 의한 외국이주민 정착
 - 고려시대: 원나라 탐라총관부 설치
- 조선시대: 하멜 표류
- 일제시대: 일본군인과 상인, 종전 일본군 7만5천명 입도
- 미군정시대: 43 관련 미군
- 1950년 이래 미군 주둔
 - 625 미군 군사고문단
 - 1995년 7월 15일 맥네브 레이다기지 철수
 - 2005년 1월 주한미군복지단 철수

2000년대 이전 외국이주민의 정착 이유

- 정착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전쟁
 - 전쟁은 국내외(일본, 대동아, 한국)
 - 지정학적 위치
- 제주인 외국이주민 정착에 수동적
- 대항하거나 승인하지도 못 함.
- 자주적으로 이들로부터 자유스럽지도 못 함.
- 외국이주민들에 대한 저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제시대를 제외하고 저항한 흔적을 찾을 수 없음.
- 국제결혼: 제 주여성과 몽골, 일본 그리고 미국 남성결혼

2000년대 이후 외국이주민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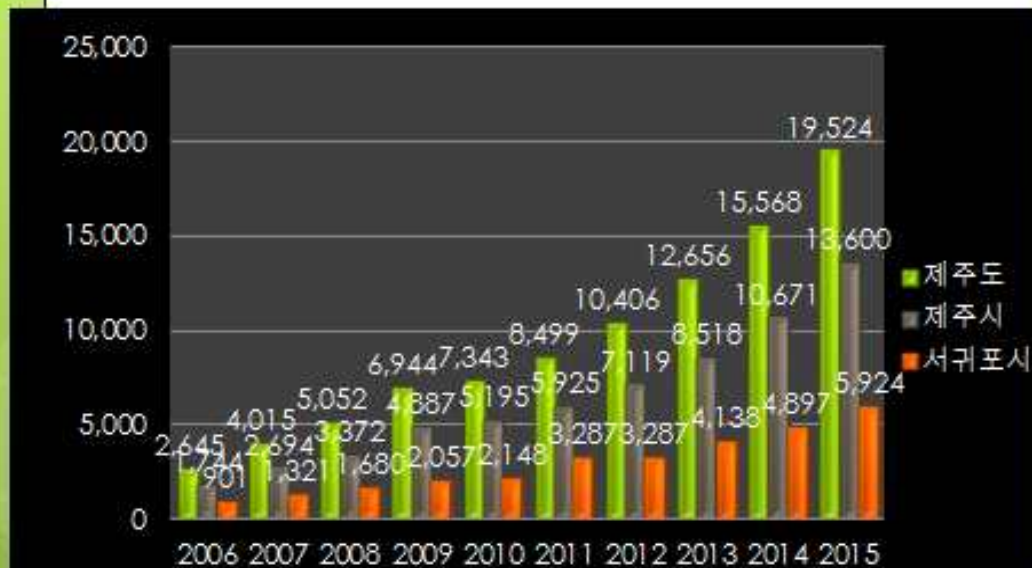
- 근현대 세계 이주민 정착 이유 :
 - 1) 사회안전망(전쟁, 체제붕괴-난민): 시리아, 이라크,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등
 - 2) 빈곤(고용, 불법체류자): 콩고, 필리핀 등
 - 3) Diaspora(민족, 종교): 모로코, 리비아, 중국, 인도, 필리핀
 - 4) 자연환경(기후): 바하마, 몰리타시안 등
- 제주 정착 이유: 경제, 문화 그리고 가족
 - 제주 한센 역사상 경제 부흥기
 - 제주 청년 3D 직종 거부 및 저임금노동: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 부각
- 외국기관 종사자와 외국인엘리트(대학 및 외국어 강사, 유학생 등) 증가
- 가족의 변화 현상
 - 국제결혼이주민의 지속적 증가
 - 국제결혼이주민: 경제와 문화 혜택
 - 제주남성과 아시아여성 결혼: 성별 역현상

외국인주민 유형

- 국제결혼이주여성
- 국제결혼이주여성 자녀
 - 대부분 한국인-제주인
 - 외국국적 자녀,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 가족동반불허제도
- 외국기관 종사자, 대학 전문가
- 유학생
- 불법체류자
 - 무사증 입국 도피
 - 고용허가제 중도 및 만료 도피
- 국제결혼이주민 이혼(자녀 및 다양한 이유로 잔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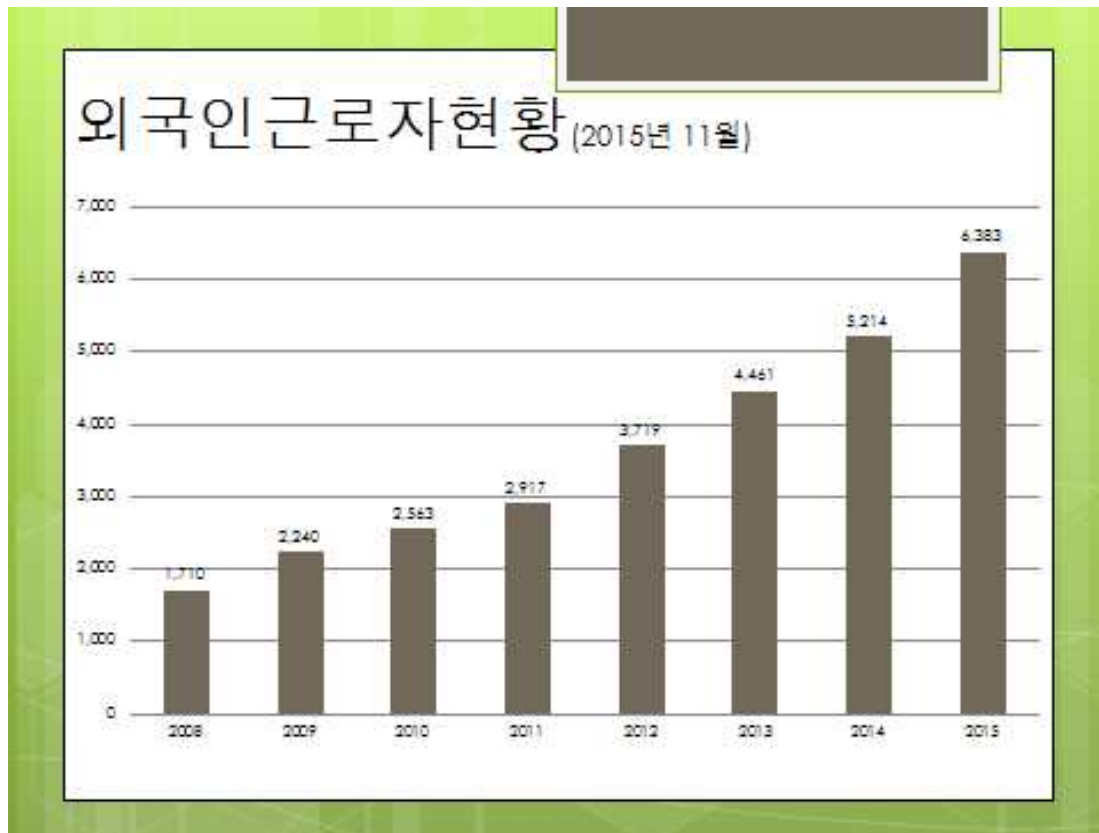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외국이주민의 정착 이유

- Korea Dream
 -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
 - 양질의 일자리 요망
 - 국제결혼: 경제와 문화 혜택
- 공교육 및 사교육으로 인한 외국어(원어민) 강사
- 외국기관 수와 업무의 증가
- 대학 전문인과 유학생 증가
- 제주사회 요구 및 선택에 의해 정착
- 중국과 베트남 디아스포라-친인척 제주 유입 독려
- 본토 시골지역과 제주 시골지역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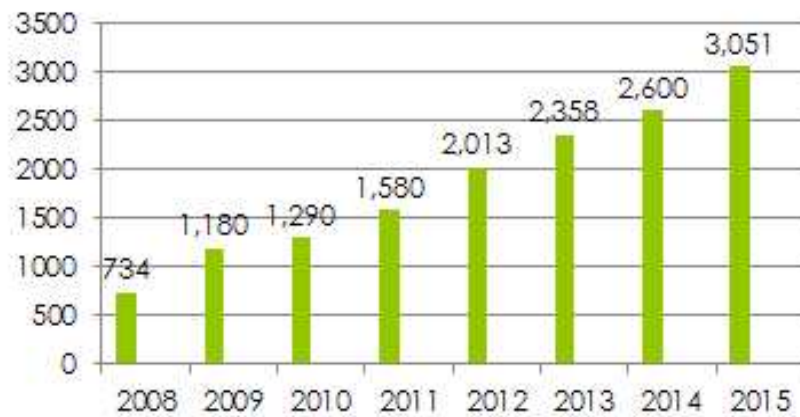


한국국적 취득 현황(2015년 11월)										
구분	합계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국제결혼가정 자녀
		소계	외국근로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기타외국인	소계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2008	5,052	3,982	1,710	904	532	836	336	297	39	734
2009	6,941	5,351	2,240	1,100	796	1,215	410	344	66	1,180
2010	7,343	2,563	2,563	1,164	857	918	551	445	106	1,290
2011	8,499	6,283	2,917	1,485	899	982	636	522	114	1,580
2012	10,406	7,633	3,719	1,625	926	1,363	760	533	227	2,013
2013	12,656	9,434	4,461	1,803	906	2,264	864	620	244	2,358
2014	15,568	11,935	5,214	1,945	851	2,854	1,033	751	282	2,600
2015	19,524	15,146	6,383	2,119	1,052	5,592	1,327	857	470	3,051

국제결혼이민자 현황 (2015년 11월)										
구분	계	중국(재중포함)	베트남	필리핀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태국	기타
2008	1,201	606	207	113	75	19	9	8	6	158
2009	1,444	686	360	183	72	17	6	10	10	100
2010	1,609	718	423	228	69	17	9	11	13	121
2011	2,007	771	554	291	117	32	12	13	12	195
2012	2,158	728	658	322	132	33	13	14	10	248
2013	2,423	781	746	356	152	43	15	18	14	298 (합65)
2014	2,696	855	824	390	157	46	15	17	15	347 (합73)
2015	2,976	1,034	881	389	145	52	14	18	18	425 (합88)



국제결혼가정 자녀 (2015년 11월)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명)

참고 : 국: 국제결혼가정자녀, 외: 외국인근로자자녀를 지칭함.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	외	계	국	외	계	국	외	계	국	외	계	국	외	계
'16	187	18	203	873	95	968	118	20	138	80	4	84	1,258	135	1,393
'15	189	19	168	705	52	757	129	17	146	61	8	64	1,084	91	1,126
'14	120	10	130	521	27	548	118	8	121	42	3	45	798	48	844
'13	85	9	94	390	21	411	98	6	99	30	0	30	598	36	634
'12	78	7	85	352	15	367	77	4	81	27	0	27	584	26	560
'11	45	4	49	280	18	298	54	2	56	20	0	20	399	19	418
'10	19	0	19	227	10	237	34	0	34	15	1	16	295	11	306
'09	25	8	28	186	7	193	29	0	29	12	0	12	252	10	262
'08	17	2	19	152	2	154	20	0	20	7	0	7	196	4	200
'07	18	1	14	108	0	108	14	0	14	8	0	8	186	1	189

외국이주민에 대한 전망

- 인구증가추세에 의하면 가까운 미래까지 지속적 증가 가능성 예측
- 상생과 융합을 이루는 제주사회인 경우 지속성은 유지
- 관광개발투자에 의 외국이주민이 아닌 제주인과 더불어 상생하는 외국이주민의 증가가 바람직
- 이를 위해 제주인의 외국이주민에 대한 능동적 자세와 쌍방향 대화 방식 필요
- 제주사회 지속적 제도 개선
- 제주인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문화 시민성 함양
- 다문화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제도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제도 개선
 - 국적부여 방식 및 무사증 입국 방식
 - 한국식 사회통합 프로그램(동화주의) 한계
 - 외국인근로자 인권 개선
 - 행정기관 업무 과부하: 제주형 다문화정책 미흡
 - 민간부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 이해
 - 역지사지 - 다문화 역사 이해
 - 자긍심 고취

외국이주민에 대한 제주인 성격과 변화 모색

- 기존 성격
 - 편협성
 - 배타성
 - 선택적 차별주의
 - 일방향 대화 방식
- 성격 변화 모색
 - 역지사지: 제주 역사 속 제주인 그리고 재일제주인
 - 능동적 자세의 의미: 자율성, 제도 개선, 의식 변화
 - 상생, 융합 그리고 차별주의 탈피
 - 쌍방향 대화 방식
- 21세기 제주인 성격 형성

다문화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

- 쌍방향형 다문화 시민성 교육
- 제주인
 -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 극복 교육
 - 일시적 변화가 아닌 점진적 변화만이 가능
 -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 외국이주민에 대한 인권적 제도 개선
 - 외국이주민에 대한 교육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외국인
 - 제주문화와 제주인 성격 적응 교육
 - 적극적 사회참여
 - 제주 사회안전망 구축과 상생의 필요성
 - 외국인 이민자(고용 근로자 포함)들에 대한 제주 인식 교육: 귀국 후 제주에 대한 긍정적 인상 각인

결론

- 국제자유도시 및 세계 평화의 섬 지정도시로서 제주다운 공존문화 구축
- 제도 개선 및 다문화 시민성 교육 절실
- “다문화” 표현보다 “이주배경을 지닌”으로 표현 변화 필요
- 제주인 21세기 세계시민으로 도약

제주 이주민의 역사와 현재적 지점

정 은 희(제주 이주민의 역사 저자)

1. 서론
2. ‘이주자의 섬’ 제주
3. 이주의 유형
4. 제주 이주민의 역사
5. 이주민의 정착과 전망
6. 결론

1. 서론

2010년 이후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증가세는 2017년 1월 잠시 주춤했으나 2월부터 다시 매월 1,000명 이상이 제주로 순유입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제주의 가치는 인문학적·지질학적 세계유산 등록으로 인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제주의 가치는 제주가 국내·외적으로 선망의 땅이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2박 3일, 3박 4일 등 몇 일간의 제주 관광을 마치고 “제주도 다 가봤어”하며 이야기를 한다. 발제자는 제주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들을 때 마다 내심 안타까웠다. 제주의 돌 하나하나에, 느껴지는 바람 속에서, 투박하게 오고 가는 제주어 속에 묻어나는 진짜 제주 문화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은 겉핥기식으로 제주를 보고 간다.

‘문화는 보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 발표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제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제주의 모습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제주문화의 매개자 역할을 위

해 나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제주사람 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별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발표자 또한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으로써 이주민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제주의 모습과 제주사람의 모습을 보는 이주민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개인사 때문에 제주사람들과 긴 시간 함께 해왔던 발표자가 제주에서 만난 낯설었던 제주의 문화와 제주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 이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

제주는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들이 있다. 발표자의 경험은 제주어도 그렇고, 삶과 죽음과 관련된 것, 제사와 생일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 즉, 결혼식과 상·장례 때 곱부조 하는 것, 의례에 관련된 것, 생선으로 국을 끓여 먹는 것 등 제주에 오기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주의 문화가 육지문화와의 다름으로 인해 발표자 이주 초기의 제주생활은 매우 낯설었던 기억이 난다.

또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도 높았다. 외부인에 대한 제주의 배타적인 의식은 오래 전 제주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제주사람들은 이것을 제주의 한 특성이라고 말한다. 약 100년 간의 몽고의 지배, 제주인의 입장에서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삼별초, 유배의 섬으로써의 제주도, 아직도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4.3의 역사 등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외부인의 존재는 제주사람의 피해의식의 근원이기도 했고, 그것은 다시 역사 과정에서 문화적

반감으로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제주사람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제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제주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주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주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망은 제주 이주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면서 급기야 제주살이를 위해 생활터전을 옮기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제주이주는 TV에서 보여 지는 모습과 달리, 현실에서 겪는 제주에서의 괴리감에 힘들어 하는 이주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또한 그들은 제주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들도 한다. 물론 살아가는데 좋은 모습들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주의 진정한 삶의 모습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의 제주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산업의 원리에 의한 무차별 개발과 투기 자본으로 인해 제주는 제주가 아니라 시골도 도시도 아닌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대의 흐름도 늘 변화의 물결을 탄다. 변화는 역사의 수순이다. 새로운 변화는 다시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한다. 안정과 긴장은 마치 한 몸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완시키면서 응축되고 서로를 상승시키는 관계로 발전한다. 모순이 없는 세계는 없다. 모순은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다. 최근에 불고 있는 ‘제주로의 이주 열풍’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주민들로 하여금 제주를 떠나게 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이주 열풍에 대한 일종의 역풍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제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제주를 떠나고 싶어 하는 최근의 모습을 볼 때 지금 불어 닥치는 제주 이주의 열풍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제주로 오는 것일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주로 이주토록 하는 힘과 그들을 이주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현상들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궁금증은 그동안 제주 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었던 발표자에게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지금 제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제주 이주 역사를 알림으로써 ‘제주바로 알기’를 실천하는 심정(心情)으로 『제주 이주민의 역사』를 저술하였다.

2. ‘이주자의 섬’ 제주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북쪽 목포와의 거리는 약154km,

북동의 부산과의 거리는 약288km, 제주와 완도와는 약90km, 추자도와는 약 49km 떨어져 있다. 섬의 넓이는 1,845.60km²로서 남한 면적의 약 2%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으로, 충청북도의 1/4이며, 거제도보다 5배가 더 크다. 동쪽의 일본 대마도와의 거리는 255.1km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다.¹⁾

제주도의 동·서간 거리는 73.3km이며, 남·북간은 41.0km이다. 부속 도서를 포함할 경우 동·서간 연장 거리는 동단 우도(비양도)에서 서단 차귀도까지 77.2km, 북단 횡간도에서 남단 마라도까지 100.1km이다.²⁾

이처럼 작다면 작은 땅인 제주도가 이주의 문제로 한국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제주를 가리켜 ‘이주자의 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최근 제주도에 대한 도내·외의 관심 키워드는 ‘이주자’이기 때문이다. 이주자로 인하여 매월 갱신되고 있는 유입인구의 수치, 이주자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과 부정의 사실들은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6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동향에서 2월 한 달 동안 제주도의 순유입 인구가 1,738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한 달 동안 매일 60명이 제주로 이주해 왔다는 결과로,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제주도의 최고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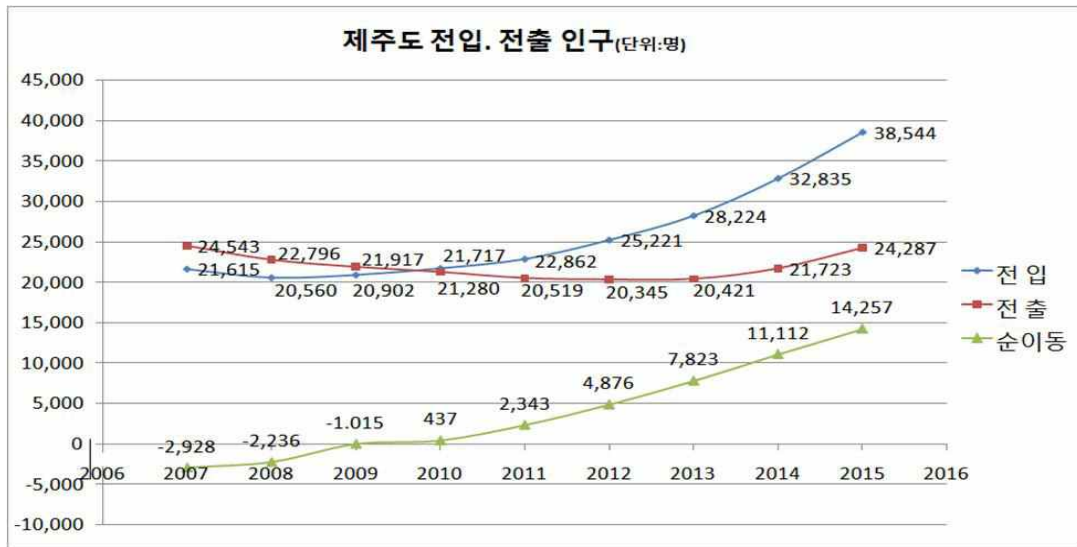
제주도의 인구는 2010년 이후로 전국의 인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제주도의 전입 인구는 38,544명으로 2014년 32,835명 대비 17.4% 증가하였다. 전출 인구는 2007년 24,543명에서 2012년 20,34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전출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전출인구는 24,287명으로, 2014년 21,723명 대비 11.8% 증가하였다.³⁾

인구 증가로 이주민의 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전출인구의 증가는 제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1)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2013, p16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p 15

3)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2015, pp77~78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현황연구 각 년도

주1)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에 의한 자료. 주2) 순이동= 전입-전출

3. 이주의 유형

농·어촌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이동이 심한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든 주거이주(residential mobility)를 경험하게 된다. 보다는 또는 다른 생활방식을 찾기 위한 이주는 인구학적·경제적·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주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이주’와 스스로 이주를 선택하는 ‘자발적 이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주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의 성격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정치적 이주는 댐·공항·항만의 건설 등 국가에 의한 대규모 정책과 국내의 정치적 영향으로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비자발적, 혹은 강제·반강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주를 말한다. 즉, 정치적 이주에는 정책이주와 탈북이주가 있고 과거에는 유배이주가 있었다.

경제적 이주는 실직이나 폐업, 부도 등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 졌을 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경제활동을 하여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이주에는 단기노동이주와 직업이주, 귀향이주, 불법이주 등이 있다.

사회적 이주는 개인의 삶의 욕구와 행복, 그리고 사회적 생활과 관련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현상을 보여주는 이주의 유형을 말한다. 사회적 이주에는 건강이주, 교육이주, 결혼이주, 재난이주, 분산이주, 종교이주 등이 있다.

문화이주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활동했던 장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옮겨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이주는 정착이주와 일시적 이주로 나눌 수 있다. 정착이주는 문화와 예술 활동을 위해 생활의 근거지를 아예 옮기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 이주는 문화기획, 문화컨설팅이나 레지던스와 같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예술가들이 약 3개월에서 1년 동안 정해진 기간 해당 지역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레지던스 생활 후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제주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4. 제주 이주민의 역사

1) 신화 속의 이주민

제주신화에서도 신들의 제주 이주는 제주 신들의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수용적인 태도, 친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신들은 외지인이 가지고 온 것을 수용하여 수렵생활에서 목축과 농경생활로의 사회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는 외부세계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것을 습득하여 삶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신화에 나타난 유배상황, 소나 돼지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은 역사 시대의 상황을 신화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창조신화(創造神話)로써 천지왕 본풀이를 비롯하여 개국신화(開國神話)인 삼성신화, 각 마을의 본향당 신, 한 가문의 조상신 등 신화와 전설이 풍부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신화와 전설은 문헌으로 내려오기보다는 무속(巫俗)의 굿에서 생생하게 구비 전승되고 있다.

우리는 신화·역사시대부터 모두 이주민이었다.

2) 역사시대 이주민

역사는 기술자(記述者)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므로 이미 쓰인 역사는 쓰여진 역사로써 다시 쓰여 질수가 있는 것이다. 역사는 시대의 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를 쓰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쓰여진 역사는 쓰인 역사로써 냉철한 판단과 논리적 객관성이 요구된다.

어느 시기든 사람들이 이주를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탐라시대의 이주역사는 탐라국 형성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학자들마다 제주도의 유입과정을 다르게 주장하고는 있으나, 결국에는 탐라국의 형성은 육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제주이주는 유배를 오거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오게 되었다. 몽골은 전쟁에서 패한 타 민족의 왕족들과 일반 죄인들을 탐라에 유배 보냈다. 탐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관원과 군인, 말을 관리하기 위한 목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하였다. 삼별초와 관련된 군인과 그의 가족들의 제주유입은 제주사회에 흡착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이주는 조선 개국시 고려 유신들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절개를 지키며 조선의 관직을 받지 않고 제주로 낙향하거나 유배를 오게 된다. 명나라의 발흥으로 몽골의 유민(流民)들도 유입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정쟁과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왕족은 물론 고위직의 양반들과 죄인들이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세파를 피해 벼슬을 버리고 제주로 낙향한 선비들도 있었으며, 유배를 왔다가 유배가 풀렸음에도 출륙하지 않고 제주에 남아 제주입도조가 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성씨도 있다.

3) 근·현대 이주민

근·현대 이주민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제주이주와 해방 후 미군정과 4·3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군인, 서북청년단들의 제주 입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 제주 이주는 제주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제강점기 제주 통치를 위한 일본인 관리자와 기술자들은 제주도의 군사기지 건설공사에 타 지방 사람들이 강제노역을 하며 생활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풍부한 바다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일본 어선사 [잠수기회사] 들, 일본인 상업인구 등의 제주정착은 제주바다 자원을 고갈시키고 제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반면 제주도민들은 일본에서 임금노동을 위해 출국하거나 제주도 잡녀들이 일본으로 출가함으로써 당시 제주의 인구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1945년 8월 일본은 패망 이후 10월 23일부터 제주도에 남아 있던 일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해방공간은 혼란기로써 미군정 통치기인데 4.3이후 본토

경찰에 대해 제주 파병을 승인하면서 진압을 위해 서북청년단을 증파하기도 했다.

해방 후 제주도의 인구는 징병과 징용, 일본 노동시장에 나가 있던 주민들의 귀환 등으로 60,000명 가량이 증가하였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제주도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1950년 7월 1만 여 명의 피난민이 제주에 입도했다. 많은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내려옴으로써 제주사회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새로 제주로 들어온 피난민과 육군 제 1훈련소의 모슬포 설립으로 훈련소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제주도민은 이들 이주민들을 통해 육지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대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과거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주도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주자가 많았다면, 현대에 와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인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4) 종교 이주민

종교는 현실의 모순을 달래 주거나 도피시키는 역할을 한다. 거기에는 인간에게 기복(祈福)과 내세(來世)의 영생을 약속한다. 다원화된 현대사회 속에 인간의 정신적 욕구도 다양하여 그것을 정신적 지주로 신앙하는 여러 형태의 종교(宗教)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종교에는 기성종교군(既成宗教群)과 신흥종교군(新興宗教郡), 종교적 맥락 속에 있는 민간신앙이 있다. 기성종교라 함은 유교·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세계적인 종교로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한국에 들어와서 뿌리내린 종교를 의미한다. 신흥종교는 그 종교적 진리가 아직 보편성을 가질 만큼 입증되지 못한 종교로서 그 전파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때로는 특정한 지역을 넘지 못한다. 대개 신흥종교는 근대에 발생한 종교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민간신앙의 주류는 무속신앙이다. 민간신앙은 기성종교나 신흥종교와 달리 교조도 없고, 교리도 없는 일종의 자연종교이다.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신앙현상이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민중 속에서 신봉되어 왔다. 민간신앙은 대체로 미신으로 취급되었으며 항상 억압과 배척의 대상이 되어 왔다.⁴⁾

제주의 종교이주민은 천지대안도, 산신교 등 일부 신흥종교가 제주도내에서 자생되고 전파되었으나 그 외의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기성종교와 대부분의 신흥

4) 유동식,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개설」,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1984

종교는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종교 관련자들이 제주로 이주하였다.

5) 문화 이주민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제주는 관광을 위해 방문했던 사람들이 제주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문화 활동과 관련된 예술인들이 제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을 지역의 경제적 발전 맥락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문화예술을 통하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구성원 간의 관계를 활성화하거나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려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원도심에 문화예술인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행정적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문화를 통해 이주민을 지역주민으로 유입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이주민과 지역 구성원간의 관계를 상생 회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 살리기의 일환인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은 제주의 자연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고 제주에서의 일상이 예술활동의 일부로 선택하여 이주를 결정하기도 한다. 제주에 정착한 문화예술인들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예술활동을 통해 작품전시와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5. 이주민의 정착과 전망

제주 이주민의 역사는 오랜 세월 제주를 형성해온 수많은 시대 상황들의 지류가 모여 오늘날의 제주역사의 분류가 되었다. 현재의 제주도는 ‘이주자의 섬’으로 이주자의 세대 속에서 층층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제주섬의 역사는 이주자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주자는 제주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도 미칠 것이다.

2010년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제주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르는 개발은 제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최근 나타나는 사회현상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한다.

2017년 6월 현재 제주의 인구는 66만을 넘어섰다. 제주도 상주인구 100만을 목표로 제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물 부족, 둘째 생활쓰레기와 수질오염, 셋째 교통, 넷째 생태계와 경관, 다

첫째 제주문화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물 부족 문제이다. 제주 공기업에서는 청정 제주에서 생산된 물로 만든 상품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지하수 채취량을 증산하고 있다. 일부 사기업에서도 지하수를 뽑아 상품화함으로써 지하수 도외 유출량이 증가하여 지하수를 고갈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관광객과 거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 관광객은 여행 경비를 지불하고 숙박을 한다는 생각으로 물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개인은 허가 받지 않고 지하수 관정을 뚫기도 하고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물이 누수되고 있다. 환경부가 발간한 『2014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제주도의 누수율은 43.2%로 생산되는 수돗물 중 56.8%만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고 하루 채취하는 지하수 양을 엄격히 조절·제한하여야 한다. 무절제한 지하수 채취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지하수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물 절약 홍보 활동과 계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등을 홍보하여 물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활쓰레기 증가와 수질오염의 문제이다. 인구의 증가와 관광객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 증가는 처리시설과 관리부족으로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거리 쓰레기통의 철거로 인해 도시, 농촌 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 씻긴 물들이 지하로 흡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카페나 테이크 아웃점, 상품 포장 등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의 증가는 결국 생활 쓰레기가 돼 지역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사업자는 보수교육시 받도록 하고 사업체에서 일회용 사용을 감소했을 경우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고,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사에서 정화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축산분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문제를 들 수 있다. 대중교통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변화에 대하여 기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는 교통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확·포장된 도로의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은 개인 차량 구입의 증가를 가져온다. 제주에서는 ‘탄소 제로섬 제주’를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를 배정 받은 후 기존 소유 차량을 대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차를 함께 보유하는 경우들이 있다.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7년 228,858대에서 2016년 3월에는 443,345대로 194% 늘어났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에 따라 환경오염과 주차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주)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자동차 등록대수/세대수

제주도는 ‘토목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낮에 이동하는 대형차량들은 때로는 운전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타이어의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수치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도시와 달리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일상생활의 편안함, 완만한 교통 흐름의 여유로움 때문에 제주에서 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최근의 제주도는 평상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빠른 차량증가로 인해 점점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신제주와 공항입구를 연결하는 제주시 도령로의 경우 2016년 6월 중 통행속도가 시속 19.3km로 서울 도심의 시속 19.6km 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자동차 공회전 시간이 늘어나고, 교통정체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확산을 가져오며, 차량 연료비가 증가하여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정책들이 제주도 상황에 맞는지는 검증해 봐야 한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제주의 교통흐름과 도로 상황, 교통정책의 변화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렌터카 사용 가능 연령을 높이고 운전경력이 몇 년 이상이어야 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하여 사고율을 줄여야 하며,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생태계와 경관의 문제이다. 제주의 자연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건축의 허가는 결과적으로 제주주민과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제주 자연의 모습을 빼앗아 가고 있다. ‘경관의 사유화’ 폐해는 제주의 자연을 대자본가가 소유함으로써 건물 신축 후 주변의 제주자연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인식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건축물의 증가와 도로의 확장은 건축 폐자재 처리 문제와 산업쓰레기의 발생, 더 나아가 녹지공간의 감소와 주택가의 주차 공간 부족 등 총체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개발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택 단지 건설과 도로 포장, 상·하수도과 전기공사, 인터넷 케이블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 다양한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 개발들이 결국에는 개발로 인해 삶을 더욱 파괴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연이 좋아 제주를 찾아 온 사람들을 거꾸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차원의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제주상황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현재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한 행동으로 자연환경 파괴가 급속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 처음 시작되는 환경의 작은 파손들을 수리·보완·보호하지 않으면 ‘생태계’라는 거대한 유리창이 파괴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제주의 자연이 개인 것이 아닌 공동의 것이라는 인식 아래 제주도의 자연을 후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를 염두에 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바다의 매립과 지반 정비 사업 명목으로 건설되고 있는 해안도로는 도로 개설로 인한 조간대의 파괴와 물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바다녹조 현

상, 모래 유실을 초래하고 있고, 밀물 시 월파로 인한 해안마을의 피해를 가져 오고 있다.

제주생태계와 경관은 개발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 평가, 개발 계획관리 제도 등 철저한 검토와 일관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주문화의 원형파괴 문제이다. 문화재의 개·보수 작업 시 관련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 복원된 문화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때로는 전문성보다는 예산에 맞춘 복원의 결과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예:전통주택)에 대해 제주전통을 유지하려고 해도 주변과 비교되는 경제적 결과에 의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라 해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것을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제주도는 돌·바람·여자가 많은 섬의 섬, 도둑·대문·거지가 없는 섬무의 섬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이주하고,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파트단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주민인지 손님인지 서로 모르고, 알고고도 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상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 상대에 대한 몰이해로 신뢰사회가 무너지는 것인데, 이는 제주에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제주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섬의 특성상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과 해수면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43년간(1964~2006년)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약 8cm 상승하였다. 43년간 제주 부근 해수면은 22cm상승하였으며, 2100년에 해수면은 20.9cm 상승이 전망된다(국토연구원,2012). 이러한 해수면 상승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해양자원을 활용한 제주도 관광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산방산 앞의 용머리해안은 해수면의 상승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 만조 시간대에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20여 년 전 용머리해안의 절경은 해안 전체를 돌며 경관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 부터는 일 년에 1/2 정도가 통제 되고 있다. 또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이 만조시 어항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표한 연간 국내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5.70mm, 서귀포 3.73mm로 전국 평균2.48mm을 크게 웃돌고 있다.

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14년 방어축제는 제주도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 방어들이 강원도로 이동하면서 제주도 모슬포에서는 방어 어획량의 감소 때문에 축제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왕벚꽃 축제, 유채꽃 축제, 한라산 철쭉제 등은 꽃의 개화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으로써 축제날짜가 부득불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와 같은 관광정책을 논의할 때 행정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주민, 관광객이 자연과 함께하며 자연과 호흡하는 제주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문화 해결방안으로는 제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통한 경제적 효과성 홍보와 함께 제주문화와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특히 주소 이전을 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제주문화교육과 제주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제주 주민들에게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사라지는 제주문화는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 제주사람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존속시키는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결론

제주로의 인구유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를 한마디로 ‘이주자의 섬’이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대한 신드롬을 가지고 이주하여 정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생활은 그들이 생각했던, 누리하고자 했던, 제주에서의 삶과 실제의 삶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격차들로 인해 결국에는 그들을 제주에서 떠나게 하는 ‘떠나는 섬’으로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주다움으로 섬을 지키고자 한다면, 처음처럼의 마음과 의욕을 가지고 제주에 온다면 제주 ‘이주 열풍’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알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조심스런 개발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제주가 될 것이다. 제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함께하여야 한다.

제주도가 이주민과 제주 주민·이주민과 이주민·제주주민과 제주주민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다면, 제주는 ‘이주자의 섬’에서 ‘공존의 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연자원의 보존 노력과 문화자원의 보전, 경관보호에 공동으로 함께 참여한다면 아름다운 섬, 살기 좋은 섬,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다운 공공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2013
- 김유정, 『제주 풍토와 무덤』, 서귀포문화원, 2011
- 유동식,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개설」,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1984
- 정은희, 『제주 이주민의 역사』, 서귀포문화원, 2016
-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제 3 부

종 합 토 론

- 지정토론

김일우(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유철인(제주대)

이영권(제주역사교육연구소) 강성일(제주대)

☐2017년 6월 23일 제주학회 학술대회(토론문)

김아람과 염미경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이 영 권(제주역사교육연구소 소장)

한국전쟁기 이주민들의 구체적 정착과정을 보고 싶다

제주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종종 듣는다. 물론 그런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철저히 중앙 중심적 평가다. 중앙은 주류다. 그 주류는 지방에 가서도 주류이고자 한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그들은 지방 사람들을 배타적이라고 낙인찍는다. 이건 제주만의 현상은 아니다. 주류가 아닌 지방, 변방은 보편적으로 배타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배타성이 다른 지방에 비해 심하다고들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럴만한 연유가 있을 것이다. 현대사에 그 답이 있다. 가장 큰 상처는 아무래도 4.3이었다. 만약 외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4.3은 그리 비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진압은 외부 세력으로 대변된다. 군과 경찰이 그것이다. 서북청년회는 더욱 그랬다.

외부 세력에 의한 4.3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한국전쟁은 발발했고, 전쟁과 함께 또 다시 외부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왔다. 피난민, 군인 등이 그들이다. 기록에 따르면 1951년 5월 20일 경에는 무려 14만8천여 명의 피난민이 제주에 거주했다고 한다. 이 인원이면 본래 제주 인구의 절반을 넘는 규모이다. 제주사람들의 긴장과 피로는 더 커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주에 정착했다.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발생할 조건이 만들어졌다.

‘한국전쟁기 제주 피난과 이주, 그리고 정착(김아람 발표문)’은 그러한 과정을 찬찬히 보여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는 최후의 피난 지구가 되어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으며, 육군 제1훈련소가 설치되어 군인들의 숫자까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전쟁고아들도 조직적으로 제주도에 보내졌다.

그런데 이 발표문을 읽으면 그들의 정착 모습이 또렷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전쟁으로 인해 들어온 피난민, 고아, 군인들 중 일부가 전후 정착하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은 미흡하고, 그 배경이 되는 역사 서술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 주제도 그렇고 발표문의 제목에도 ‘피난-이주-정착’라는 단어가 순서대로 배치되었기에 이들의 정착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착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제주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면모가 많이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정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피난민의 제주 입도 과정만 조금 상세하다.

전쟁고아를 다룬 부분에서도 그러했다. 발표자는 ‘고아대피작전’이 던 헤스라는 군인이 주도한 것인지, 블레이즈델이라는 군목이 주도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해프닝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 놓았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고아들이 제주 정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궁금한 것은 누구의 공이었는가, 그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그 고아들이 제주에 어떻게 정착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4장의 제목 ‘난민에서 도민으로, 제주에 정착한 사람들’에서 보듯이 ‘정착’ 문제를 다룬 대목이 있기는 하다. 발표자는 이주민의 정착 방법으로 ‘월남민 출신 기독교 교인들끼리 상호 부조’하는 방식과 ‘정부의 난민정착사업’을 들었다. ‘서귀포 법호촌’ 사례를 들어 ‘제주 법호촌 난민정착귀농단 명부’까지 소개하는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발표자 자신도 발표문에 써 놓았듯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마을은 어떠한 과정으로 복구되었는지, 1950~60년대 정착 사업을 매개로 중앙 정부와 제주가 어떻게 상호연관을 맺었는지 등 해명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그러고는 바로 맺음말로 넘어가 또 다시 향후 과제들을 나열했다. 이주민의 정착 과정은 전쟁의 사회사에서 중요한 단면을 드러낼 것이라며 향후 피난민, 고아, 군인으로서 제주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과제만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난민정착사업이 제주도에서도 계획되어 170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170개 이상의 사업장이었다면 적지 않은 수치이다. 그러나 발표자는 정착 법호촌 하나만을 소개했다. 법호촌에 대한 서술도 심도 있는 분석은 아니다. 간단한 소개 수준이다.

물론 사료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구술해줄 사람들도 만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발표문을 읽은 토론자로서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 한국전쟁기 이주민들의 구체적 정착 과정을 보고 싶었다. 제목만으로는 상당한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막상 맺음말까지 읽고 나면 허기는 더 심해진다. 결국엔 향후 연구를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의의에 만족하기로 했다.

몇 가지 의견을 적는다. 큰 스케치를 했으니 이제는 작은 세부를 묘사했으면

좋겠다. ‘전쟁고아’ 하나만을 테마로 해도 좋겠다. 현재에도 모슬포에 남아 있는 어느 고아원의 경우는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제주 피난민과 제주 개신교’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 한국전쟁과 한국 개신교의 성장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제주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전쟁기 이주민 출신의 정치 세력화도 다룰 수 있는 주제이다. 1950년대 제주 정치사에서 피난민 출신 도의원 김상흡은 여러 차례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다.

‘원주민과 피난민과의 갈등’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서로 다른 집단이 만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갈등이다. 그리고 그 갈등 관리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역사가 많이 달라진다. 그런 만큼 갈등의 문제도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실제 한국전쟁 피난민과 4.3이재민 사이에 정부 구호곡을 놓고 심한 대립이 있었다. 피난민들은 그들의 조직을 결성하고 ‘피난민대회’를 개최하며 행정관청을 압박했다. 1953년 2월 10일 관덕정 광장에 피난민 2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연 것이다. 피난민들에게 배정된 구호곡식의 일부가 4.3 이재민에게 돌아갔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회의 연사였던 김명수는 도의회 의장을 빨갱이라 규정하며,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회의 준비위원장 역시 앞서 언급한 피난민 출신 도의원 김상흡이었다.

이후에도 도의회는 아무래도 원주민 편이었던 것 같다. 1956년 9월 6일자 <제주신보>에는 도의회가 ‘구호사업에 있어서 6·25 피난민에 비해 원주민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등장한다.

‘오현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하여 6·25피난민 학생들인 오현고 특설과 1·2학년 150명을 흡수할 것’이라는 도총무국장의 발표는 1955년 2월 22일 <제주신보>에 등장한다. ‘피난민과 교육’도 작은 연구 테마가 될 것이다.

마이너리티들의 적응 전략, 집중 거주와 향우회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땅값이 평당 1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그로 인해 이주민을 보는 시선도 다양하다. 원주민 입장에서 긴장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물론 자신의

삶에 피해가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피해를 느끼면 그 순간 강한 배타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배타성은 곧바로 갈등을 불러온다.

그 배타성과 그에 따른 갈등은 물론 최근에만 발생한 현상은 아니다. 6.25피난민이 몰려들었을 때도 그런 갈등은 불거졌고, 또한 발표문에 등장하는 1960~70년대 호남인들이 대거 입도했을 때도 비슷한 갈등은 있었다. 상대적 약자인 이주민들은 그런 갈등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다시 말해 이주민들은 어떻게 제주사회에 연착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염미경 발표문)’은 이 문제를 비교적 명쾌하게 다뤘다. 인구 이동은 밀어내는 내인(內因)과 받아들이는 외인(外因)이 동시에 작용할 때 발생한다. 먼저 내인은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더뎠던 광주 전남지역의 경제 현실이다. 외인은 1960년대 이후 제주사회의 경제 변동이다. 국제관광지로의 개발과 감귤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동력 수요가 커졌던 것이다. 이처럼 내인과 외인이 맞아 떨어져 호남인들의 제주 이주가 급증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에 비해 모든 것이 불리하다. 다시 말해 이주민은 또 하나의 마이너리티인 셈이다. 마이너리티들은 주류 사회에 적응, 생존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발표 논문에서는 ‘집중 거주’와 ‘향우회’ 조직이 바로 그 방법이었다고 말한다. 제주시 건입동과 서귀포시 동홍동 주변 일대에 소위 ‘해남촌’ 혹은 ‘전라도동산’이라는 그들의 집중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집중 거주는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모여 살면서 강한 공동체적 유대감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다. 마이너리티들의 적응 전략이다.

향우회 결성 역시 만찬가지다. 공공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에서는 그나마 사조직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현대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했다. 공공성이 미약했기에 공적 조직보다 사적 조직에 의존하여 문제를 풀었다. 그게 때로는 현실적이었고 합리적이기까지 했다. 사회의 주류 집단들도 그랬다. 그랬으니 이주 당시 마이너리티들이었던 호남 이주민들이 향우회 결성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 역시 약자들의 적응 전략이라 할 것이다.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 지역정착과 사회연결망(염미경 발표문)’은 위와 같이 ‘집중 거주’와 ‘향우회’로 깔끔하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런 까닭에 토론자로서 이 발표 논문에 대해 더 보태고 뺄 것은 없다. 이런 발표문을 만나면 토론자는 참 난

감하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논문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 그 주변에 살았던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보탠다.

먼저 질문이다. 호남 이주민들이 집중 거주지로서 제주시 건입동과 서귀포시 동홍동을 들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었다. 건입동의 경우 제주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일자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동홍동의 경우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왜 서귀포 지역의 경우는 동홍동에 몰려 살았는지가 궁금하다.

둘째, 건입동 집중 거주 이유를 제주항과 가깝다는 것, 즉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건입동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이 요인도 중요하다. 제주항과 가까운 것은 건입동만이 아니다. 당시 최고 번화가인 칠성통도 바로 제주항과 이어진다. 제주 원주민에게 있어서 ‘성안’과 ‘성밖’은 강한 차별이 내포된 지역 구분이었다. 칠성통은 성안이다. 반면 건입동은 성밖이다. 초기 이주민들은 아무래도 저렴한 정착지를 찾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은 농담 같지만 농담만은 아닌 이야기다. 당시를 살았던 토론자로서는 제주도내 ‘조폭 조직’에 상당히 민감했다. 청소년기여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소위 제주시내 3대 조폭 중 하나가 바로 이들 이주민 2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이었다. 향우회만이 그들의 적응 전략은 아니었을 것이다. 향우회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도 그 사회 그 시대를 읽는 코드들이 숨겨져 있다. 미국 내 가장 강력한 갱조직이 베트남 출신 조직이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를 분석했는데, 토론자가 청소년기에 겪었던 제주시내 조폭 조직의 현상과도 유사한 점이 있었다.

마지막이다. 발표문을 읽으며 현재 유럽 상황이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유럽 내 이주 무슬림들을 둘러싼 갈등, 히잡 착용 논란 등. 하지만 유럽 축구팀 선수들 중 상당수는 피부가 검다. 북아프리카 출신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국가 대표이다. 인기도 높다. 갈등도 있고 융화도 있을 것이다. 이주민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기에 시야를 넓혀 다른 세계도 같이 살폈으면 좋겠다. 논문이 아니면 그냥 가벼운 칼럼에서라도.